# 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30 호 구독신청 02)2004-8200 | Buddhanews.com | 불기 2553년 5월 6일(음력 4월 12일) 수요일(주간)




**꽃 한 송이에 공경심을 담아…** 조계사(주지 세민)는 2009 어버이날 행사로 4월 30일 경내에서 '어르신, 당신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를 개최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행사는 젊은 날 국가 발전에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어르신들께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효'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에 앞서 조계사불교대학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 주고 있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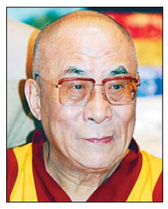
# "이타행으로 인류에 공헌을"

## 달라이 라마 · 타종교지도자 등 봉축 메시지 발표

5월 2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내외 종교 지도자들이 불교계에 봉축메시지를 전달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한국 불자들에게 보내는 봉축 메시지를 통해 "불교도가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이타행"이며 "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불교 이성택 교정원장은 "올해 봉축 표어처럼 사회적 어려움을 자비나눔 운동으로 극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원불교인들과 불자들이 함께 희망을 전하고 자비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자"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장 루이 토랑 추기경은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통해 가톨릭 신자들은 불자들과 인사를 주고받는 등 기존의 유대를 두텁게 하는 기회를 갖는다"며 "불자들의 초연(超然)과 자족(自足)의 본보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진석 추기경.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진석 추기경은 "故 김수환 추기경 선종때 불교계에서 보여준 애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올해 봉축행사 주제인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성 총무는 "불자들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 세상에 희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 조승수 위원 보궐 당선



조계종 중앙신도회 조승수 지도위원(사진)이 4월 29일 국회의원(민주노동당 울산 북구) 보궐선거에 당선됐다.

조승수(법명 · 無塵) 당선자는 중앙신도회 제23대 지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제24대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선지식을 찾아서
▶14 설정 스님


법어집 출간
▶18 보성 스님

# 의견은 분분 '한 목소리'는 아직…

## 조계종 연구위 활동 종료 4년째… 공식 기구 없어

## 세계적 인식 변화 · 타종교 활동 '타산지석' 삼아야

– 불교계 생명윤리문제 통일된 '입장' 있나 없나?

4월 30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가 차병원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을 승인하면서 줄기세포연구에 세간의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황우석 박사의 연구팀이 연구가 묶여있던 3년 새, 황 박사만의 일명 '젓가락 기술'로 불리던 줄기세포 연구는 세계적인 생명공학 연구 트렌드가 됐다.

중단됐던 체세포복제 방식의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되면서, 사회 각계에서는 윤리적, 합리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생명윤리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톨릭은 성체세포 연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불교계는 아직 관련연구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지 못했고 안락사를 비롯한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통일된 종교적 · 학술적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배아줄기세포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복제된 배아는 생명 △복제된 배아가 생명체이나 난치병 치료 등에 한해 사용가능 △특정 기준 이전 배아는 세포로 이용가능 등으로, 불교계 의견은 아직 모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2004~2005년 조계종 총무원은 '불교생명윤리 정립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별 연구를 실시했다. 당시 불교생명윤리 연구위원회는 2005년 12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라는 주제로 공개 심포지엄을 열고 연구성과를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생명조작분과위원으로 연구를 진행한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과 우희종 교수(서울대 수의학과), 허남결 교수(동국대 윤리문화학과) 3명 은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불교생명윤리에 어긋난다'고 도출했으나, 기타 반대의견으로 유보 입장을 취했다.

당시 미산 스님은 "성급하게 배아가 생명체다 혹은 생명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중간은 볼 수 있지만 끝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고 유보하며, "생명과학 연구추이를 주시해 타당성있는 교학적 해석이 도출될 때까지 연구와 논의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개의 보고서를 발간한 연구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학계에서는 각종 세미나 등이 진행됐지만, 종단 내에서는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입장이 유보상태였다. 2008년 황우석 박사 지지모임이 보건복지부에 연구재개 승인을 요청 할 당시 교구본사 주지일동 명의로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지지현수막을 게재한 것이 유일한 의사개진이었다.

이에 비해 가톨릭은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순간을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배아복제 연구 자체를 생명파괴로 보는 입장을 견지하고 적극적인 반대행동에 나서고 있다. 2005년 설치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이번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에 대해 "생명체인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체 파괴를 전제한 것인 만큼 철회돼야 한다"며 "가톨릭 교회는 앞으로 배아줄기세포연구의 비윤리성을 알리고, 입법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 것"이라고 공식반대운동을 벌일 것을 밝혔다.

생명윤리심의위가 연구를 허가한 것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마냥 묶어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차병원 연구팀책임자인 정형민 박사가 임신과 출산이 이뤄져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냉동 잉여난자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연구에 사용할 계획을 밝혀 윤리적 논쟁을 어느 정도 피한 부분도 있지만,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부임 이후 줄기세포 연구에 국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전세계가 연구경쟁에 나선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

황우석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돼 있는 동안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왔다. 미국은 작년 말 세계 최초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개발한 척수손상 치료제의 임상허가를 받았고, 실명(失明) 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도 임상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 교토(京都)대 연구팀이 배아가 필요 없는 만능줄기세포(IPS)를 만들어 특허까지 받았다.

국내 연구재개로 인해 이제 곧 한국에도 관련기술과 상품이 등장해 사회변화에 따른 불교계 입장정리와 윤리적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불임부부의 수태에 사용하고 남아 법적으로 폐기될 자녀난자를 제공자의 동의하에 사용하기에 현재 윤리수준이나 과학적 입장으로 볼 때 크게 문제점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이번 기회에 생명과 생명윤리에 대한 불교계의 확고한 입장정리의 장이 열린다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 뿐만 아니라 대다수 불교계 학자들은 불교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계 중지를 모으기 우해서는 교리를 통한 이론무장과 홍보, 실천행을 통한 합의과정은 필수. 교계가 줄기세포 연구 승인을 계기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명확한 관점과 윤리적 대안 제시에 나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법구경

원한보다 저주보다
잘못된 내 마음이 주는 재난이
더 크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용도:복장의식, 상량식,봉사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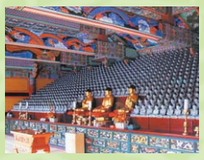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 · 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향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성보박물관 
팔상탱(보물 제1330호)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보문사, 장안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 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 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 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 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 죽비와 목탁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 부천 스포피아 문제의 본질

국가위탁시설 운영을 둘러싸고 조계종 유지재단 통장이 가압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천 스포피아 매각결정에서 시작됐다.

부천 스포피아는 근로복지공단이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해 1999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조계종유지재단이 관리, 운영권을 수탁받은 시설로, 석왕사 측이 주지 영담 스님을 관장으로 실질적인 운영을 해왔다.

그런데 2004년 부천 스포피아가 74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자 근로복지재단이 3개월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2005년 9월 65억에 부평 '은혜와진리' 교회에 매각하면서 문제가 됐다.

적자사업을 위탁받아 겨우 살려놓은 시설이 교회에 매각되자 석왕사는 부당성을 제기하며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공과금과 임금 · 퇴직금 지급을 유보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 14명은 수탁계약을 맺은 법적책임자 유지재단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체불임금의 책임이 석왕사 측에 있다고 판결했지만 스포피아 직원들은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유지재단에 책임있다고 판결했다. 1억 여 배상금으로 인해 결국 조계종 유지재단 통장 가운데 하나가 압류당했다.

교계 모 언론은 이 소송 배후로 영담 스님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일부가 석왕사 부설기관에 재취업한 사실과 소송대리인이 영담 스님이 발행했던 신문의 논설위원을 역임하는 등 정황상 의혹을 보도한 것이다.

왜 종단 재단을 재산을 관할하는 유지재단이 복지재단을 대신해 시설을 수탁했는지, 스포피아 사태로 조계종 계좌가 가압류되는 명예훼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는 추후 분명히 밝혀야 할 과제다.

우선 현재 복지재단이 수탁해 일반사찰이 운영하는 불교계 복지체계가 이번 사태로 큰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압류된 조계종 통장에서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선례가 남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늦었지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운영 체계정비 등도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불교계를 무시하고 교회 측에 매각하며 모든 문제를 발생시킨 정부와 공단에 그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을까.

# 東大 불교대학 국제화 시동

## 외국인 교원 확보·국제 여름학교·해외탐방 등 계획

조계종립 동국대의 근간인 불교대학이 국제화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세계화에 나선다.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혜원)은 4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교대학 국제화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국제화를 위해 불교대학은 △외국인 전임교원 확보 △동국 국제 여름학교 운영 △영어특강반 운영 △해외탐방 봉사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 중이다.

불교대학은 외국인 전임교원 확보를 위해 영어권의 불교학자들을 섭외 중이다. 티벳어 및 밀교, 범어 및 인도고대철학, 중국불교 전공자 각 1명을 내년까지 초빙하기로 했다.

박사논문을 갓 마친 젊은 학자를 초빙해 현재 8개 강좌인 영어 강의를 18개 과목(개설강좌의 30%)으로 늘리고, 휴식년을 맞은 해외의 저명 학자를 확보해 국제화된 교수진을 갖출 계획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장 혜원 스님.

하계방학 동안에는 국제화추진단이 시행중인 국제 여름학교(International Summer School)에 요하네스 브릉크호스트 교수(스위스 로잔대)와 로버트 버스웰 교수(미국 UCLA)를 초청하고, 수강료 일부를 지원해 불교대학 학생의 참여를 도모한다.

또 불교대학 차원에서 자체 영어 특강반과 해외탐방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인스님을 비롯한 재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올여름 첫 파견할 해외탐방 봉사단은 학생 5명을 선발해 태국에 파견한다.

혜원 스님은 "한국불교의 위상은 종립 동국대의 위상에 달렸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불교대학의 대외적 위상 정립과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교대학원에는 명삼심리상담학과도 개설돼 2학기부터 석사 및 지도자과정을 모집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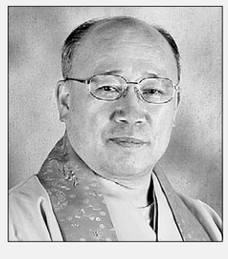


## 불교중앙博 '승-구도자의 길' 展 개막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 이하 박물관)은 4월 28일 개관 2주년 기념 특별전 '승-구도자의 길' 展 개막식을 개최했다.
불 · 법 · 승 삼보(三寶) 특별전의 세 번 째 전시인 이번 특별전은 7월 12일까지 진행된다. 16나한도(보물 제1367호)를 비롯한 보물 11점을 포함해 총 158건 247점이 전시되며 △스님의 일생 △위대한 예술가로서의 스님 △구법과 호국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김진성 기자

## 진각종 혜정 정사

### 복지재단 대표이사 선출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이 신임 대표이사로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사진)를 선출했다.

진각복지재단은 4월 29일 서울 성북구 법인 회의실에서 제74회 이사회를 갖고 위임을 포함한 참석이사 8명의 만장일치로 혜정 정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출했다.

혜정 정사는 앞으로 4년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되면 공식적인 취임 행사는 5월 15일 진선여고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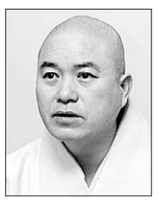
# 수경·미산 스님 문화재 위원 위촉

## 문화재청 위원 줄이고 여성비율 높여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수경 스님과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미산 스님이 각각 문화재청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불교학)와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불교사) 위원으로 위촉됐다.



수경 스님.



미산 스님.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4월 26일 문화재위원회 위원 80명과 전문위원 130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현행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임기가 25일 만료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에 위촉된 수경 · 미산 스님을 비롯한 210명의 신임위원은 2011년 4월 25일까지 문화재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심의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위원 선출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120명에서 80명으로 대폭 줄이고 여성 전문가를 13.3%에서 20%로 확대 위촉했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잠정목록 대상 관리를 전담하는 세계유산분과를 신설했다. 하지만 국보지정분과와 문화재경관분과를 폐지하고, 공예와 예능분야로 분리 운영하던 무형문화재 관련 분과를 한 개로 통합해 전체 11개 분과위원회가 9개로 축소됐다.

문화재청 유건상 사무관(문화재정책과)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균형감 있는 안건 심의가 가능하도록 각계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 "종무행정 효율화 제고에 기여"

## 조계종 6월 9~11일 제3기 종무행정 강좌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부장 원학)는 6월 9~11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3기 종무행정강좌를 개설한다.

강좌는 '지역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포교', '행정서비스와 쌍방커뮤니케이션' 주제의 특강을 비롯해 '종무행정과 종무원', '정부 등 공공행정 안내 및 대응'에 대한 기획강의 등이 편성돼 있다.

원학 스님은 "사찰 행정처리 전산화가 확대되고 사찰고유의 기본업무처리 외에 사찰행정과 공공행정 영역과의 관계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 종무행정강좌는 종무의 안정성과 전문성 향상은 물론 사찰과 종단의 종무행정효율화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강대상은 사찰 교역직, 일반직 종무원 등 사찰종무 종사자는 물론 사찰신도 및 본 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5월 12일까지 선착순 50명, 수강비 20만원. (02)2011-1706 조동섭 기자

# 조계종 본말사 주지연수 6~7월 열려

2009년 조계종 본말사 주지연수가 6~7월 공주 전통불교문화연구원에서 개최된다.

조계종 본말사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6개 권역별로 2박3일간, △사찰의 국가법령 문제와 예산 활용방안 △국가복음화전략(성시화운동)과 위기의 한국불교 △사찰, 지역을 살리는 희망복지센터 △갈등관리 역량강화 등 특화된 4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조계종 교육원 담당자는 "전통불교문화원 개원으로 예년까지 나뉘어 열렸던 중진주지연수가 폐지됐다"며 접수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은 해당 교구본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5월 22일까지 소속교구본사로 제출하면 된다. (02)2011-1807 조동섭 기자

# 종범 스님 승가대 최초 명예교수

## 중앙승가대 이사회서 결정

前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이 중앙승가대 최초의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중앙승가대 이사회(이사장 지관)는 4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83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이사회는 중앙승가대 편제상 교학처 · 총무처만으로는 학교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실을 설치하고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과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을 신임이사로 임명했다.

조동섭 기자

# 조계종 2009 해외 장학승 선발

조계종 교육원(원장 직무대행 법장)은 종단을 이끌 유능한 인재 육성을 위해 2009년 해외 장학승을 선발한다.

해외장학생 선발 대상은 조계종 비구 · 비구니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종헌 · 종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석사 3학기 이상 혹은 박사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이다. 신청자는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장학금 신청서, 수행이력서, 대학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지도교수 추천서, 전공 연구 계획서 및 성과물 등을 교육원에 제출하면 된다. 전형결과는 9월 중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02)2011-1800~3 조동섭 기자

봉행

선각종 국태민안기원 및 생전 예수시왕칠재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불조의 혜명을 계승하고 종단발전과 불교중흥을 위하여 중생교화에 주력하신 각 사암 주지스님의 법체청안하심과 대소불사원만 성취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기축년 윤년을 맞아 중생들의 다겁생에 지은 업장소멸과 죄업을 생전에 참회하고 인로왕보살님과 염부제시왕님께 선법을 닦아 내생에 성불코져 발원하는 생전예수시왕칠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각 사암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는 수희동참하시여 현존에는 무량한 복락을 사후에는 극락정토에 거듭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생전예수재 봉행위원장 원각 진원 합장

◆ 일 시 : 2009년 5월 17일 (음력 4월 23일) 일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올림포스호텔 특설법단 (☎ 032-762-5181)
◆ 주 최 : 대한불교선각종 인천 계양사 ◆ 주 관 :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
◆ 후 원 : 선각종 전국 교구 종무원 ◆ 증 명 : 종정 영담 정업 대종사

◆ 문의전화 : 인천 계양사 (인천시 동구 화평동 365-3호)
전화 032)765-3207 / 010-6359-7872 / 016-715-1085
선각종 총무원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391번지)
전화 061)433-2233, 3233 / 팩스 061)433-2425 / 011-795-1420 진목스님

대한불교 선각종 총무원

# "목에 칼 쓰고 지옥에 떨어져도…"

## 대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지율 스님 "오보 바로 잡을 것"

4월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천성산 터널공사 방해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율 스님이 단호한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지율 스님은 홈페이지 '초록의 공명'(www.chorok.org)과 불교환경연대 등에 보낸 장문의 편지를 통해 "항소와 상고 시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고 적법함을 주장하지도 않았기에 상소 후 27개월 만에 시의 적절하게 내린 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없다"면서도,"설령 목에 칼을 쓰고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지금과 같은 선택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3일 "(지율 스님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은 적절하다"며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율 스님이 편지를 통해 "판결일을 전달받지 못했고, 판결 소식도 거리에서 접했다"고 밝혔듯, 대법원 확정 판결은 스님에게 급작스러웠다. 하지만 주요일간지 등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환경운동의 내리막 시작'(조선일보), '완패한 환경독선주의'(조선일보), '국민 천문학적 피해'(동아일보), '환경포퓰리즘'(문화일보) 등 악의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이미 피해액 145억을 2조5161억으로 부풀려 보도한 각 유력언론사로부터 소송을 통해 정정보도를 이끌어 낸 스님은 "판결을 빌미로 비약해 가고 있는 논리들은 '악의'가 아니라 '시의'이기에 대법원의 판결문을 본 후 오도된 기사들을 바로 잡겠다"며 강경한 대응방침도 전했다.



낙동강을 순례하며 자연생태를 기록 중인 지율 스님. 사진제공=오마이뉴스

현재 낙동강 일대에서 생태환경 등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님은 "그들이 눈가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제가 걷고 보고 있는 이 현장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끝맺으며 불자들의 관심도 당부했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대법원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에 대해 4월 24일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생명주권운동보다 개발위주 정책에 면죄부를 준 부끄러운 사례로 사법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규탄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 한국동방학회 창립

## 동방대학원大 학술대회도

한국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한국동방학회가 창립된다.

'동방학회 창립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이형환 · 동방대학원대 석좌교수)는 5월 8일 오후 1시 동방대학원대 대강당에서 학회 창립 법회 및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방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릴 학술대회에서는 △'백제시대 금석문에 나타난 서예문화 연구'(이영철 동방대학원대 교수) △'황칠의 분리 · 정제 및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한종수 대진대 교수) △'<법화경>에 나타난 사상적 계보'(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 △'주역학의 연구 동향과 향후 과제'(신성수 동방대학원대 교수) △'미래학은 자연치유학이다'(한상문 을지대 교수) 등 5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동방학회는 학술지 <동방학보>에 이날 발표한 논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 김윤옥 여사 보현의집서 배식봉사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4월 27일 서울시립 노숙복지시설인 영등포 보현의집(관장 지거)을 방문해 배식봉사 활동을 벌였다. 이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방문한 김 여사는 30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일일이 따뜻한 식사를 건네주며 "여러분들의 꿈이 상실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격려했다. 김 여사는 영부인이 되기 전 1년 6개월 동안 이곳을 매달 방문해 배식봉사를 한 인연이 있다. 이나은 기자

# "연꽃세상엔 장애도 없어요"

## 장애우 모임 '보리수 아래' 두 번째 공연, '감동'


4월 28일 열린 '제2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에서 원심회 회원들이 난타공연을 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불교문학과 예술, 신행을 함께하는 장애우 모임인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가 4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서 삶의 애환과 행복을 진솔하게 다룬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시와 음악은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 쌍문복지센터 효현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의 심금을 울렸다.

공연에 앞서 지현 스님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 불자들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해 한 달에 한 번 일반 사찰에서 여법하게 법회를 봉행하는 것도 어렵다"며 "조계사나 봉은사 등과 같은 사찰에서 한 달에 한번이라도 법회를 열어 모두가 함께 부처님 법을 듣고 보며 공부하는 것이 꿈이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회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회원들이 직접 창작한 시낭송, 무용, 노래 공연이 진행됐다.

노래 '지금은 봄'을 작사한 권오웅(근이양증장애, 금춘가족 발행인)씨는 신혜영 교수(춘천교대)가 작곡한 노래를 듣고 "장애인 부모님 아래에서 6남매중 둘째로 태어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과거가 추운 겨울이라면, 반려자를 만나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한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지금은 봄"이라며 "부처님과의 인연에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리수아래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 11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법당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02)959-2611, cafe.naver.com/borisu0708

이상언 기자

# 장엄등 밝히고 나누는 세상 발원

## 대구 · 대전 · 포항 연등축제… "지역민과 함께한 환희의 잔치"


대구시내에서 열린 제등행렬에서 청룡 장엄물이 불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서대전광장에서 봉행된 연등축제에서 대전 불자들은 한마음으로 불심융성을 발원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을 기원하는 '불기 2553년 연등축제'가 4월 25일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대구봉축위(위원장 허운 · 동화사 주지)는 대구 달구벌대로에서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문화한마당과 대구시내에서 제등행렬을 봉행했고, 대전봉축위(위원장 도안 · 대전불교사암연합회장)는 서대전 광장에서 스님 200여 명과 시민 3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연등축제를 열고, 대전역까지 제등행렬을 봉행했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문)도 같은 날 포항시청 광장에서 '전통문화 연등축제'를 개최하고 죽도초교에서 포항역까지 이어지는 제등행렬을 펼쳤다. 이날 6시부터 진행된 법요식에는 포항지역 스님들을 비롯해 이상득 · 이병석 국회의원, 박승호 포항시장 등 포항시 주요 기관장, 조정헌 천주교 대표신부 등 정관계, 종교계 인사이 참석해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혜철 충청지사장
손법천 대구지사장

# 공부해야 하는데 교문은 닫히고…

## 서불대 학습권 보장 요구 릴레이 3000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사장 지욱, 이하 서불대) 학생들이 또 다시 3000배 시위에 나섰다.

서불대 학생회(회장 오세준)는 4월 29~30일 교육과학기술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불대 사태' 해결을 위한 릴레이 삼천배를 진행했다.

학생회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에서 "서불대 이사진들에 의해 고용된 10여 명의 용역들이 학교의 교문을 틀어막고 교수들의 출입을 막는 등 학교의 부당한 처사가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회는 "용역비 지급을 위해 등록금 10명분의 금액 3400만원이 등록금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며 "학교에서 용역을 철수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또 서불대 이사회에 △김명권 조옥경 박성현 성승연 교수에 대한 부당해임 및 직위해제 철회 △법원이 인정한 황윤식 총장의 지위와 황 총장 체제에서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인정 등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나래(자아초월 석사3학기)씨는 "수업시간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찾아와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지금도 가슴이 떨려 말을 이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자아초월과정에 입학한 김원태씨도 "현재 우리는 학생증도 없고, 재학증명서도 한통 발급받지 못하는 파행적인 학교행정을 겪고 있다"며 "하루 빨리 교과부에서 이를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서불대 학생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정문 앞에서 108배씩 릴레이로 3000배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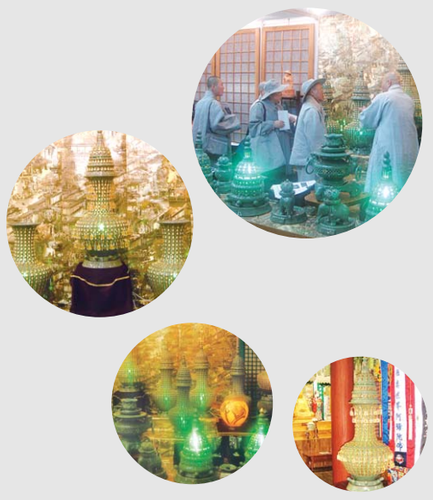
한편, 이에 앞선 2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사장 지욱 스님에 대해 60일 직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조동섭 · 김진성 기자

부처님 일천팔십분의 이름 회전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업장소멸 법륜대 탄생"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이름명패


실용신안특허의기술

□ 제품명: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지금 탁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법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법륜대에 천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발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돌릴때마다 한권의 경을 읽는 공덕은 물론 업장이 소멸되는 법륜대가 법당탁자에 봉안 되고 있다. 한바퀴, 또 한바퀴에 느껴지는 감동이 이어져 사찰 경제지킴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달마사 전시장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는 분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1. 양쪽 1,080명 이름패 셋트 (162만원 상당)는 상담 후 일부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2. 권선문 (120명×10권)을 드립니다.
3. 숲의 향기 그대로 묻어나는 청다향 코끼리 셋트(21만원 상당)를 드립니다.
4. 년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 375,000원씩 분납으로 수월하고 편안한 지불이 불사를 도웁니다.

■ 한 분 한 분 수작업으로 접수순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업장소멸 법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중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탁발 하듯 한분 한분 5,000원이 일년 6,000만원으로 사찰경제 기반이 되는 법륜대 입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 문향 한 번이라도 느끼는 순간이 바로 극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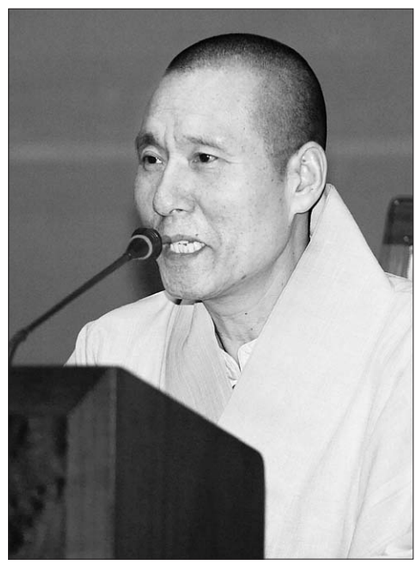
## 원학 스님 '동다송' 특강

강 사 : 원학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일 시 : 2009년 4월 13일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주 제 : '동다송(東茶頌)'

초의 선사 탄생지인 전남 무안군은 4월 25~26일 초의 선사 탄생 223주년을 기념하고 초의 선사의 차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초의 선사 탄생 문화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외국인, 다인, 관광객, 지역주민 등 2만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초의 선사와 차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차 문화 · 산업의 위상을 알리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는 행사였다.

이어 5월 4일 경남 하동에서는 제14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제2회 대한민국 차인대회'가 다인 3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대규모의 '대한민국 차인대회'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초의 선사의 〈동다송(東茶頌)〉이었다.

차인들의 초의 선사에 대한 관심이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3월 30일~ 4월 13일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중앙 종무기관 종무원을 대상으로 강의한 초의 선사의 〈동다송〉을 정리했다. 3회에 걸쳐 진행된 강의 시간의 한계로 〈동다송〉 8절까지 강의가 진행됐다.


〈동다송〉 특강에 나선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

**#1절**

하늘이 좋은 나무(차나무)로 하여금 귤나무와 같은 덕을 갖게 했나니(后皇嘉樹配橘德), 하늘이 명한 너의 천성을 바꾸지 않으며 남쪽 나라에서만 자라도다(受命不遷生南國). 촘촘이 나는 싸라기눈과 싸워 겨우내 푸르고(密葉鬪霰貫冬靑), 흰 꽃은 서리에 씻겨 가을의 풍성함을 발하는구나(素花洗霜發秋榮). 고야산에 사는 신선의 하얀 살결 같이 깨끗하고(姑射仙子紛肌潔) 수미산 남쪽 염부주에서 나오는 금 같은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다(閻浮檀金芳心結).

차나무는 귤나무처럼 군자의 덕을 가지고 따뜻한 남쪽에서만 자라고 옮겨가지 않은 것에서 영원한 믿음과 정절을 상징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매서운 눈보라에도 굴하지 않고 늘 푸른 것에서 선비의 충절과 강인한 순결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변절하지 않고 절개하면서 살기는 쉽지 않아요. 결국 절개를 지키는 사람은 손해보고 낙오자가 되기도 합니다. 공자(孔子)가 〈논어〉 '자로편'에서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하다'라고 말했어요. 남과 화합은 하지만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절개를 가지며 지혜를 품고 타협하면서도 깊이 물들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진정한 차인으로 이 시대 세상의 난관을 극복하는 차나무의 덕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2절**

밤이슬이 푸른 구슬 같은 가지를 맑게 씻었고(沆瀣漱淸碧玉條) 그 잎은 아침 안개를 듬뿍 머금어서 마치 푸른 새의 혀와 같도다(朝霞含潤翠禽舌).

밤중에 내리는 이슬 항해(沆瀣)는 도가에서 신선이 마시는 물로 아주 신성한 물입니다. 이 물로 씻긴 가지가 푸른 구슬 같이 아주 아름답다는 소리겠죠. 또 이른 봄철 차나무에서 움이 터 올라오는 찻잎은 새의 혀처럼 아주 작습니다. 역주를 보면 이태백이 말하기를 중국 호북성 강능현 형주에 있는 옥천사 진공 스님은 가지와 잎이 푸른 옥과 같은 차를 늘 따서 마셔 여든의 나이에도 얼굴빛이 북숭아와 자두처럼 불그레했다고 합니다. 차를 마시면 건강해지고 늙지 않습니다.

**#3절**

선인과 사람과 귀신이 다 같이 사랑하고 아끼었나니(天仙人鬼俱愛重), 차의 됨됨이 참으로 비할데 없이 기이함을 일 수 있도다(知爾爲物誠奇絶). 그리하여 염제가 일찍 맛을 보고 식경에 적었느니라(炎帝曾嘗載食經).

인간만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신선, 보이지 않는 중생인 귀신도 차를 너무도 좋아해서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왕 염제(炎帝)는 '차를 오래도록 먹으면 힘과 황홀한 뜻을 얻는다'고 〈식경〉에 올려 후손들에게 차 마시기를 생활화 하라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면 생기는 힘이란 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힘이 아니라 이로움을 주는 힘이요, 황홀하다는 것은 삶을 기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인생의 의미를 반조하고 깨닫게 되면서 삶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열식(禪悅食)과 같습니다. 차라는 것은 씁쓸하고 또 덤덤하면서도 떨떨한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락성쇠(苦樂盛衰)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삶이 차 한 잔속에 담겨있는 것이지요.

요즘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에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지만 선열식과 같은 본연의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바로 인공적인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면 차는 치금(稚禽)의 혓바닥처럼 아주 작고 여릴 때 따서 덖은 것을 하늘이 내린 가장 맑은 물을 넣어 우려낸 자연의 차지요. 차를 덖을 때는 정성을 다해 적당히 볶아서 중정불과(中正不過)의 맛을 내는 차, 자연 그대로 맛을 지닌 차를 어떻게 커피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4절**

제호니 감로니 불리며 예부터 그 이름 전해왔노라(醍醐甘露舊傳名).

불교에서는 가장 맛있는 것을 제호미(醍醐味)라고 합니다. 우유를 몇 차례에 걸쳐 정제한 우유의 정액(精液)으로 치즈 같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로라는 것은 절에서 아침 예불 다게(茶偈)에서 '제가 지금 맑은 차를 감로의 차로 만들어서 삼보님 전에 받들어 올리오니 원컨대 어여삐 여겨 거두어 주소서'라는 건데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맛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라는 고유명사가 붙여 지지 않았을 때는 최고의 맛을 지칭하는 단어 '제호'와 '감로'를 사용해서 차를 불렀던 겁니다.

감로와 제호의 맛, 문향(聞香)을 한번이라도 느끼고자 하고 느낀다면 그것은 바로 극락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극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극락일 것입니다.

**#5절**

차는 술 취한 사람을 깨우게 하고 졸음을 적게 하나니 이는 주공이 이미 시험한 바이니라(解醒少眠證周聖).

차의 이름은 차(茶), 가(檟), 설(蔎), 명(茗), 천(荈) 이라고 하는데 일찍 따는 것을 차(茶), 늦게 따는 것을 명(茗) 또는 천(荈)이라고 합니다. 음식 백과사전 격인 〈이아(爾雅)〉에는 '가고도(檟苦荼)'라 했는데 여기서는 표현을 달리해 '가차고(檟茶苦)', 즉 가(檟)는 '쓴 차'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이아〉를 널리 증보한 책인 〈광아〉에는 '형주와 파주 사이의 차를 마시면 술을 깨게 하고 잠을 적게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차에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 있어 뇌에 스민 알코올 성분을 쉽게 중화시켜 정신을 맑게 합니다. 또 차를 마시면 잠을 줄이게 해 수행자들이 차를 즐겨 마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6절**

제 나라의 영은 조밥에 차나물을 곁들여 먹었다고 하더라(脫粟伴菜聞齊嬰).

초의 선사의 역주를 보면 〈안자춘추(晏子春秋)〉에는 제나라 경공(景公) 때의 안영(晏嬰)은 거친 조밥에 고기 세 꼬챙이와 달걀 5개와 차나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차나물은 소화를 돕고 밥맛을 돋우면서 머리를 맑게 하기 때문에 안영이 살았던 2500년 전부터 이렇게 음식과 함께 차나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7절**

우홍은 재물을 올려 단구산에 엎드렸으며(虞洪薦餼乞丹邱), 모선은 구명을 보여 진정을 유인하더라(毛仙示蹇引秦精).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늘과 신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차의 신령성에서 차의 약성, 그리고 식용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주다가 차가 제상에 올려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인들은 좋은 차를 구할 때 재물을 차려놓고 좋은 차를 만나게 해 달라고 신선에게 빌었습니다.

**#8절**

땅 속의 귀신도 만금으로 사례하기를 아끼지 않았느니라(潛壤不惜謝萬錢).

원염현(羌剡縣)에 사는 진무의 아내가 젊어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사는데 차를 즐겨마셨습니다. 집 뜰에는 옛 무덤이 있어 차를 마실 때마다 차를 먼저 올려놓고 제를 지내니 두 아들이 무덤을 파헤치려 했으나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그날 밤 진무의 아내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나 "당신의 도움으로 화를 면했고 또 매일 같이 좋은 차를 주기까지 하니 땅 속에 묻힌 해골이라 할지라도 어찌 예상의 은혜를 잊겠습니까"라고 했어요. 다음날 아침 부인이 뜰에 가보니 돈 10만량이 놓여있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뜻밖의 횡재는 횡재가 아니라 그동안 쌓은 선업에 대한 선과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아무리 추구를 해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用心)에 달려있습니다.

**# 내면의 차향, 인간본연의 향기 발산하자**

왜 초의가 이렇게 차나무를 세워놓고 온갖 미사여구로 찬탄할까요? 결국은 지금 여러분, 나 스스로가 차나무처럼 내면의 차향, 인간 본연의 향기를 발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차의 맛은 무엇입니까? 차맛은 아무리 좋다고 설명해도 모르고 마셔봐야 압니다. 삶의 길이가 길어지고 폭이 깊어질수록 차의 맛 '선열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문에는 '일심이문(一心二門)' 중생세계로 가는 생멸문(生滅門)인 망심과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해탈로 가는 진여문(眞如門)인 진심이 있습니다.

차와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자세는 진심이요 차를 멀리하고 자연을 멀리하는 마음자세는 망심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차는 마음 씀씀이에 대한 깨달음과 지혜를 줄 것입니다. 이것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본래 알고 있는 것을 자각하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해 동다송 전문을 다루지는 못해서 많이 아쉽지만 미당 서정주의 시에 '연꽃 만나러가는 바람 아니라 연꽃 만나고 오는 바람같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연꽃을 만나고 돌아오는 바람은 연꽃의 향기에 젖어 돌아옵니다. 바람의 가치는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동다송과의 만남이 비록 짧은 만남이지만 그 가치는 이전과는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향기를 지니고 향기롭게 사십시오.

**믿음과 정절 상징하는 차나무의 덕성 필요한 때**
**뜻밖의 횡재는 그동안 쌓은 선업에 대한 선과**

정리=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 스탠톤대학교(Stanton University)부설 한국최면연구소
제41기 최 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월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오후5시 까지)
▶개 강 : 2009년 5월 18일(월)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수련비 : 200만원
▶특전 :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 | |
|---|---|
| 빙 의 치유법 |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
| 전생요법 |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
| 명리학 |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
| 최면학 |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1만원)

현재 접수중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 255-0734~5



특별기고
윤소암의
미얀마 라오스 문화기행 ③

# 오랜 세월동안 선량한 불교가 뿌리 내린 곳

**#바간을 떠나며 바간을 꿈꾼다**

이틀간 올드바간 불교유적지를 순례하고 이틀을 더물렀다. 다시 먼길을 가자면 휴식을 취해야 하고 사람사는 동네를 보고 싶었다.

황토땅과 큰 나무들 대나무 울타리에 둘러싸인 너와집 초가집 풍경이 정겹다. 마치 어릴때 변두리 동네나 시골집 같은 넉넉한 푸근함이다. 이 속에 소박한 미소를 띠고 사는 미얀마인들에게 억압과 질곡의 근현대사는 한줌 뜨거운 퇴약볕인지 모른다. 저녁이 되면 뜨거움은 서늘함으로 바뀌어 한밤중에는 쌀쌀하기조차 하다.

70년대 한국을 여행한 스위스 작가 니콜라 부비에는 한국과 미얀마 사이에 강렬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것은 1000년이 넘는 불교문화라고 간파했다. "아주 오랜 세월동안 선량한 불교가 뿌리를 내린 그곳에 불교는 매우 특별한 성질의 평화를 정착시켰다." "…몇 단계만 넘어서면 모든 것이 고요하고 엄숙하며 찬란한 빛을 발한다." -미얀마 산책, 크리스틴조더스

그렇다. 바간에서 한국, 미얀마가 함께 앓고 있는 식민지억압과 독재정권의 쓰라린 기억, 민족분열의 어두운 그림자를 치유할 수 있는 빛과 평화의 무지개를 봤다. 나는 마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하고 감동의 법열에 젖었다.

걸어서 간 재래시장은 우리네 시골과 다름없이 쌀과 야채 과일 생선들이 넘쳐났고 한 곳에는 어린 녹차잎을 나물로 무쳐 봉지에 담는 아가씨를 만났다. 고기 생선도 많지만 주로 야채 나물반찬을 선호하는 것 같다.

칠기 몇 개와 삼각형의 종을 몇 개 구입했다. 큰 것은 대단히 맑고 웅장한 소리가 나는데 무거워서 가져오지 못해 아쉬웠다.

오후, 마차를 타고 간 이야우디강변의 사쿠라호텔은 여행자의 피로와 치유를 위한 아로마호텔로 멋진 곳이다. 골프장도 멀지 않으니 여유있는 여행자들에게 안성마춤이다.

다음날 오후 3시 버스에 오르니 5일전 봤던 폴란드, 호주인 여행자가 여럿이다. 갈 때 역시 현지인들이 곽차 여행하는 기분을 만끽했다. 불편한 것은 감수해야 마땅할 것이므로.

바간에 관해 한마디 덧붙일 것은, 1000년 동안 역대왕조가 세운 사원과 탑은 무려 4000여 개, 현재 남아있는 유적지만 3100여 개에 이른다. 방대한 숫자이므로 상상을 초월한다. 어떤 승려사진작가는 바간을 제대로 보려면 한달 이상이 소요된다며 나에게 그렇게 하기를 권했다.

**#미얀마의 두얼굴 억압과 평화의 나라**

양곤까지 690km 15시간을 앉아서 갔다. 버스는 한국의 중고버스 대우마크가 선명하다. 밤 10시 외진 산길의  외국인 검문시간, 열대여섯 명의 외국여행자 검문에 사람과 여권을 하나하나 확인한다. 군인들이 위압적이지 않고 온건 침착하다. 외국인이라서 그럴까 싶지만 아마 반정부인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같다. 좌파나 우파 군사정권의 특징은 공개적이기 보다 은밀하게 감시, 경계하는 것으로 미얀마 역시 외부로 드러내 놓고 공포심을 조장하지는 않는 듯 하다.







① 쉐다곤 파고다의 23톤 대종. 18세기 문화재.
② 쉐다곤 황금 파고다 사원의 위용.
③ 마하쉬 명상센터의 선원.

**보타따웅사원 부처님의 치아·머리카락 사리가 모셔져 있어**

**길이 100m 와불 · 황금 54톤과 다이아몬드로 장식 쉐다곤 '경탄'**

밤 12시, 중간도시인지 매우 번잡하다. 밤참을 먹느라 요란한데 거의 차 한잔과 부침개를 먹는다. 새벽 4시, 양곤에서 2시간 거리인 바고역. 재미있는 곳이다. 칫솔치약을 나눠준다. 각 처에서 모인 수 백 명의 승객들이 손과 얼굴을 씻고 테이블 위에는 뜨거운 물과 홍차, 커피 카스테라가 놓였다. 모두 무료제공이다. 가난한 나라이면서 먹는 인심이 살아있다. 사실 미얀마는 세계최고의 보석국가이며 지하자원의 보고이다. 쌀 등 식량도 제대로 한다면 3모작으로 풍부할 것이나 군사정권의 독점과 부패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가 오래됐고 그나마 중국과의 교역으로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자국의 이익 때문에 좌파군사정권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화시설은 거의 없고 농경과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철도, 도로만 개선해도 엄청난 관광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 6시, 양곤에 도착했다. 숙소로 직행해 조금 휴식을 취하고 양곤 첫날에 만난 아가씨를 불렀더니 계속 전화불통이다. 산업화시설이 빈약해서 전기통신교통이 매우 불편하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된다면 미얀마는 크게 융성할 충분조건을 갖고 있다.

오후에는 인야호수 북쪽에 있는 까바애 사원을 참배했다. 이 절은 인도 산치대탑에 봉안된 부처님과 목련존자, 사리불의 사리를 영국의 고고학자 알렉산드 커닝햄이 발굴, 미얀마 초대수상인 우누가 인도정부에 분배받아 모신 것으로, 매우 주요한 성소다. 그런데 나의 기대와 달리 절안에 공원이 조성 돼 있고 온갖 먹거리와 기념품 노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마 시민들을 위한 배려일 것 같다.

저녁이 돼 호텔지배인이 함께 항구로 나가자고 한다. 항상 웃고 친절한 그는 미얀마 노동자가 월 40불을 받는데 자기는 100불을 받는다고 해서, 한국 노동자는 1000불 이상 번다고 하니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한국에 이미 수많은 미얀마 노동자들이 있음을 그가 알기에 더욱 놀라는 눈치다.

양곤강 옆에 있는 보타따웅사원은 부처님의 치아사리와 머리카락 사리가 모셔져 있는 유서 깊은 절로 탑 내부에서 불발을 친견할 수 있다.

뜨거운 기후와 종교적이유로 미얀마인도 인도인과 같이 술을 즐기지 않는다. 다만 식당이나 호텔에서 위스키와 맥주를 마실 수 있다. 밤의 거리는 철시가 된 이후 적막에 휩싸인다. 길 옆이나 골목안쪽에선 먹자 식당이 즐비하다. 홍차 커피 국수류는 500원 정도면 충분하므로 나는 작은 나무의자에 앉아 엷은 홍차맛이 나는 보이차를 매일 마셨다.

**#미얀마와 불교의 상징, 쉐다곤 파고다의 위엄**

오전 일찍 마하쉬 명상센터를 방문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도힌두교 명상센터와 더불어 양대 명상센터가 된 위빠사나를 탄생시킨 대사원이다. 문을 들어서면 먼저 일반대중을 위한 위빠사나선원이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뒤로 다가가 정좌하고 있으니까 끝나는 시간인가 질의토론이 조용하고 엄숙한 가운데 이뤄진다.

위빠사나는 관법수행으로 부처님 초기 근본불교의 수행법이다. 그에 비해 한중일 삼국은 간화수행법의 지(止)수행법으로 사실상 선수행의 양대산맥이다. 문제는 한가지는 옳고 다른 것은 그르다는 것이나 나는 수승하고 상대는 열등하다는 등 차이와 대립이 있는데 양쪽의 장점을 합치면 지관의 균형된 수행법이 된다고 본다.

1938년 마하쉬 대선사의 위빠사나 수행지도는 미얀마 전국에 500여 개 센터와 동남아 미국 유럽 등 세계각지로 퍼져나가 미얀마가 근본불교의 종주국임은 물론 불법홍포에 막대한 역할을 하는 결정체가 됐다. 마하쉬 대선사의 기념관에 참배하고 스님들의 승원을 둘러봤다.

짜옥따지는 2000년 전에 조성된 와불로 5층 높이와 길이 100m의 부처님으로 미얀마 두 번째 초대형 와불이다. 벽과 천장에는 세계각국, 중국 일본 한국인의 이름이 많이 보인다. 미얀마의 상징이자 최고 성지인 쉐다곤 파고다를 사방 둘러보는데 몇시간 걸렸고 나중에 다리몸살까지 났다. 부처님 당시에 미얀마 사신이 머리카락을 가져와 봉안한 황금의 언덕으로 불리는 쉐다곤은 부처님의 입멸 후 불교가 아닌 생전사원으로 미얀마인들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동남아 불교의 원류로 여긴다.

550년 동안 왕과 민중에 의해 바른 황금이 54톤에 이르고 탑정상에는 수많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쉐다곤은 세계불교국가에서 손꼽히는 황금 보탑일 것이다. 사방으로 난 회랑과 길은 네방향, 전체를 돌자면 3~4km에 달한다. 쉐다곤 한 옆에는 23톤 25톤 중량의 대종이 두 개 있는데 칠 수 있다. 영국군이 가져가서 무기로 만들려고 했으나 강에 빠트려 결국 되찾았다는 일화가 있다.

미얀마는 3000년 전 중국 운남성 남부의 몽족과 2000년 전 히말라야 남쪽 시킴아샘 지역의 티벳트 뿌족이 주류민족으로 같은 몽골리안이다. 그래서인지 한국 일본인과 흡사하고 산스크리트어에서 파생한 팔리어를 쓰는데 우리말 어미아비(아빠엄마 · 알타이어)도 그 중 하나다.

다시 동문을 나가 쉐다곤 흙을 팠다는 깐도지 호수를 산책했다. 북쪽문 아래에는 아웅산 묘소가 있다.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의 암살사건이 있던 곳이다. 차를 타고 조금가면 양곤의 부자와 권력자들이 살고 있는 인야 호수가 그림 같다. 근처에 한국대사관도 있고 노벨평화상수상자 아웅산 수지여사가 십수년째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사진촬영했다가는 카메라를 압수당한다 해서 멀찍이 바라보기만 했다.

시인, 동아시아불교문화연구소장

액운을 소멸시켜주는 금동 반야심경

금동 반야심경을 소장하시면?

황금색은 재앙을 막아주고 기운을 모아주기 때문에 예로부터 가정에 금송아지나 금두꺼비를 소장하는 유래가 생겼다고 합니다. 금동 반야심경은 사람의 기를 북돋워 주는 것은 물론 모든 액운을 소멸시켜주며 특히, 대반야경의 정수만을 가려 낸 경전으로 대학입시 자녀를 둔 가정, 사업번창을 기원하시는 가정, 집안에 삼재가 있으신 불자님 가정에 꼭 필요한 소장품입니다.

● 크기 : 27.5cm×11cm
● 재질 : 24K 순금도금
● 보급특가 : 150,000원
● 사찰단위 단체주문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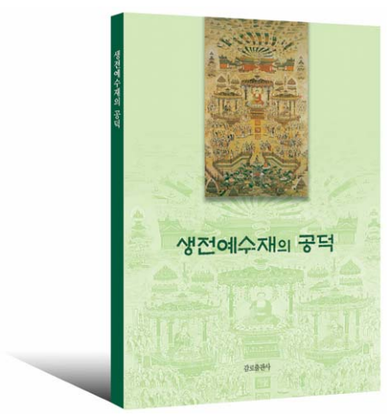
금동반야심경 팔만대장경판 (국보 제32호) 축소판 ▲



금동 신묘장구대다라니

금동신묘장구대다라니를 소장하시면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무량삼매와 변재(辨才 : 이치를 분명하게 판단하여 분별하는 재주)를 얻으며, 모든 구하는 바를 얻게 되고, 여자가 남자로 나기를 원한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일체 중죄와 삼보를 훼손한 죄도 소멸된다.

● 크기 : 지름 10cm ● 재질 : 24K 순금도금 ● 보급특가 : 80,000원




생전예수재의 공덕

생전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생의 빚과 량, 예수재의 의식, 저승을 다녀 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요약해서 수록하여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륙배판 | 80페이지 | 정가 2,500원



예수재함

● 내용물 : 금강경 · 만관 · 금강경찬
칠마 · 돈다라니 · 소다라니
신묘장구대다라니 · 개팔천
수생경 · 탑다라니 · 지전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대표전화. (02)723-4306 | 팩스. (02)738-8682 | 홈페이지 : www.gamro.net | E-메일 : gamro4306@hanmail.net

# 불교체험에서 결혼식까지 감동 퍼레이드

## 서울 · 종로 · 신륵사 · 송산노인복지관 나눔 봉축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계 복지시설들이 다양한 봉축행사를 마련해 보현행을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 · 02-6911-9553)는 2009년 나눔의 등 축제 '효(孝)로 가는 길(道)' 을 4월 20일~5월 11일 개최한다.

올해 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봉축일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등을 밝혀 가족의 평안을 기원했던 옛 선조들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효를 실천하는 연례 후원 축제다.

개막식이 열린 20일 센터 중앙공원에서는 어르신들의 등행렬과 장엄등이 전시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매일 2200여 어르신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무료급식 후원행사 '공양미 삼백석' 과 노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버공연장' 후원행사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 02-742-9500)은 20~30일 불교문화체험행사 '즐거운 야단법석' 을 진행했다.

매일 100여 어르신들이 참여한 불교문화 체험 행사에는 22일, 불교문화체험 한마당으로 컵등 만들기, 다도체험 및 연꽃잎차 나누기, 가족에게 엽서보내기, 보운 스님의 '아름답게 사는 법' 특강 등이 진행됐다.

23일에는 4월 중 복지관 어르신들이 후원해준 초코파이와 라면을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장병들에게 전달하는 '정(情) 나누기' 행사가 진행됐다. 이 밖에도 엽서보내기, 팔상도 · 심우도 전시와 불교영화를 상영하는 등 어르신들이 자비 가득한 불교문화를 느끼는 체험을 했다.

이에 앞선 18일, 의정부 송산노인복지관(관장 석봉 · 031-852-2595)은 봉축을 기념해 제5회 무료합동결혼식을 진행했다. 이날 결혼식에는 5쌍의 부부가 하객 500여 명의 축복을 받으며 석봉 스님의 주례로 백년가약을 맺었다.

결혼식을 올린 부부 가운데는 외국인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결혼한 제임스(31 · 영국)씨는 "고국을 떠나 홀로 외지에서 살아온 우리 부부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멋진 결혼식을 올릴 수 있어 행복하다"며 "결혼식을 마련해준 복지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결혼식은 의정부 불암사불일회, 인테리어 25시, MBC아카데미 뷰티스쿨, 롯데마트 의정부지점, 송산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 및 후원으로 진행됐다.






의정부 송산노인복지관의 합동결혼식(위)과 종로노인복지관의 다도 체험(오른쪽).

여주 신륵사(주지 세영 · 031-885-2505) 산하기관인 여주노인복지회관 · 신륵노인복지센터 · 연꽃어린이집 · 선재어린이집 · 이주민지원센터는 27일~5월 2일 산하단체 활동사진전과 연꽃어린이집 어린이들의 부처님그림 전시회를 열었다.

신륵사 거사회 및 산하단체 임직원 등은 이웃을 위한 '1배 100원 108배' 를 4월 21일~5월 2일 진행했고, 독거 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빈자일등(貧者一燈)' 행사 진행했다. 행사를 통해 모여진 동참금은 봉축행사 종료 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 "뛰고 흔들며 스트레스 날려요"

## 꿈을이루는사람들 제5회 이주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4월 26일 직지사 도진 스님, 아지트 페레라 스리랑카대사, 김규환 구미시 경제통상국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와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이주민 한마음체육대회' 를 개최했다.

'박마하 울랄라' 스리랑카 설날(4월 12~13일)을 맞아 열린 이번 이주민체육대회에 참가한 이주민들은 배구, 줄다리기, 달리기, 장기자랑, 밴드 공연, 스리랑카 운동종목,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볼거리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주노동자 스트레스 해소와 문화충족을 위해 LG경북협의회가 전자드럼을 후원했다.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자원봉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미지부, 건강보험공단 구미지부, 차인연합회는 자원봉사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구미시 체류인구가 적은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등 소수국가 출신의 이주민 애로사항과 언어소통지원을 위한 '이주민통 · 번역지원센터' 개소식도 함께 봉행됐다.

스리랑카 로하나(30)씨는 "그동안 스트레스도 풀고, 친구도 만나 좋았다. 특히 스리랑카 대사님이 직접 오셔서 여권 및 송금 애로점을 해결해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꿈을이루는사람들은 2000년 이주노동자상담지원센터, 2001년 이주노동자 24시간쉼터, 2006년 이주여성 24시간쉼터, 2008년 마하붓다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마하붓다센터는 직장 내 폭력과 임금체불, 인권침해 예방사업과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 한국문화체험 기차여행 등 다방면에서 이주민들을 돕고 있다.

노덕현 기자 · 혜철 충청지사장




꿈을이루는사람들은 4월 26일 제5회 이주민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 연꽃마을 日 선진 노인케어 기술 도입

## 경로원과 업무협약 후 실무협정조인식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이 일본의 선진적인 노인케어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연꽃마을은 2월 24일 일본 사회복지법인 경로원(대표이사 사이토 토시아키)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데 이어, 4월 18일 일본 경로원 법인본부(나가노현 우에다시)에서 실무협정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양국 단체는 분기별로 직원들을 보내 상대 단체 시설에 체류하면서 노인케어연수, 노인문화체험 등의 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연꽃마을 임직원들은 일본 경로원이 설립운영중인 '우에대복지경애학원(개호복지사 양성 전문대학)에 입학해 2년간 일본의 개호기술을 배울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된다.

각현 스님은 "한국보다 훨씬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해 고령사회문제에 적응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일본의 개호보험은 실시 10년을 맞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장기노인요양보험은 시행 10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한일 교류를 더욱 실속 있고 내실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 연꽃마을에서는 각현 스님을 비롯해 이사 수현 · 능인 스님(일산노인종합복지관), 사이토 토시아키 이사장(경로원) 등 총 27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031) 898-1486

이나은 기자




4월 18일 일본 경로원에서 실무협정조인식을 가진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과 사이토 경로원 이사장.

## 다문화가정 잔치

수원 용주사(주지 정호)는 4월 26일 화성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초청, 용주사 효행교육원에서 '다문화 가정 초청 대잔치' 를 개최했다.

'모두가 함께하는 밝은미소 · 밝은마음 · 밝은세상'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다문화가정 150세대가 참여해 점심공양과 레크레이션을 통해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200여 명의 다문화 이웃은 퀴즈와 응집력게임 등에 참여해 서로가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연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용주사는 안양 삼막사(주지 성무)의 후원으로 다문화가정 3팀을 선정해 고향방문 왕복항공권과 소정의 경비를 지원했다.

이나은 기자

# 창작뮤지컬 '하트맨 손오공' 배우되실 분~

##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 · 무용단서 모집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 부설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 · 무용단이 어린이 창작뮤지컬 '하트맨 손오공' 의 배우를 모집한다.

무용단은 20여 년의 어린이, 청소년 전문 예술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단체로 2010년 1월 겨울방학기간 동안 전국 주요도시에서 순회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초등 2학년부터 중등 2학년까지의 남녀어린이로 내성적인 어린이, 예술적 끼가 넘치는 어린이, 무경험자 모두 지원 가능하다.

5월 8일까지 이메일(hhh5812@hanmail.net)로 접수 받으며 오디션은 1차 가창력 테스트, 2차 신체 유연성 및 연기력, 3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02)725-7849

이나은 기자

# 노인 자살문제 해법은?

## 능인복지관 5월 7일 노인생명보듬페스티벌

능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부산)은 저소득 독거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해 5월 7일 노인생명보듬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복지관은 시설내 대식당에서 지역 어르신 200명을 모시고 △노인생명보듬 프로젝트 경과보고 △노인자살예방 캠페인 출정식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공연관람 '우리가락 좋을시고' △부스체험(생명사랑 서약서, 나쁜 추억 날리기, 우울증 검사 등) △뷔페식사 및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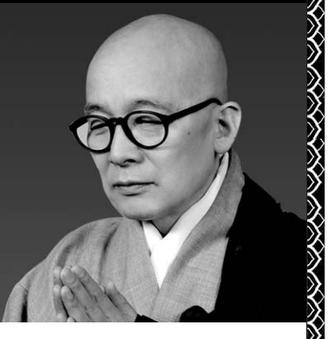
노인생명보듬 프로젝트는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자살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측면에서의 접근 및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지지기반 형성을 통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다. (02)571-2988

이나은 기자

2기 교육생 모집!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음식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다"
한국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전통 건강 관리인!
보건식품처방사란?
식약청이 인정한 식품원재료를 기초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맞추어 처방하는 전문가
교육대상자
- 건강에 관심이 있는 자
- 신 웰빙 건강 전문가 및 식품 영양 학자
- 기능성 건강보조식품 전문 유통업 종사자 및 희망자
- 허브추출 건강보조(기능)식품 연구 및 개발자
- 웰빙 / 건강관련 창업 희망자

| 교육과목 | 교육기간 |
| --- | --- |
| 전자연치유론, 약초기초, 동양의학기초, 식이섭생, 약차처방론, 체질론, 약초관리론, 식품위생보건학, 약용식품영양학, 식재료관리, 임상질병학, 식의처방학, 체질론, 식의학, 식의실습, 중탕론Ⅰ, 약초식품방, 약초법제론, 중국황실약선식의방, 중국약초식품방, 식의내과학, 음양식의학, 식의화학론, 식품발효학, 중탕론Ⅱ, 특별강의 | 12주 과정 주중반, 주말반 (주간/야간) |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빌딩 5층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의 : 02)393-5111 / FAX 02)312-5404 www.kile.or.kr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낙태.유산 무보시 동참 위령재
아가야! 미안하다...
세상몰라 저지른 일~~~ 지금 참회합니다.
10,800원의 행복 (참회와 가벼움)
- 이행사는 10년만에 하는 단 한 번의 특별행사입니다. 꼭 동참 하세요.
당 사찰은 10년간 낙태, 유산된 태아의 슬픈 넋을 위로 하기위해 매년 4회 이상 49재 형식으로 위령제를 봉행 해오던 곳입니다. 2009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생명경시에 대한 경종과 참회의 계기와 낙태유산 경험자의 마음의 무거운 빚을 덜어 드리고저 특별행사를 마련케 되었습니다. 1번의 참회에 100원의 정성으로 108번 참회를 통하여 10,800원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어려우신 분은 무보시도 가능합니다) 이 행사는 그간 금전적인 시간적인 이유로 못한 분을 위해 전폭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자비의 정신, 불살생의 정신, 실천의 정신을 기리며...
벽운사 주지 지산스님

초종교적 위령재 봉행
▶대 상 : 낙태 · 유산 경험자 남녀 종교불문(타종교도 존중합니다)
▶형 식 : 49재 천도의식(우리말 대중형식으로 스님들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준비물 : 1번 참회에 100원 108참회=10800원뿐 / 분유, 배냇저고리, 장난감 등(위령제 후 전국 미혼모 시설 등에 전량 기부)
▶일 정 : 입재_ 2009년 5월 6일 오전 10시 30분, 회향_ 2009년 6월 24일
▶신 청 : 전화 및 내방,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건봉사포교원 벽운사 www.bwjisan.com ☎02)979-0108, 02)971-1544

# 고려불화의 '진미' 맛보세요

## 통도사박물관, '日 가가미진자 수월관음도' 전시


가가미진자 고려 수월관음도.

현존 고려불화 가운데 가장 크고 뛰어나 한국불교 회화의 백미로 꼽히는 일본 가가미진자(鏡神社) 수월관음도가 통도사에서 전시된다.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하)은 최근 4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일본 가가미진자 고려 수월관음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1310년), 419.5cm*252.2cm 크기로 비단 채색으로 제작된 것으로, 현재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사가현 현립박물관에 기탁보관중이다.

한국에서는 1995년 호암갤러리에서 열린 '대 고려국보전' 이후 15년 여 만의 전시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수월관음도 전시기념 공개특강도 마련했다.

국내 고려불화의 최고 권위자인 정우택 교수(동국대)가 '고려 관음보살에 대하여'를 주제로 펼칠 특강은 5월 7일 오후 2시부터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

같은 장소에서 8~9일 통도사 수월관음도 전시를 기념한 제13회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도 열린다.

행사에는 정은우 교수(동아대), 소현숙 교수(원광대), 강희정 교수(서울대) 등 국내 학자를 비롯해 히로노 세이지 박사(동경국립문화재연구소)가 관음보살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통도사성보박물관 기증실과 기획전시실에서는 8월 30일까지 신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통도사의 계단과 장엄의식구'도 열리고 있다. (055)382-1001

조동섭 기자

# "금동사리호서 유리제 사리병 확인"

##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 성과'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 출토 금동사리호에서 유리제사리병이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 이하 연구소)는 4월 23일 미륵사지석탑 출토 금동사리호 개봉 ·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유리질파편이 '유리제사리병'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사리병은 구연부(口緣部)와 뚜껑 외에는 형태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얇고 수십 개의 작은 파편으로 잔존하고 있으며 짙은 갈색을 띠고 있다. 구연부가 가장 두터우며(두께 0.26~0.32㎜, 구경 4㎜) 얇은 파편들의 두께는 0.11~0.12㎜다.

연구소 유재은 학예연구관(복원기술연구실)은 "구조확인을 위한 비파괴분석을 실시한 결과, 파편들은 규소(Si) 등을 주성분으로 하며, 심한 풍 · 수화로 인해 층간 박리가 진행됐음을 확인했다"며 "연구소에서는 향후 사리병을 비롯한 미륵사지석탑 출토 사리장엄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는 물론이고 제작기법 등 과학적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3월 31일 진행된 미륵사지석탑 출토 금동사리호 개봉 · 조사에서는 사리 12과와 금제사리내호 등이 발견된 바 있다.

한편,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소장 최완규)와 백제학회(회장 양기석)는 4월 24~25일 전북도청에서 '대발견 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 이송란 박사(문화재청)는 사리장엄구 중 금동제 사리외호 제작 방법에 대해 "목 둘레 융기선이나 몸체 부분의 2줄 음각선 등은 녹로를 이용해 표면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조동섭 · 김진성 기자

천고에 자취 감춘 학

# 깊고 높은 정신을 말하다

## 월정사, '한암사상과 조계종…' 세미나 5월 7일 개최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하며 근세 제도불교를 확립한 한암 선사(1876~1951).

서울 봉은사 조실을 지내던 1925년, 선사는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삼춘(三春)의 말 잘 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오대산으로 들어갔다.

27년간 바깥 출입 없이 정진했던 한암 선사를 두고 일본의 사토 스님은 "일본에서도 볼 수 없는 도인이요, 세계에서 둘도 없는 인물"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한암 선사는 한국전쟁 당시 법당을 불태우려는 국군을 막아서 상원사 법당을 지키는 등 출가자의 올곧은 기개를 펼친 근현대의 선지식이다. 하지만 그 수행력과 기개에도 불구하고 선사는 스승의 간화선'에서 한암 선사 선문답의 백미인 '선문답 21조'를 통해 선사의 선사상을 고찰했다.

'선문답 21조'는 한 수좌가 물은 21가지에 대해 한암 선사가 즉각즉각 답변해 기록한 것이다.

스님은 "'선문답 21조'는 전 ·


한암 선사 진영.

승가오칙과 조계종의 신행'을 통해 오대산 가풍인 '승가오칙'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했다.

승가오칙은 한암 선사가 "모름지기 수행자란 참선, 염불, 간경, 의식, 가람수호 등 5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이중 한 가지는 꼭 해야 한다"고 원칙을 세운 것이다.

신 교수는 "한암 선사가 승가오칙에서 간화선 이외의 폭 넓은 소양을 요구했지만 그 근간은 간화선이었다"며 "현재 조계종이 선종을 표어처럼 외치면서 출가자들의 의식, 간경, 염불은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탁 교수는 "불교계의 기득권을 장악한 조계종이 한암 선사의 승가오칙 등을 표본 삼아 새 시대를 향도하는 불교수행 가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경 스님(동방불교대학원대학).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김광식 부천대 교수.


김호성 동국대 교수.


신규탁 연세대 교수.

경허 선사나 도반 만공 스님과는 달리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참선, 염불, 간경, 의식, 가람수호 등 승가오칙을 통해 출가자를 경책했던 한암 선사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월정사(주지 정념)는 5월 7일 오후 1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암사상과 조계종의 정체성'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인경 스님(동방불교대학원대학) 신규탁 교수(연세대) 김광식 교수(부천대) 김호성 교수(동국대) 윤창화 대표(민족사) 등이 발표한다.

인경 스님은 주제발표 '한암선사의 간화선 연구'에서 한암 선사 선문답의 백미인 '선문답 21조'를 통해 선사의 선사상을 고찰했다.

'선문답 21조'는 한 수좌가 물은 21가지에 대해 한암 선사가 즉각즉각 답변해 기록한 것이다.

스님은 "'선문답 21조'는 전후편으로 나뉘어져 전편은 일반인을 위한 안내서, 후편은 조사로서의 본래면목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오'와 '증득'을 구별하고 '보임'의 과정을 설정하는 등 대혜나 몽산과 같은 돈오점수의 계통을 잇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경 스님은 "<기신론>의 생멸심과 진여심이라는 마음의 이해방식을 채택함은 물론, 화두의 참구과정을 공적(空寂)과 영지(靈知)라는 관점에서 해명한 점, 반조와 간화를 상호보완 관계로 설명한 점 등은 한암 선사가 보조, 나옹으로 이어진 한국 간화선 전통의 충실한 계승자임을 밝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신규탁 교수는 '한암 선사의 종조관 도의국사'에서 "도의 국사를 종조로 내세우면서 수좌중심적, 선종 중심적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강했다"며 "최초로 도의 국사를 조계종 종조로 주장한 한암의 종조관을 유의한다면 부정성은 재고의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 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념 스님은 "오늘날 불교계가 시대적 혼란을 겪고 있는 때 조계종 초대 종정인 한암 선사의 수행가풍을 재조명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일 것"이라며 "종풍을 바로 세워 불교가 사회의 밝은 등불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제천 점말동굴 '아기부처님' 공개

## 충북문화재연, '새로운 탄생' 의미 조명

제천 점말동굴(충북기념물 제116호)은 구석기 시대 화석이 대량 출토됐던 유적이다. 1979년 발굴 당시 발견된 석조탄생불이 30년 만에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4월 28일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봄'에서 '화랑의 장 점말동굴, 그 새로운 탄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김춘실 교수(충북대)는 주제발표 '제천 점말동굴 광장 출토 석조탄생불의 고찰'에서 석조탄생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점말동굴 석조탄생불은 전체높이 17.3cm, 하부 폭 9.4cm, 상 높이 11.2cm, 대좌의 앞뒤 폭 6.8cm 크기다. 발굴 당시 대좌 부분이 깨진 상태로 발견됐으나 현재는 접착 복원됐다.

김 교수는 "불상은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전기에 조성됐을 것"이라며 "이는 점말동굴유적이 구석기시대 뿐 아니라 역사시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통일신라시대 말이나 고려시대 전반에는 사찰이 들어서기도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춘실 교수는 "광배와 연화대좌의 폭이 넓어서 예배상으로서의 안정된 형태를 보이고, 전체적으로 신체의 양감이 부드럽고 대좌 등의 조각수법이 뛰어나 일반적인 금동불상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며 "점말동물 석조탄생불은 일반적인 금동탄생불상에 비해 매우 정교하고 독창적인 표현양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 영동 영국사 극락전 연내 복원

## 영동군, 5억 예산 계획, 기공식 가져

신라시대 고찰 영동군 영국사(주지 청원) 극락전이 복원된다.

충북 영동군(군수 정구복)은 4월 30일 '영국사 극락전 기공식'을 봉행했다. 행사에서 영동군은 올해 말까지 5억원을 들여 영국사(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대웅전 뒤 공터에 196.3㎡ 규모의 극락전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영동군은 영국사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에 나서 대웅전 뒤 공터에서 극락전과 지장전 등 불전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터를 발굴한 바 있다.

영국사는 신라 문무왕 8년 원각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령 1000년을 넘긴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223호)와 원각국사비(보물 제534호), 부도(보물 제532호), 3층석탑(보물 제533호), 망탑봉 3층탑(보물 제535호) 등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이번 극락전 복원을 계기로 이후 지장전 등 사라진 불전을 복원하면 1000년 전 위엄 있는 사찰 모습을 어느 정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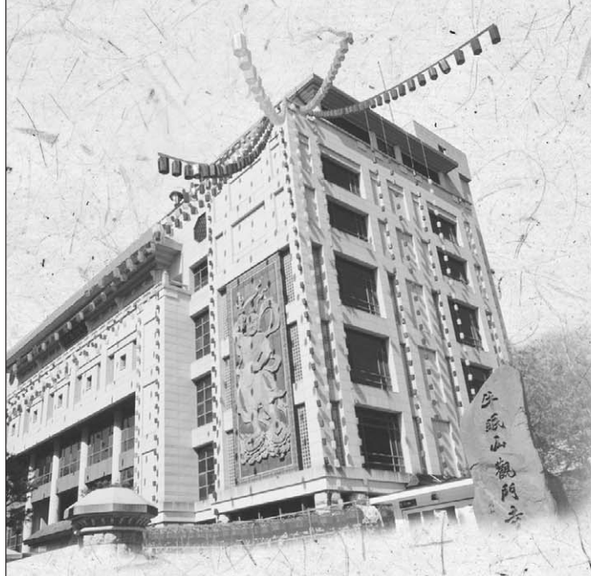
# 경주 남산 염불사지석탑 복원

경주 남산 염불사지석탑이 복원됐다.

경주시(시장 백상승)는 5월 4일 염불사지에서 '염불사지 동 · 서 삼층석탑 복원 준공식 및 사리법신 봉안식'을 봉행했다.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스리랑카 불교부장관 및 문화재위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번 봉안식에서는 사리 2과와 불상 및 불화, 불경 등을 복원된 염불사지 동 · 서탑 삼층탑신에 봉안했다.

김진성 기자

"부처님과 함께 희망과 용기를"
대한불교 천태종
서울 관문사
주지 김영제
총무 김진철
재무 유대명
노전 윤덕준
신도회장 이금복
고문 권영철 권무원 배두출 백영기 송대현
부회장 김옥동 강숙일 총무위원 최재구
교무위원 윤을식 재무위원 이상원 김연옥 최현
조직위원,서양원 기획위원 오덕근
홍보위원 신면관 섭외위원 김진흡
부녀위원 이상임 사업위원 김광자
지도위원 정유성 정기수 신선숙 최선화 방경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전화(02)3460-5300 팩스(02)3460-5200 www.gwanmunsa.co.kr

제18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본 재단은 불교문화 부흥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역경과 예술분야에 공로가 크신 분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중앙승가대학 학인스님과 불자 고등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공익 재단으로 아래와 같이 제18회 행원문화상을 시상코자 하오니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 | 시 상 내 용 | 인원 | 상금 |
|---|---|---|---|
| 역경상 | 대장경을 비롯해 중요한 불교문헌을 현대어로 번역 하신 분 | 1명 | 각 500만원 |
| 예술상 | 1.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분야에서 업적을 이루신 분 (서화 부문 제외)<br>2.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 하신 분 | 1명 | |

2. 시상일
2009년 9월 24일 목요일
3. 후보자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본인신청 또는 추천서(소정양식) ····· 1부
이력서(명함판사진 2매) ····· 1부
공적서 및 증빙자료(최근 2년 이내 실적물) ····· 1부
4. 접수처 및 접수 방법
①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종합상가 10동 401호 재단 사무국 (우 137-877)
② 접수 마감 : 2009년 6월 30일
③ 접수 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5. 수상자 발표
2009년 8월 중순 / 개별 통지 및 불교계 언론매체 발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 ☎ 02)586-6521~2, fax 02)521-994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團法人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

## 일주문



### 파라미타 청소년 사경공모 접수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장 도후 스님은 5월 20일까지 제12회 전국청소년 사경 공모전 참가자를 접수받는다.(02)723-6165



### 법화정사 부처님사리 친견법회

서울 법화정사 회주 도림 스님은 4월 20일~6월 13일 '중생구원 세상구제를 위한 부처님사리 친견기도법회'를 봉행한다. (02)928-1331



### 봉은사 전통등전시회 개최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5월 5일까지 제12회 전통등전시회를 개최했다.



### 나눔의 집 제3회 한일평화콘서트

위안부 복지시설 나눔의집 원장 원행 스님(금산사 주지)은 5월 3일 광주 시설 내에서 한 · 일가수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한일평화콘서트'를 성료했다.



### 대경 리더십 아카데미 특강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4월 28일 대경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般若(반야)의 삶-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지름길'이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 대성사 가톨릭과 합동 봉축법회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5월 2일 옥천사 대웅전에서 봉축법회를 열고 옥천성당 신순근 주임신부를 초청해 축하행사를 가졌다.



### 붓다패밀리 공동체 건립

개원사 진호 스님(원융종 총무부장)은 5월 11일 괴산군 문광면 부지에 '붓다패밀리 좋은인연' 공동체 건립 기공식을 갖는다.



### 궁플란트 무료진료 실시

궁플란트 치과 최우환 원장은 4월 2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02)722-2870



### '연이낭자 천연염색전' 개최

김길환 작가는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서울 법련사 내 불일미술관에서 '연이낭자 천연염색전'을 열었다. (054)841-6569

**화촉** 법보신문사 정하중 기자는 5월 16일(토요일)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한남2동 남산예술원에서 신부 김윤미씨(前 만불신문 기자)와 화촉을 밝힌다. (010)6742-2151

# "한국 불자들 자비불사 양국 형제애 효시"

## 미얀마 국민의 감사 담은 야신 스님의 편지 '화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난해 5월 사이클론 피해를 입었던 미얀마에서 한국불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한통의 편지가 전달됐다.

미얀마 야신 나네이사라 스님(시타구 불교협회 대표)은 4월 24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에 편지를 보내 "조계종 보시금이 마을 초등학교와 시골 고등학교 등 건축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야신 스님은 미얀마 국민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고승으로, 부정부패 등 각종 문제로 구호단체의 접근조차 차단하고 있는 미얀마 군정을 대신해 조계종과 함께 현지 구호에 나서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는 미얀마 사이클론 재난 즉시 전국적인 모금 · 모연운동을 벌여 11월 구호식량 쌀 3500가마를 피해지역인 이라와디에 배포한 바 있다.

이에대해 스님은 "이번 자비불사는 한국과 미얀마 두 불교국가간 형제애의 효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얀마 이라와디 재해지역의 구호 등에 사용되고 있는 11만불 가량의 조계종 보시금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밝혔다.

사회부는 "양곤 인근 주민들이 서로 나서 품앗이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처님오신날 다음날인 5월 3일은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미얀마 14만명의 사망자와 200만 명의 이재민들 발생시킨지 1주년 되는 날로, 아직까지 이라와디, 양곤, 바고, 몬, 카인 등 5개주에서는 이재민 50만 명이 우기를 앞두고도 천막생활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야신 스님이 보낸 편지 전문.

지금 우리의 이름은 '대승'과 '소승'으로 각기 다르지만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같은 교주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재활과 격려를 위해 같은 명제를 갖고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명제의 이름은 '자비'입니다. 저희 시타구 국제불교협회는 새로운 사찰과 탑 불사는 물론이고 많은 병원과 학교의 재건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비 불사에 있어 조계종의 보시금은 마을 초등학교와 시골지역 고등학교 등의 건축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이 한국과 미얀마라는 두 불교국가간의 장기적인 형제애와 상호 이해 촉진의 효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얀마 이라와디 재해지역의 구호 등에 사용되고 있는 11만불 가량의 조계종 보시금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덕현 기자**

# "해외유출 문화재 찾기 큰 힘"

## 서울시문화재찾기시민위 홍윤식 위원장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이 문화재 반환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해외유출 문화재 제자리찾기 운동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17일 서울특별시문화재찾기시민위원회(이하 문화재찾기시민위) 위원장에 위촉된 동국대 홍윤식 명예교수(일본규슈대학 특임교수)는 이와 같은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문화재찾기시민위는 서울시가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를 통해 국민들의 문화재 애호의식을 고양하고, 해외 유출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홍윤식 명예교수를 비롯한 학계 · 종교계 · 언론계 인사와 서울시의원, 법조인 등 34명의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 특히 불교계에서는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것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범 스님(옥천암 주지),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봉선사), 박경희 이사(불교인재원), 정웅정 · 이상근 중앙신도회 문화재환수위원 등이 대거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2년간 활동(연임가능)하며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활동 지원 및 실태 파악, 자료구축, 법률 자문 등을 맡게 된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문도 겸하게 된다.

홍윤식 명예교수는 "문화재찾기 시민위는 해외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5월 12일 진행되는 첫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분과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장애 편견 없애기 노력할 터"

## 종광 스님 대통령표창 수상



"장애 · 비장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종광 스님(기림사 주지)이 4월 20일 제29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보건가족복지부(장관 전재희)가 시행한 유공자포상 대통령표창을 수상해 소감을 밝혔다.

이번 포상은 장애와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종광 스님은 1994년부터 15년간 △어려운 세대 후원 △초등학교 정기 장학금 지원 △지역주민 한문교실 후원 △청소년 정보교류활동 후원 △다민족 다문화체험활동 후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했다.

스님은 "육체가 건강해도 정신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듯이 어느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나 스스로부터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싶었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힘쓸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2003년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취임 후 시설개보수 및 환경정비와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에 주력해 경북장애인복지관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054)776-7522

**이나은 기자**

## 인천불교총련, 봉축 지도자법회 봉행



인천불교총연합회(회장 대은)는 4월 22일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봉축 지도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지역스님, 정세균 민주당 대표, 안상수 인천시장 등 500여 명은 '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김성우 기자**

## 세계대장경위원회 동대에 빨리어삼장 기증



세계대장경위원회(위원장 아놉) 등 태국대표단은 4월 23일 동국대를 방문해 빨리어삼장을 로마자로 옮긴 〈세계대장경〉(World Tipitaka) 40권을 기증했다. 이날 기증된 대장경은 동국대 중앙도서관 귀중본 서고에 보관됐다. **조동섭 기자**

## 안양경찰서 한마음선원 혜원 스님에 감사장



안양경찰서 경승위원회(위원장 현호)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4월 30일 안양경찰서에서 봉행했다. 우희주 경찰서장은 경찰포교 활동에 기여한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을 비롯한 7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 부천남부서 봉축법요식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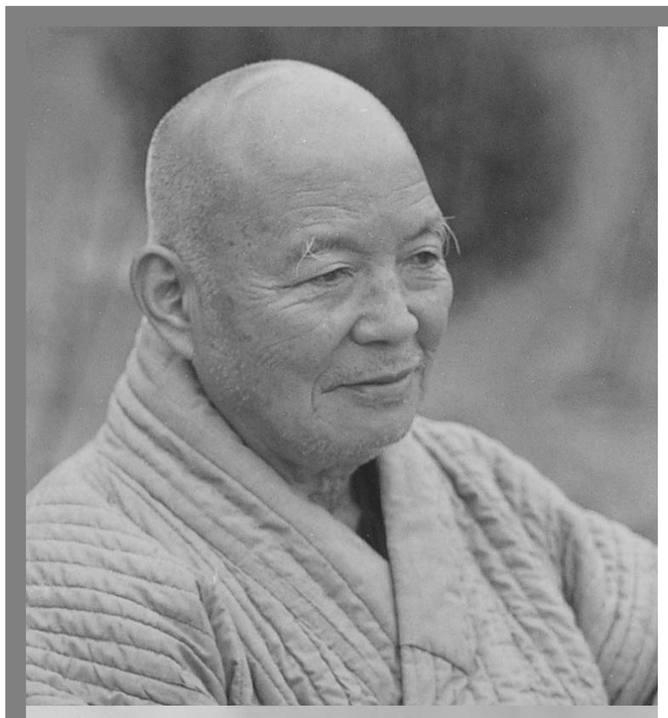


부천남부서 경승위원회(위원장 성인)은 4월 29일 서내 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성인 스님(대덕사 주지) 외 경승위원 스님들과 최경식 경찰서장, 항림사 신도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우 기자**

## 관음사 동자승 백의관음보살 소제의식



한국불교대학 관음사 스님들은 4월 25일 참좋은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으로 구성된 봉축 동자승 14명과 함께 대웅전 백의관세음보살 법체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닦는 의식을 봉행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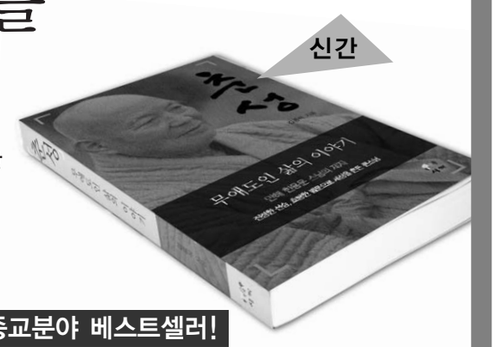



춘성(1891~1977)은 근 · 현대불교 격랑의 중심지에서 승려로 그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자유인이었다. 그리고 한용운의 상좌로, 백용성과 함께 『화엄경』사상을 전하였던 화엄법사로, 덕숭산 끝자락에서 장좌불와하였던 수행자로, 시대의 선승 만공회상에서 참선 수행을 하였던 간화선 수행자로, 도봉산 망월사에서 수좌들을 지도하였던 어른으로, 저자거리에서 부처님 말씀을 원색의 언어로 전하였던 스님으로, 수많은 보살들을 부처님 세상으로 이끌었던 큰스님이었다.
춘성 스님은 걸망에 죽비 하나, 빼놓은 틀니 하나, 주민등록증, 그리고 빤스 하나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 무소유의 실천자 였다.

"목에 총을 들이대고, 선지식 한 명을
고르라면 **춘성스님**을 꼽겠습니다"

-무비 스님 | 전 조계종 교육원장

춘성 -무애도인 삶의 이야기




교보문고 종교분야 베스트셀러!

김광식 지음 | 446쪽 | 값 15,000원

**만해 한용운의 제자**
**진정한 선승, 호탕한 법문으로 세상을 흔든 큰스님**

"갈 때도 無! 올 때도 無! 항상 無 하세요" 조선일보
무애 선승 춘성 '거침없는 무소유' 한겨레신문
"나, 중(僧)대장 이다" 경향신문
"걸출하고 막힘없던 춘성 스님, 신라 때 태어났다면 딱 원효" 문화일보
"내 본적은 살았다 죽었다 하는 XX야" 오마이뉴스
"대자유인 춘성 스님, 역사가 되다" 불교신문
"격외 언어로 禪心 일깨운 참 스승" 법보신문
"불교와 승려 본연의 자세를 찾아서" 강원일보

- 그 어른이 살았던 행적은 결코 지워버릴 수 없어. 꺼지지 않는 불길이지. 우송 스님 | 덕숭총림 수덕사 유나
- 춘성 스님은 가장 활달하고, 가진 것이 없었고, 오직 스님일 뿐이었어요. 혜광 스님 | 춘천 심우정사 주지
- 이 의자는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다 받아 주고 또 안아 준다. 그러면서 말도 없고 불만도 없지만, 무자(無字)로 돌아간다고 하셨지요. 수명 스님 | 용인 서광사 주지
- 춘성 스님은 불교를 실천한 양반이에요. 수좌들을 좋아 하시고, 당신의 권속을 두지 않으려 하고, 워낙 탈속하니깐 수좌들의 귀감이 되지. 대선 스님 | 전북 완주 요덕사 주지
- "이놈들아 목침 하나 갖고 자다가, 거기서 굴러 떨어지면 바로 일어나서 정진을 해야지, 잠을 자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놈들아! 이 도둑놈아! 밥도둑 놈아!"라고 하셨어요. 수경 스님 | 화계사 주지
- 공부를 철저히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돈에 욕심이 없는, 아무것도 소유치 않는 것은 지금 스님들이 배워야 합니다. 진관 스님 | 진관사 회주
- 춘성 선사 // 만해 용운이 감옥에 갇혀 계실 때 / 만해의 독립이유서를 / 몰래 받아내어 / 상해 임시정부 기관지에 / 보내었다 // …… 고은 | 시인, 『만인보』 25권(창비) 「춘성, 중에서
- 춘성 스님이란 분은 신체도 걸출하고, 마음 씀씀이도 그렇고, 선의 공부 어디에 걸림이 없었어. 목정배 | 동국대 명예교수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무우수새싹

경찰청불교회·서울지방경찰청불교회 봉축법회

# "불심으로 민중의 지팡이 되렵니다"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헌향을 하고 있다.

반듯한 제복을 입은 300여 경찰들이 합장을 하고 목탁소리에 맞춰 반야심경을 독송한다. 데모하는 군중들을 제압하는 모습, 민중의 지팡이가 돼 도둑을 잡는 모습, 살인자를 취조하는 모습 등 그간 뉴스를 통해서 봤던 경찰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경찰은 제복을 말끔하게 차려 입고 합장을 했고, 서울 경찰악대는 씩씩한 행진곡 대신 삼귀의, 보현행원, 청법가를 웅장하게 연주했다.

경례 대신 합장을 하고 선 경찰의 모습은 마치 가람을 수호하는 사천왕들이 합장을 한 모습처럼 보인다.

경찰청불교회와 서울지방경찰청불교회가 각각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법회를 열고 불교계와 경찰 간의 불편했던 관계회복에 앞장섰다. 지난해 어청수 前 경찰청장의 종교편향 발언으로 불교계와 불편했던 관계가 2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법회로 새 전기를 맞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강희락 경찰청장이 관욕식에 앞서 합장 반배의 예를 올리고 있다.

## "국민과 경찰은 서로를 위한 삶을 살라"
## 전국 경찰청서 봉축법회 잇따라 열려

경찰청불교회(회장 박재진)는 4월 23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위한 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대한불교경승단 총재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단장 혜총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강희락 경찰청장, 경찰청 경승실장 계성 스님(조계종 포교부장), 서울지방청 경승실장 세민 스님(조계사 주지)이 강당에 입장하면서 시작됐다. 법회에 참석한 400여 경찰들은 목탁소리에 맞춰 여법하게 법회를 진행했다.

지관 스님은 법어에서 "경찰은 국민을 위해 큰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사건·사고를 책임, 관리, 방지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신(身)·구(口)·의(意) 삼업을 스스로 조심하면서 주관과 주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곧 경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경찰은 서로가 지혜를 배우고 자비를 베풀며 서로를 위한 삶을 살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독실한 불자로 경찰계에서도 소문이 난 강희락 경찰청장은 인사말을 시작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생애를 자연스럽게 설명했다. 이어 "부처님오신날이면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의 참다운 뜻을 되새기며 세상과 인생을 바로 보게 된다"며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목표로 국민에게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는 경찰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찰과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은 정견(正見)의 부족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불법으로 무명의 등을 밝혀 국민들이 각종 범죄와 사고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 있도록 해 신뢰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포교원과 경찰청 불자회는 이번 법회를 계기로 관계회복과 함께 그동안 지하에 있던 법당의 지상화를 추진하고, 경찰 포교의 핵심사업인 경찰청 예규개정 및 경승지단장회의, 경승총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불교회의 법회에 이어 4월 29일 서울지방경찰청불교회(회장 임동호)도 부처님오신날 기념 '나라와 국민을 위한 대법회'를 봉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 관문사 주지 영제 스님, 서울지방경찰청불교회 회원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정산 스님은 봉축사에서 "스스로가 우주의 주인공인 부처로 평등한 마음, 자비의 마음, 공경의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야 할 것"이라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원대법회'가 국가발전과 국민안정으로 원만히 회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경찰의 실수로 불교계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최근 경찰청 법회가 전국적으로 봉행되는데 힘써주시는 여러 스님과 불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경찰 직무의 기본인 봉사는 자비의 작은 한 부분으로 많은 경찰관들이 '자비'의 마음을 갖는데는 불교적 마인드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국 15만 경찰들이 더 많은 종교생활과 불교를 접하도록 하기 위해 경찰서의 경승 충원과 경승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 밖에도 정기 직장교육에서 종교인 초청강의, 서울시민을 위한 열린 경찰청 만들기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불교회 법회는 전국 곳곳에서 봉행됐다. 4월 19일 전북지방경찰청불교회를 시작으로 21일 충남지방경찰청불교회와 부산경찰청경승실, 인천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이 봉축법회를 열었다. 23일에는 제주지방경찰청, 28일 경남지방경찰청, 29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국민과 경찰을 위한 법회가 개최됐다.

전국에서 봉행된 경찰 불자들의 법회는 경찰을 위한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경찰의 수고를 격려하고 국민의 지팡이로 거듭날 것을 기원하는 법회였다. 경찰 불자들의 이번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계기로 경승단 활성화와 경찰포교의 재도약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높다.

글=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종로지역 의경들이 4월 23일 열린 봉축법회에서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김호철, 서현숙(왼쪽) 경찰청불교회원이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4월 29일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는 부처님오신날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왼쪽이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법회에는 300여 사부대중이 함께 했다.

"불교박람회 출품 기념 대축제"
금강선원 산상차 야생수제 구증구포 뽕잎차
"첫서리 맞은 뽕잎차!!! 녹차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당뇨·고혈압·혈액순환
2009 스포츠서울이 선정한 전통차부분 베스트 브랜드 수상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합천댐에서 가까운 천연 무공해의 지역 유잠산 자락에 뽕잎의 효능이 최고로 달한 첫서리 맞은 뽕잎을 체취하여 스님께서 직접 구증구포의 전통제다법으로 참선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차입니다.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에 보면 뽕나무는 뽕나무의 이끼, 기생하는 벌레까지 모두 약제로 쓰이는 실로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신이 내린 보약나무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서리 맞은 뽕잎은 신선엽이라고도 하며 오래도록 다려마시면 신선이 된다고 하여 더욱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첫서리 맞은 뽕잎으로 만든 차는 겨울의 문턱에서 땅속과 우주의 기운을 전해주는 생명을 담은 뽕잎차로 스님이 단연간 연구하여 재현한 차입니다.
뽕잎차 만드는 과정
금강선원 뽕잎 / 뽕잎 채취 / 뽕잎 건조
뽕잎차의 효능
1. 당뇨,고혈압에 도움 2.혈액순환으로 동맥경화에 도움
3.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중풍, 치매
4.변비, 이뇨작용, 손발이차고 저린데
5.잠 잘 때 식은땀, 몸의 붓기 제거
인터넷 체험 후기
· 당뇨에 뽕잎차가 최고! – 부산 중구 안미선
· 많은 차를 마셨지만 맛과 향에 탄복한 것은 처음 – 대구 북구 석현도
· 깔끔하고 깊고 그윽한 향에 다른 차를 못마시게 할 정도 – 울산 북구 이용희
· 속이 편안하고 정신이 맑아지고 이뇨작용에 좋음 – 경북 안동 김정일
·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아 첫서리 맞은 뽕잎차를 마시며 몸이 가벼워지고 나쁜기운이 해소 – 경기도 용인 박영철
제품 설명
· 초심(初心) – 맛과 향이 부드러워 누구든지 편안하게 차 맛을 즐길 수 있는 차
· 발심(發心) – 첫서리를 맞은 뽕잎으로 만들어서 깊은 맛이 있으며 효능이 있어 몸에 매우 좋은 차
언론에서 맛과 효능 격찬!!!
· 뉴스포커스 소개 / · 더데일리 뉴스 소개 / · 시사매거진 소개
· 현대불교신문 "초우스님의 뽕잎차이야기" 연재 · 뉴스메이커 대상수상
· 2009년 스포츠서울이 선정한 전통차부분 베스트브랜드 수상
불교박람회 출품 기념 할인행사
초심(구증구포뽕잎차) 50,000원 → 35,000원
발심(첫서리맞은뽕잎차) 70,000원 → 50,000원
2통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해드립니다
뽕잎차의 수익금은 전액 금강선원 대웅전불사에 쓰여집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참선마을 금강선원
TEL 055)931-9590 / 농협 843162-55-000050 (예금주:금강선원)
http://www.ggzen.or.kr
NAVER 산상차 검색 을 검색하세요.

# 동자승 '실종아동돕기' 나서

## 내원정사 '자비의 탁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단기출가한 동자승들이 실종아동을 돕는 자비의 탁발에 나섰다.

내원정사(주지 정련) 유치원생 중 단기출가에 참여한 동자승 15명은 4월 28일 오후 4시부터 남포동 국제시장 일원에서 '실종아동 찾기 기금 마련을 위한 자비의 탁발'에 참가했다.

동자승들과 유치원 여자 어린이들이 각각 목탁 및 발우, 모금함을 들고 국제시장 일대 상가를 1시간여 동안 돌며 모금했다. 더불어 실종 아동의 사진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는 등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캠페인도 함께 벌였다.

이번 자비의 탁발 행사에는 동자승 15명 외에도 주지 정련 스님과 유치원 교사 등 약 100여 명이 참가했다.

박지원 기자



내원정사 동자승 15명이 4월 28일 '실종아동찾기 기금 마련을 위한 자비의 탁발'을 했다.

# "하루 속히 퇴원하게 하소서"

## 죽림선원 동의의료원서 음악회

죽림선원(주지 각원)은 4월 26일 오전 10시 동의의료원 7층 대강당에서 봉축법요식을 갖고,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음악회를 봉행했다.

1부 법요식은 환우들의 헌화 및 헌향, 각원 스님의 봉축법어, 환우들의 쾌유를 비는 발원문 낭독, 관불의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마련된 음악회는 에어로빅팀, 국악공연단, 인기 연예인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는 등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도 이날만큼은 가슴에 꽃을 꽂고, 부처님 말씀과 음성공양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각원 스님은 "우리 환자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충만하시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고, 늘 기쁜 일이 함께 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지원 기자

# 김유성·정이현 선수 장학금

## 체육인불자련 부산지회 장학금 수여식

대한불교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 부산지회(회장 노봉호)는 4월 25일 영광도서 4층 사랑방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청소년 유망주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선정된 장학생은 제90회 전국동계 체육대회 중 스키부문 2등 김유성(안락중1) 선수와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테니스 2등 정이현(동래중3) 선수 등 총 2명이다.

노봉호 지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배우고 실천하는 불자체육인으로서 탁월한 기량을 지니고 있어 국가 체육발전에 이바지할 장래가 촉망된다"고 격려했다.

한편 체육인불자연합회는 2007년 10월 창립한 이래, 불자체육인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 지원함으로 경기력 향상과 목표달성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행진등 경연대회 최우수 사찰로 선정된 한마음선원의 행진등.

# 부처님과 함께 축제를…

## 부산 연등축제 "시민의 축제로 승화시켰다" 호평

2009 부산연등축제가 4월 24~26일 3일간 부산 구덕종합운동장, 부산역 광장, 광복동 일원에서 성대하게 열려 봉축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부산'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연등축제는 17일 부산역 광장에서 봉축상징물 점등식을 시작으로 24~25일 양일간 광복로 일원에 봉축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다양한 불교문화 콘텐츠를 만나는 열린 장이었다. 민속놀이, 전통 등 만들기, 연등사진전, 전통 차 나누기, 제2회 B-Boy 경연대회, 불무도 시연 등 어렵게만 느껴지던 불교문화를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다.

26일 오전 11시부터 구덕종합운동장에서 부산연등축제를 본격 개막하고, 어울림 한마당, 봉축연합대법회, 제등행진, 대동화합한마당 등 수 만 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야단법석이 펼쳐졌다.

1부 연꽃문화제는 (사)동련이 주관해, 어린이 장기자랑 및 백일장 등을 열고 부산연등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오후 1시부터는 구덕종합운동장 내 육상트랙에서는 비구니스님 화엄회의 승 · 재가 체육대회가 열리고, 잔디구장에서는 전법도량의 108배 정진기도가 동시에 진행됐다. 오후 2시에는 등 경연대회의 각 그룹별 퍼레이드 및 시상식이 이어졌다.

올해의 행진등 경연대회 최우수 사찰은 한마음선원이 선정됐다. 이어진 연등축제 축하공연에는 인기가수 장윤정, 박현빈 등이 출연해 축제의 열기는 한층 무르익었다.

오후 5시 봉축연합대법회는 육법공양, 범어사 학인스님의 저녁예불, 발원문 낭독 및 대회사, 봉행사, 법어, 축사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법회가 끝난 후 연등축제의 백미인 제등행진이 부산역 광장까지 이어졌다. 각종 장엄물과 1만여 명이 동참해 연등의 물결을 이뤘다. 부산역 광장에 모든 제등행렬이 집결한 후 대동화합한마당을 끝으로 화려한 막을 내렸다.

한편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만큼 예년에 비해 규모와 내용면에서 큰 변화 · 발전을 보였다. 먼저 '봉축 문화의 거리'에서는 젊은 세대에 낯선 불교를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소개해 친숙하게 접근했다. '등 경연대회'는 기존 장엄물을 보유한 대규모 사찰 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찰 및 단체도 제등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층 진화한 형태의 다양한 등을 선보였다. 또한 제등행진의 회향으로 '대동화합한마당'을 신설해 참여사찰과 불자들만의 축제가 아닌 부산시민 모두의 축제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부산구덕벌이 연등으로 뒤덮였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범어사 장엄물(왼쪽), 봉축대법회 동자승(왼위), 관욕을 하는 정여 스님(위), 대동한마당(아래), 제등행진(왼아래).

# "다문화가정 어린이 교육 등 상호협력"

## 동명불원 · 아시아공동체학교 · 못골성당 자매결연

동명불원(주지 정산)은 아시아공동체학교(이사장 하일민) 및 못골성당(주임신부 조요셉)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다문화가정과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4월 25일 오전 11시 30분 동명불원 대웅전에서는 아시아공동체학교 하일민 이사장 및 학생과 학부모, 못골성당 조요셉 주임신부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명불원과 아시아공동체학교, 못골성당의 조인식이 열렸다.

이들 세 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복지향상과 문화를 통한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역 문화의 살림과 상생, 평화의 길을 상호 도모할 것을 협약했다.

정산 스님은 "동명불원의 법당 부처님은 우리에게 친숙한 중국식, 단상은 일본식, 외부 양식은 남방식 등으로 절 곳곳에는 창건주 故 강석진 회장이 염원했던 세계 불교문화가 공존하는 사찰에의 바람이 깃들어 있다"며 "고인의 뜻을 기려 아시아 공동체학교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단순히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나아가 법회를 열고, 그 속에서 다양한 사회활동과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하일민 이사장은 "동명불원과 못골성당의 도움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사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시킬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감사를 전했다. 박지원 기자



동명불원이 4월 25일 아시아공동체학교 · 못골성당과 자매결연 협약을 했다.

# 장기기증 활성화하려면?

## 생명나눔부산 '장기기증 활성화' 심포지엄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부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4월 27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장기기증자 및 등록자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주제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주제발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사랑의장기기증운동 강치영 부울경지역본부장이 20분간 발표했다. 이어 신익철 변호사가 '민간단체 입장에서의 장기기증활성화 방안'을, 부산일보 김병군 기자가 '장기기증자 예우에 대한 외국사례'를, 동아대병원 윤진한 교수가 '국내 장기이식 실태'를, 김기천 보건위생과장이 '장기기증 정책소개' 등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장기기증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 필요성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박지원 기자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 자동차용호신불

##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화재의 염주

# 천연백수정108 염주

## 승리의 염주, 행운의 염주, 불멸의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특별선물 : 단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 전주 한지 연꽃으로 피다

## 참좋은우리절 전통등 만들기 대회 '눈길'



참좋은우리절이 '천년 전주한지 전통등 만들기 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모습.

전주 '참좋은 우리절'(주지 회일)은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민과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인 전주 한지의 우수성과 실용성을 알리고 전주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천년 전주한지 전통등 만들기 대회'를 개최했다.

5월 2일 참좋은우리절 신행연합회와 전주한지포럼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대회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장애우와 다문화 가족부문을 신설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수의 등 한지의류, 한지소품을 전시하는 한지상품 전시전과 한지의상 입어보기, 투호놀이, 떡메치기등의 전통 민속놀이체험, 연꽃만들기, 한지탁본,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삼보일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푸른 마음 시심에 담아

## 군산 흥천사 월명공원서 중·고생 백일장

군산 흥천사(회주 지환 · 주지 법희)는 4월 18일 '제1회 월명공원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고, 5월 2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앞서 수상 학생들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군산의 자랑인 월명공원의 아름다움을 통해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는 군산시 재학중 ·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군산시 관내 중 · 고교 30개교 약 350여 학생들이 운문부와 산문부로 나뉘어 '연등' '부처님오신날' '탑'



4월 18일 제1회 월명공원 백일장 대회에서 참가학생들이 글을 짓고 있다.

'산사로 가는 길' '별' '바람' 등의 시제로 글 솜씨를 겨루었다.

흥천사 회주 지환 스님은 "금번 처음 실시된 백일장 대회를 계기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장기를 마음껏 자랑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 군산시 중 · 고생들의 멋진 글 솜씨를 발굴할 수 있는 의미있는 대회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운문부 장원에 최보람(대성중1)양의 '별'과 황미지(군산여고2)양의 '탑'이 산문부 장원에는 강누리(진포중3)양의 '부처님오신날-눈물 한컵, 미소 한바구니', 조연우(중앙여고1)양의 '산사로 가는길-산사예찬'이 차지했다. 고등부 장원에는 각 50만원, 중등부 장원에는 3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고 다른 수상자들에게도 장학금이 차등 지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송광사 보조국사 종재 · 수계법회 봉행

승보종찰 송광사는 4월 21~22일 송광사 경내에서 불일보조국사 종재 및 송광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제799주기 보조국사 종재와 더불어 진행된 이번 수계법회는 21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박종석 화백 박물관 초대전 개막식, 보살계법문, 전국불일회 총회, 점등식, 철야법문으로 진행됐다. 22일에는 계첩배포와 보살계 법문, 수계식 및 법성도 요잡, 보조국사 종재를 봉행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행사에는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을 비롯해 하동 칠불사 선원장 통광 스님, 화엄사 현산 스님, 조계종 종회의장 보선 스님, 서울 불광사 지정 스님, 강릉 등명락가사 청우 스님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오색연등 밝혀 부처님 마중

## 호남지역 봉축열기 고조… 사암련 단위 연등축제 봉행




전북봉축위원회는 4월 25일 불기 2553년을 의미하는 대형 비빔밥(2553인분)을 준비해 대중들과 나눴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봉축연등이 전국을 연화장세계로 장엄한 가운데 호남지역 불교계의 봉축열기가 뜨겁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는 4월 28일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빛고을 연등축제'를 개최했다.

3만 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행사는 광주지역 중심가 일대에서 자비신행회의 무료급식 '따뜻한 밥상'을 시작으로 연등법회, 전통등 행진, 대동한마당 순으로 펼쳐졌다.

연등법회에서 조계종 前 포교원장 암도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을 중생들이 2600여 년 동안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봉축하는 것은 우리도 부처님 같이 견성성불(見性成佛)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성오 스님은 봉행사에서 "이번 부처님오신날은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바른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이웃과 더불어 실천하는 자리"라며 "희망의 연등 불빛이 온누리에 비쳐 중생의 고통이 말끔히 걷히고 밝은 세상이 환하게 들어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통등행진에는 불자들마다 손에 든 3만여 개의 등불이 광주 거리를 밝혔다.

특히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선원장 혜월)과 미륵사(주지 목언) 신도 등으로 구성된 연희단은 광주공원에서 아시아문화전당까지 5km 거리에서 가무로 연등축제의 분위기를 돋구었다.

행진 후 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열린 대동한마당에는 원각사 어린이회 가야금병창, 파라미타 광주지부의 댄스팀,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연희단과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 등이 어우러져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축제의 한마당을 이뤘다.

이에 앞선 26일, 순천시사암연합회(회장 혜인)와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순천 동천 고수부지에서 '2009 순천 유등축제'를 열었다.

3000여 불자들이 참여한 행사에서 혜인 스님은 "2013년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개최유치를 순천시민들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축하하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며 "빈자일등(貧者一燈) 이야기에서 나오는 가르침처럼 진솔한 마음의 등을 밝히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불자들은 저마다 소원과 희망을 담은 유등을 동천에 띄우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매년 음악회를 통해 나주시민들에게 사찰음악의 진수를 선보여 온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도 25일 네 번째 연등음악회를 개최해 봉축분위기를 더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타악그룹 얼쑤의 개막에 이어 가수 강산애, 바이올린 송원진, 피아노 송세진씨를 비롯해 무용가 한영애의 퍼포먼스, 색소폰 신유식, 바리톤 황성철의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전북 도내 각 지역에서도 25~26일 연등축제가 일제히 봉행됐다.

25일에는 전주시청 노송광장과 고창 군민체육관에서 불교문화체험행사와 연등축제가 개최됐고, 26일에는 익산 중앙체육공원과 군산 신풍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연등축제가 화려한 연화장 세계를 연출했다.

전북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 · 금산사 주지)는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과 원행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법운 스님을 비롯한 천태종, 진각종 등 각 종단을 대표하는 스님들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등 3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연등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연등축제 식전행사에서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지 2553년을 의미하는 2553인분의 대형 비빔밥을 대중들과 함께 나눠먹는 이벤트를 시작으로 각 사찰의 신도대표들의 숨은 장기를 뽐내는 장기자랑, 연꽃 만들기 체험,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켜주는 관불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원행 스님은 대회사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긍정적인 사고를 잃지 말고 이웃과 함께하려는 정신이 있어야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잘 새겨 보살행을 펼치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순천시사암연합회가 4월 26일 개최한 순천유등축제 법요식에서 공연 중인 합창단(위)과 고창 선운사가 29일 군산교도소에서 봉행한 봉축법요식 모습(아래).

심한 비바람 속에 전주시청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연등축제 기념식에서 동참한 사부대중들은 쏟아지는 빗속에도 큰 동요 없이 부처님오신날을 경탄하고 지속된 가뭄을 해소하는 꽃비로 승화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

불자들은 비가 갠 후 전주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놀이와 함께 농악대를 앞세우고 각 사찰에서 준비한 갖가지 아름다운 부처님오신날 장엄등을 앞세운 채 전주시청광장에서 팔달로와 오거리를 거쳐 코아백화점을 돌아오는 연등축제를 벌였다.

같은 날,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도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불교문화축제와 연등축제를 개최했다.

1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진행된 문화축제에서는 전통 한지등 만들기 체험, 천연 비누만들기, 한지공예, 풍선아트, 가훈 써주기, 페이스페인팅, 다도체험과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고창의 양민들에게 소금 굽는 법을 알려준 선운사 창건주 검단 선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보은염(報恩鹽)이운식이 재현돼 눈길을 끌었다.

익산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우성 · 백운사 주지)는 26일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스님과 지역불자 5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봉행했다.

군산시 사암연합회와 군산신도연합회도 26일 나운동 소재 신풍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를 봉행했다.

각 사찰에서 준비한 갖가지 장엄물을 앞세우고 군산시의 발전과 불자들의 개인 염원을 담은 연등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시민들과 함께 즐거운 축제 한마당을 벌였다.

한편,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29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군산교도소 강당에서 불자재소자들을 위한 봉축법요식을 봉행해 눈길을 끌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禪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


경허 | 용성 | 학명 | 만공
한암 | 만암 | 만해 | 효봉
혜암 | 동산 | 경봉 | 고암

여시아문 02)2004-820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불기2553년 봉축 법어



■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당 숭천

인류의 큰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 중생들의 진정한 삶을 찾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주의 실상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말씀 없는 가운데에 큰 말씀이 계시 듯, 자취 없는 행보에 큰 자취를 보이시 듯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부처님 오심을 반갑게 경하드립시다. 부처님께서는 80세의 생애를 오로지 중생들을 위해서 길에서 태어나셔서 길에서 열반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는 한 스승이신 부처님의 제자로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람을 귀히 여기며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말로써 하는 유명무실한 보살행을 하지 말고, 나를 낮추는 하심(下心)의 도리로써 실천 수행하는 대승불살도가 됩시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진정으로 오신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주의 근본원리인 자비사상을 일러 주심이요 또한 모든 이가 성불하여 불국정토에 태어나게 하심입니다." 우리들의 생사일대사(生死一大事)의 서원인 자타일시성불도(自他一時成佛道)를 잊지 맙시다.

불기2553년 봉축 법어



■ 해동불교임제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지암

## "부처님 위신력으로 가호 충만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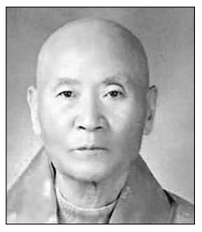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날을 맞아 연등불 밝혀 봉축합시다.
자비하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불자님 가정에 가호가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청천굉벽력" "평지기파도"

임제종 가풍

* 729호(4/29) 봉축 법어 中 「대한불교임제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지암」을 「해동불교임제종」으로 바로잡습니다.

불기2553년 봉축 법어



■ 대한불교 자비원종
종정 법성 성공

佛無香滿見
부처는 볼 수 없으나 향기는 가득하다.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부르고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부처님 모습이지만 아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한량없고, 이 우주 어느 한 곳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듯이 항상 그 향기만은 가득하니. 어찌 부처님께 귀의하지 아니하리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총무원장 화봉 성산

- 경남종무원장 : 현공 영암 055)536-1003 / 011-541-5029
- 경북종무원장 : 054)292-0385 / 011-850-5903
- 총본산 : 경남 창녕군 계성면 사리 113
  전화 055)521-0741 / 핸드폰 011-9393-6700
- 총무원 : (석산사)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송진리 산 121-2
  전화 055)351-0562 / 팩스 055)353-8109 / 핸드폰 010-8331-0320

** 입종 신청받습니다 **

종교법인 국제불교협회

"불기2553년 기축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국내를 포함하여 세계 곳곳 후진국들의 어두운 곳에서의
자랑스런 봉사자들의 땀방울이 부처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봉사하는 주역은 법하이십니다. 같이 일합시다. 모두 동참바랍니다.

목탁. 혜정. 법성. 천장. 문수. 법진. 현담 합장

IBL 국제불교지도자협회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02)733-5665

신 제 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귀의 삼보하옵고,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 기업입니다.
사찰 및 불자님들께서 필요하신 양초 문의시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실내용 양초 - 밀납, 약쑥, 식물성 양초
◇장엄용 양초 - 야광, 용초, 호랑이, 봉황(7∮ × 35㎝)
◇육각초 - 7.5∮ × 45㎝ (적색,핑크,노랑,연두,주황,백색)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양초를 제조 판매합니다

문의 우창산업(삼환양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구매시 카드결제가능

동일한의원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250-14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25-중-2672호

코한방(韓方)

코막힘,비염,축농증

코막힘 한방(韓方)으로 해결!!

코막힘,비염,축농증 답답하시죠?
이제 다년간의 연구와 연구성과를 거둔 죽전네거리 동일한의원에서 한방(韓方)으로 치료해 보세요!!

코가 정말 시원합니다



한의학박사 보건학박사 원장 노 동 일
전)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매주 수요일 오후 휴진)




☎ 053)552-8800



월서 스님의
## 주련 이야기 14

# 일체가 부처님 모습이다

[원문]
극락당전만월용(極樂堂前滿月容)
옥호금색조허공(玉毫金色照虛空)
약인일념칭명호(若人一念稱名號)
경각원성무량공(頃刻圓成无量功)
–고운사 대웅전

[번역]
극락당 앞에 만월 같은 모습
옥호와 금색은 허공을 비추는구나.
만일 사람들이 일념으로 부처님 명호를 부른다면
경각에 한량없이 큰 공덕을 이루리라.

[선해(禪解)]
불자들에게서 '불교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가끔 받는다. 이럴 때는 승가에서 오십 성상(星霜)을 보낸 산승(山僧)도 당황할 때가 있다. 불자들이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속뜻은 자신이 믿고 있는 불교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탓일 것이다. 나는 이럴 때마다 불교를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압축하여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지만 불교란 '마음공부'를 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성불(成佛)에 있다고 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바로 '부처'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부처'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부처가 되면 무엇이 좋은 것일까? 이쯤에서 불자들은 깊은 의문에 빠지게 된다. 심지어 평범한 일반인들은 자신이 감히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는 바로 부처를 성인(聖人)의 경지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시각을 가지는 것도 분명 맞다. 하지만 어찌 보면 참으로 '성불'만큼 쉬운 것도 없으며 불교만큼 쉬운 공부도 없다. 왜냐하면 불교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마음공부'를 하여 안식을 찾으면 되기 때문이다. 성불이란 깨달음을 얻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데 이를 두고 불교에서는 바로 고(苦)로 부터의 해탈이라고 한다. 즉, 삶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안온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살면서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 많다. 그 괴로움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 바로 자기 자신이다. 더 많은 물질적 욕망을 얻기 위해, 혹은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 탓이다. 이러한 괴로움에서 탈피하기 위해 '마음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사람이 가진 근원적인 괴로움으로 부터 탈피하기 위해 출가를 하여 6년간의 고행 끝에 마침내 성불을 한 것이다. 만약, 불자들도 열심히 수행을 하면 인간이 가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찾은 부처님처럼 성불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오늘 등운산 고운사의 주련이야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신라 신문왕 원년(서기 681년)에 해동화엄종의 시조이신 의상 대사께서 창건하신 사찰로서 연꽃이 반쯤 핀 부용반개형상의 천하명당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이름은 고운사(高雲寺)였는데 신라말 불교와 유교 · 도교에 모두 통달하여 신선이 됐다는 최치원이 여지 · 여사 양대사와 함께 가운루(경북 유형문화재 제151호)와 우화루를 건축한 이후 그의 호인 고운(孤雲)을 빌어서 고운사(孤雲寺)로 바뀌게 됐다고 한다.

고려 태조 왕건의 스승이자 풍수지리사상의 시조로 받들어지는 도선 국사가 가람을 크게 일으켜 세웠으며 그 당시 사찰의 규모가 다섯 동의 법당과 열 개의 요사채가 있어 오법당십방사(五法堂十房舍)였다고 한다. 현존하는 약사전의 부처님(보물 제246호)과 나한전 앞의 삼층석탑(경북 문화재자료 제28호)은 도선 국사께서 조성하신 것들이다. 특히 이곳은 해동제일지장도량이라 불리는 지장보살영험성지로서 많은 불자들에게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죽어서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고운사에 다녀왔느냐고 물었다고 하는데, 지장보살님의 원만자비하신 풍모는 물론이거니와 명부십대왕의 상호와 복장도 다른 사찰에서는 보기 힘든 위엄과 정교함을 자랑한다.

'극락당전만월용/ 옥호금색조허공: 극락당 앞에 만월 같은 모습 옥호와 금색은 허공을 비추는 구나.'

극락당 위에 떠 있는 만월은 바로 다름 아닌 부처님이다. 45년간 설하신 위대한 법은 옥호와 금색으로 빛나, 항상 온 세상을 비추고 있다. 그럼 부처님이 설하신 그 위대한 법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250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허공 속에서 저리도 빛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네 가지의 성스러운 가르침인 사성제(四聖諦)이다. '괴로움에 대한 가르침,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가르침,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에 대한 가르침인데 압축하면 고집멸도(苦集滅道)이다.

그래서 일찍이 부처님은 이 네 가지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두고 "본래 듣지도 못한 법인데 여래가 마땅히 알 것을 이미 알아, 눈이 나고 빛이 나고 지혜가 났느니라."라고 했던 것이다. 만약, 여래가 이 네 가지의 거룩한 가르침을 알지 못했다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래는 이 네 가지 거룩한 가르침을 여실히 알아서 위없는 가르침을 설하는 동안, 이를 깨닫는 이가 있다면 여래는 법의 바퀴를 굴릴 것이지만, 깨닫는 이가 없다면 법의 바퀴를 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약인일념칭명호 경각원성무량공: 만일 사람들이 일념으로 부처님 명호를 부른다면 경각에 한량없이 큰 공덕을 이루리라.'

만약,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사성제의 위대한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 수행과 공부를 거쳐 부처님의 명호를 열심히 부른다면 바로 한량없는 복을 얻게 된다는 말이다. 참으로 가슴을 적시는 내용이다.

이렇듯 하늘에 떠 있는 만월뿐만 아니라 해와 구름, 새, 바람, 꽃, 별,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감추어진 얼굴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 모든 자연의 이치 속에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인 사성제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이럴수록 사람은 물질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람이 물질에 갇히게 되면 도덕과 윤리 존재가치마저 흔들리게 된다. 이를 위해 '마음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이다. 이 마음공부에는 오늘날 이슈가 되는 노 前 대통령께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 그가 일찍 마음공부를 하였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든 열심히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몫은 당연히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 조계종 원로의원

**물질에 얽매이면 생존의 가치 흔들리게 돼**
**'사성제' 가르침 바로 알고 수행할 때 '성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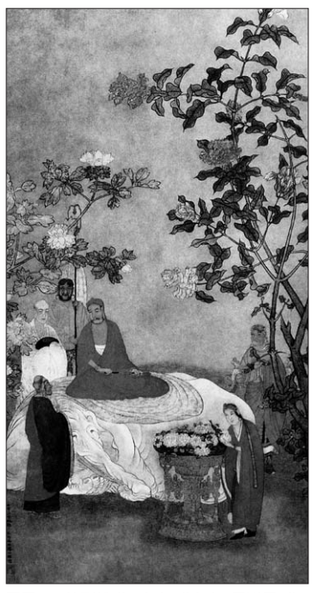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 달마혈맥론 14

# 가르침을 받아야 깨닫는다

[원문]
若自己 以緣會合 得聖人意 卽不用參善知識 此卽是生而知之勝學也 若未悟解 須勤苦參學 因敎方得悟.

만약 자기가 인연법으로써 깨달아 성인의 뜻을 얻었다면 선지식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데, 이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경지에 있었던 사람이니라. 만약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부지런히 배우고 열심히 수행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아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니라.


중국 오빈(吳彬) 作 달마도(북경고궁박물관).

[해설]
만약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았다면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은 수행을 통해 깨닫게 되면 선지식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으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달마 스님께서는 스스로 깨닫고 성품을 보게 되면 스승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승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중국의 육조 혜능 스님도 혼자서 깨달으신 분입니다.

혜능 스님은 전혀 글을 배우지 않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원래는 관직에 있던 분인데, 어떤 사건에 연루 되어 관직에서 파직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로 좌절해서 술만 마시다가 일찍 병이 들어 돌아가십니다. 혜능 스님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는데, 하루하루 나무를 해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 돈으로 양식을 사가지고 살았답니다.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나무를 짊어지고 시장에 나갔는데, 그 날따라 나무가 팔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를 팔아야 양식을 사갈 수 있는데 나무가 팔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여관 처마 밑에 나뭇짐을 내려놓고 앉아있는데 방안에서 어떤 스님이 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탁발을 나오셨던 스님이 방안에서 금강경을 읽으셨던 겁니다.

혜능 스님은 그 때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는 게송을 듣는 순간 마음이 열려 버렸습니다. 혜능이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이 경이 무슨 경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금강경입니다."

"어디로 가야 배울 수 있습니까?"

"황매산에서 홍인 대사가 금강경을 설하고 있습니다."

"저도 배울 수 있습니까?"

"배울 수 있습니다."

혜능은 자신이 나무를 해서 팔지 않으면 연로하신 노모가 홀로 살아 갈 수 없으니, 배우고 싶지만 어머니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사정을 이야기 합니다. 혜능의 딱한 사정을 들은 스님은 탁발을 한 돈을 주면서 그 돈으로 어머님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사다 드리고 홍인 대사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혜능이 비로소 오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혜능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쓰라'는 게송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게송은 '어떤 경우라도 끄달려 가지마라, 집착하지 마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게송에 혜능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홍인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됩니다만, 혜능 스님은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도 금강경 게송을 듣고 마음이 열렸던 겁니다. 여기서 혜능 스님이 전생에 수행을 열심히 하셨던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깨닫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녀분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주가 있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런 분들도 전생에 그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지만 자기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익혀지고 즐겁게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모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생에 정진을 많이 하신 분들은 금생에 혜능 스님처럼 배우지 않아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달마 스님의 혈맥론 강의를 듣고 있지만 이것이 와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달마 스님 말씀이 와닿는 분들은 전생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와닿지 않는 분들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던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달마 스님께서 '만약 자기가 인연법으로써 깨달아 성인의 뜻을 얻었다면'이라 하신 것은 공부를 전혀 하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배우지도 않았지만 홀로 견성했다는 얘기인데, 이는 전생에 많은 수행을 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정진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마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은 공부를 하되 정확히 길을 알고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등산을 갈 때도 등산로를 잘 알고 가면 미리 준비를 하고 가기 때문에 힘이 덜 들겠죠. 모르고 간다면 고생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품을 보는 공부에 있어서도 정확히 불교를 알고, 화두를 들거나 염불을 하거나 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확히 성품을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천지공사 달마 천궁회천도법으로 귀신포망을 넘어 육신병,정신병,잡신병, 불임병, 귀신빙의병을 태양 진광진법으로 퇴치하는 도통군자 천이통대법회

수명과 생명의 근본은 천궁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는 죽음의 뿌리를 끊는데 있느니라.

● 경신수행으로 귀신의 번뇌를 벗고 새로운 천문도통으로 죽음의 뿌리를 끊고 막힌 운을 도통하여 미래를 창조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다스리는 초능력자 일류 스승으로 도통군자 친지공사 건강과 생명을 찾아 만사형통하는 대용맹정진 수행법회에 도통하시고 죽지않는 법 득도 받으시고 천지공사 경신도통법은 지구탄생과 더불어 종교이전의 영적붐으로부터 사람에게만 하늘에서 내려진 도법으로 하늘과 땅에 감춰진 것을 금년 기축년 윤달든해 천용진인 태일대사는 만천하에 경신도법을 도통군자 후학들에게 전하는 것이며, 득도에 따라 천도는 드러나지 않게 지도는 움직이나 멸하지 않게 인도는 그 사람 그 자리와 기국인자에게나 전하는 것이며 마음을 일깨워주고 당신의 사후생애를 다스려주는 기도인 것이고, 소울음 우는 소리로 해인의 잣대를 얻어 번뇌를 벗고 우주의 기운을 받아 중생을 구제하는 비법인 것이다.

● 천지공사 경신도통이란?? 죽음의 뿌리를 끊고 생명을 연장하는 비법이고 만병을 다스리며 귀신잡신도 제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천지공사진태양경신 기도 뿐인 것이다.

※ 달마천궁 회천 경신도통이란 – 종교가 탄생 되기전 창조주께서 지구촌 혈단법으로 도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차원 높은 도법으로 다스렸고 지구촌 병은 모두 귀신장난과 동물, 생물, 식물, 미물 등의 빙의로 죽고 병마와 잡신 영혼을 물리칠 수 있는 경신기도인 것이다. 이 기도는 남여노소, 학력, 종교를 초월 경신일에 초능력을 얻어 만가지를 제도하는 경신주문인 것이고, 지구촌 온난화로 각종 질병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도법인 것이다.

동양철학특별강의 본 달마종단에서는 사주, 성명, 운명학으로 건강을 다스리고 수명을 관리하는 새로운 후천달마도법으로 뜻이 있으신 분과 본종단은 생활불교, 거사불교, 보살불교, 대중불교 머리깎고 승복에 구애 받지않으며 남녀노소 연령제한없이 불법홍포에 뜻이 있고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입종을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 특별기도 ⇨ 금년 윤달든해 기축년은 조상의 해이고 불임증과 사업자, 진급자, 고시자, 자손을 두고자 하는 분과 도통군자들에게 특별49제 칠칠제 및 백일기도를 입제하오니 동참하시어 자손에 소원성취하시옵고 사람된 도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心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 천하대도 천이통으로 기천문을 열어 상통천문하달지리로 자신의 일체의 병을 다스리는 잡신의 병, 귀신마장의 병 포망을 넘어 생명을 관리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도통군자 되는 법

대한불교달마종조계종 부산범일동 약사도량 진불선원
부산 동구 범일동 830-295 삼환빌딩 3층 보현스님 합장
051)635-3110 / 휴대폰 010-8533-1601,010-3239-3110

※ 특히, 천지공사달마 천궁회천법으로 혜안을 열어 도통거부장자로 잘 사는 비법과 병 없이 수명장수 건강하게 사는 비법에 감춰진 것이다.
진인출현 경신수행 기도수행처 – 상담자 : 명진스님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 259번지 ☎ 041)867-7763 / 010-7728-6707
세계불교달마종 육경신 도통회 제2도장 진불선원 태양의집

● 입제 : 양력 2009년 5월 14일(음, 4월 20일 목요일)(해시)
● 해제 : 양력 2009년 5월 15일(음, 4월 21일 금요일)(해시)
02-821-6622 , 821-7767, 010-3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15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관음정사 별관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웅조달마 경신도통회
십팔 세계불교 달마종 총 본산 태일합장

빙의(귀신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중생...
그 고통을 함께합니다



빙의치유
●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퇴마, 우울증, 대인공포, 불면증, 게임중독, 성적향상 등등... 원인모를 불치병... 하는 일마다 안풀리는 분은 사주를 바꾸세요. 산소수맥
빙의, 퇴마, 전생,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최면 수련을 통해 노력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 본인이 원할 때까지 ◇ 교육비용 : 200만원 ◇ 최단기 집중교육도 가능
◇ 스님이나 포교사님 현오스님만의 특별교육도 가능 (본인이 원할 때 추가비용 별도)

"2009년 3월 3일 MBC TV 특종 놀라운 세상「귀신씌인 나무의 실체」편 출연"

서울지부 : 보광사
H·P 016-9511-0840
● 서울교육 : 연중무휴
※ 전국 지사 모집. 지속적인 광고지원 ※

부산본부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42-0666 / 364-5586
H·P 010-5656-3915 / 010-3056-3315
● 부산교육 : 연중무휴

성 봉 사 퇴마사 현오 합장

# 지금이 위기라는데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

선지식을 찾아서 설정

##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추대된 설정 스님



해발 495.2m의 크지는 않지만 위엄이 있는 덕숭산 정상 부근에 자리잡은 수덕사 산내 암자 정혜사 능인선원. 사하촌과 주변의 들이 한 눈에 들어오는 이 곳은 100여년 전 만공 선사가 금선대(金仙臺)라는 초가를 지으며 비롯됐다. 근대 한국 선종의 중흥조인 경허 · 만공 선사와 선농일여(禪農一如)의 선맥을 잇는 이 곳에는 최근 혜암-벽초-원담 스님에 이어 덕숭총림 수덕사의 제4대 방장에 추대된 설정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정혜사로 올라가는 산길은 쏟아지는 봄비에 그리 편치는 않았다. 하지만 선원 객실에 들어서니 빗줄기는 아름다운 선율 처럼 정겹고 운무에 가려진 산 아래 경치는 산수화를 그려놓은듯 아름답다. 산색을 연두빛으로 물들인 나뭇잎들은 봄비를 맞고 더욱 푸르러질 기세다.

객실에 들어선 설정 스님은 환하게 웃으며 차부터 권한다. 서울에서 빗길을 뚫고 달려온 나그네의 어수선한 마음을 다향으로 가라앉히고, 먼저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불자들에게 들려줄 덕담을 청했다.

"부처님오신날은 부처님이 살아가셨던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서로에게 다짐하는 날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는 어떠한가, 제대로 정진하고 있는가 반성해 보고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수행인으로서의 새로운 원력을 세우는 때입니다."

"국내외의 경제적인 위기로 사림들의 삶이 그만큼 고단해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상당히 어려워졌고 불교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현실적인 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질곡의 세월을 보냈고 일제 36년간 왜정에 의해서 불교가 원래의 모습을 잃으며 크나 큰 시련을 겪었고 해방 후에는 정화운동으로 갈등과 시비가 일었습니다. 불교가 스스로 서지 못하고 발전에 저해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불교의 정화를 달성했습니다만, 그 반면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그 부작용이 지금도 조금씩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그러나 위기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절망하지 않고 부단한 인내로 노력할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스님의 말은 요즘 처럼 편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믿고 받아지녀서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힘과 용기가 되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무려 54년의 출가생활을 통해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의 수행현장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사무애(理事無碍)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온 경험에서 묻어나온 말이기도 하다. 지난 4월 2일 산중총회에서 방장에 추대된 것도 오랜 출가생활의 큰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 스님은 추대를 수락하며 "방장이 아니라 방장 행자로서, 정진하는 사람으로 또 대중과 산중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며 "함께 탁마하자"고 말한 바 있다. 아직 조계종 중앙종회의 추대 절차가 남아있지만, 스님께 방장 추대에 대한 소감을 물었다.

"큰 돌덩어리를 짊어진 듯 무한한 책임과 의무, 사명감을 느낍니다. 덕숭산은 근대 불교사에서 선종을 중흥했던 곳이고 경허 만공 수월 혜월 한암 혜암 벽초 스님 등 수많은 선사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제가 방장수락사에서 '방장행자로 살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옛 스님들의 말씀입니다."

5대 총림 가운데 한 곳이자 선의 종갓집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스님의 어깨가 무겁다는 말은 한 총림을 초월해 조계종 전체를 염려하는 뜻을 담고 있었다. 한 마디로 '오늘의 한국불교는 위기'라는 것이 스님의 진단이다.

### 신심·원력·공심 지키면 언제나 당당한 수행자
### 승단 자립 풍토 절실… 시줏돈·지원금 의지 안돼

"한국불교는 머리는 큰 데 가슴과 팔 다리는 허약합니다. 말로는 수미산을 깨부술 듯 하지만 실제의 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대승을 지향하면서도 소승보다도 실천이 부족합니다. 언행일치와 지행합일, 실질 수행이 필요한 것이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 민중의 지도자가 되고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더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한국불교의 현실에 대한 설정 스님의 진단은 냉정했고 그 해법은 단호했다. 수행인이 아닌 생활인이 되어버린 승단에서는 더 이상 불교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불교계에 시비와 난장판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님들은 생활인으로서 절에 살아선 안됩니다. 수행인으로 살아야지 생활인으로 살다보니까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가지각색의 추문과 비리와 주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려 각자가 승관(僧觀)이 확립돼야 합니다. 철저한 신심과 원력, 공심, 양심과 인격이 갖춰진 사람들로 승단이 구성될 때 비로소 불교의 앞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집단만이 민중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속물 근성을 가진, 명리를 추구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는 승단이 바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에 따르면 신심, 원력, 공심은 솥의 세 발과 같아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끝장이다. 불조(佛祖)의 가르침에 대한 정견과 확고한 신심, 나도 깨닫고 중생도 제도하겠다는 보살심과 원력, 나를 버리고 모두를 위해 살겠다는 공심(公心)이 있어야만 참된 출가생활이란 게 스님의 지론이다. 그러나 "요즘 스님들은 풍요로운 세상에서 자라나 물질의 소중함을 잘 모르다 보니 인내력과 같은 정신자세가 나약하고 인과에 대한 믿음도 약한 편"이어서 스님의 걱정이 적지 않다.

설정 스님은 스님들이 바른 승관을 갖기 위해서는 수덕사의 가풍처럼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는 정신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님들이 내성을 기르고 자주력을 길러야지 국가의 보조금으로, 신자의 돈으로 사는 것은 안됩니다. 수덕사에서는 가능하다면 하나씩 해 나갈 것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의와 좌절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설정 스님은"절에서 채소 등 먹거리를 직접 키우는 것은 잡념을 버리는 수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시주 은혜의 지중함을 느끼고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다. 힘든 일 하는 신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기에, 먹고 쓰고 입는 모든 것에 여러 사람의 피와 땀이 묻어있음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

사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고 하는 선농일치(禪農一致), 노선(勞禪)일치의 가풍은 간화선의 전통이기도 하다. 일삼매를 통한 몰입이 가능하다면, 구지 좌복위에만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울력하면서 선문답을 즐겨한 마조, 백장, 황벽, 임제 선사와 같은 조사들은 행주좌와 어묵동정 중에 화두를 들고 공부할 수 있음을 어록을 통해 남기고 있다.

위기의 한국 불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승관의 확립 외에 또 하나의 방법은 종무행정을 통한 제도적 · 행정적 개혁이 있다. 덕숭문중 스님들을 비롯해 종단 전체의 광범위한 지지와 존경을 받아온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도 이 때문에 나왔다. 지난해 말부터 차기 총무원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사실과 관련, 설정 스님은 "전혀 출마의향이 없다"며 솔직담백한 생각을 풀어놓았다.

"작년 금년 초까지 많은 분들이 총무원장 선거에 나서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농담조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0년이고 15년이고 승단을 모두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생각해보겠다.'라고요. (웃음) 방장 문제도 이렇게 결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자꾸 말이 많아집니다. '아무개라는 사람이 영순위다, 어디 다니면서 (총무원장) 선거운동을 조금씩 하고 있다,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해서 우선 이런 생각만이라도 줄여주어야겠다고 생각해 방장 추대를 수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5년 동안 서울 총무원에 있었습니다. (94~99년 제11대 중앙종회 의장, 중앙종회의원 역임) 그때는 원장을 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 원장을 해서 내

"드디어 기다리시던 하권이 출간되었습니다!!"
백초귀장술
두번째 백초스님의
찾아온 시간만 가지고왔는지 무슨 일로 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꿰뚫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하권/720면/정가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 ‘승격’은 ‘인격’ 위에 있는 것

나름대로 종단을 변화시켜보자고 생각했고, 또 많은 지지자들과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판에 뛰어들어 종단을 개혁하겠다는 생각은 ‘진정한 수행자로 살겠다’는 서원으로 180도 바뀌었다. 발상의 전환은 죽음과의 정면 대결을 통해서 이뤄졌다.

“1998~99년도에 제가 죽을병(췌장암)이 들어서 총무원장 선거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CNN으로 조계사를 포클레인으로 찍어내리고, 돌을 던지고 각목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상당한 충격과 자괴심을 느꼈습니다. 내가 종단에 5년 동안 있으면서 나를 지지했던 사람이 원장에 나가보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 때문에 못 나갔고, 종단이 저렇게까지 간다고 하면 앞으로 수십 년간 후퇴하겠구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병이 났을 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선가의 중이 됐으면서 수행을 잘 못해서 병이 생겼다. 쓸데없이 총무원에 가서 천방지축으로 뭘 하겠다고 설치고 다녀서 병이 생겼다. 내가 죽지 않고 살면 꼭 진정한 수행자로 살겠다. 그리고 절대 쉽고 편케는 살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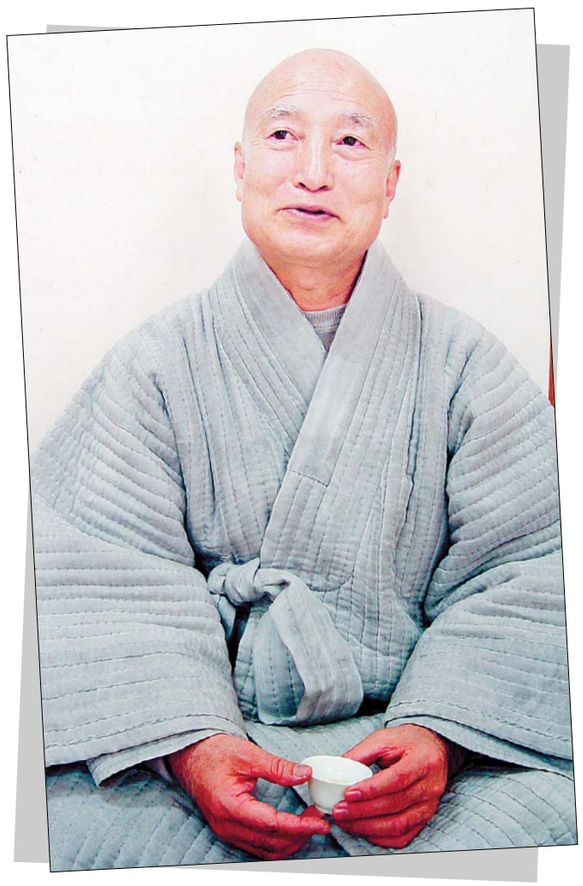
설정 스님은 미국에서 돌아와 봉암사 선원에 들어갈 때 체중이 51㎏이었다. 병이 회복 되지 않아 약을 한 주먹씩 먹을 정도였다. 그때 ‘좌복 위에서 그냥 정진하다 죽겠다’ 하고 갔는데 3년 후에 몸이 57㎏으로 늘어났고 또 상원사에서 정진할 때 몸이 회복의 단계까지 갔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 곳(정혜사)에 와서 10년째 살면서 나름대로 진단을 내리면, 이제 내가 제자리에 잘 왔구나, 방황하지 않고 허덕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스님은 ‘승격(僧格)은 인격(人格)의 위에 있다’고 말한다. 승격을 갖추려면 거기에는 철저한 자기희생과 봉사와 끝없는 하심, 아상(我相)을 사정없이 내려 팽개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야 한다고 말한다. 아상이 없는 하심으로 다져진 사람들로 절집이 만들어졌을 때 감투싸움과 온갖 시비 갈등이 종식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승격이 갖춰졌더라도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선 한계에 직면하기 마련. 설정 스님은 ‘선거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불교는 망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정한 일이 일어나도 즉각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절집안에서는 대중공사를 통해 하루아침에 절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계원에서 초심, 재심을 하는 동안 로비를 통해서 살아나기도 합니다. 선거제도도 큰 문제입니다. 개선하지 않으면 불교가 망합니다. 종회의원 선거에 수천만 원이 들고, 총무원장 선거에 수억, 수십억 원을 씁니다. 국회의원도 100만원 받으면 모가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집안에서 어떻게 삼보정재가 좋지 않은 곳에 쓰입니까. 지금 이런 구태의연한 선거 방법에 의해서 계속 나간다는 것은 불교를 스스로 멸망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병든 수좌들,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수좌들, 또 신도 자제들 끝도 없이 많은데 어쩌자고 자기의 일신의 명예를 위해서 돈을 물 쓰듯 합니까. 이는 시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짓을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설정 스님의 애종심과 불교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방장 추대사에서 덕숭총림의 수행가풍 확립과 국제포교를 강조한 스님은 현재 국제포교의 중심인 서울화계사 회주를 겸임하면서 해외포교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불교를 세계화 하려면 외국인 스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미율의나 비구계는 물론 수계의 식조차 영어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교재도 만들지 않고 국제포교, 세계포교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신(文身) 문제도 그렇습니다. 서구에서는 문화적으로 문신은 흔한 일이지만, 외국인 출가자가 수차례 지우는 수술을 해도 계를 주지 않습니다. 스님들의 삭발을 해형(解形: 형상을 무너뜨림)이라고 합니다. 문신의 흔적에 매달려 계를 주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수행 공간도 부족하고 지원도 부족합니다. 무상사의 경우 화계사의 지원이 있어 외국인에게 오고 가는 비행기삯 외에는 받지 않지만 여전히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종단차원의 깊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설정 스님은 기회가 되면 국내 외국인 스님들은 물론 해외 불자들이 영어나 스페인어 등으로 들을 수 있는 선어록 강좌를 열 계획이다. 국·내외 선사의 어록을 우리 시대에 맞는 언어로 설법함으로써 간화선에 대한 이해를 돕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참선 공부법은 물론 한국불교의 역사와 특성, 의례, 승단의 조직운영과 교육단계 등을 익힐 수 있게 해 한국 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할 생각이다. 이는 결국 외국인들이 스스로 한국 불교를 배우고 귀국해서도 스스로 포교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열세살 어린 나이에 출가해 벽초, 금봉, 원담 스님 등 고승들로부터 담금질을 받으며 일과 수행이 둘이 아닌 공부를 해 온 설정 스님. ‘불교계에 어른이 없다’는 소리가 들리는 요즘, 스님의 사자후(獅子吼)는 더욱 아프고도 통렬했다. 번뇌망상을 죽이는 살인검(殺人劍)이자 본래부터 밝고 청정한 본성을 드러내는 활인검(活人劍)이 바로 스님의 직심(直心)에서 나온 직언(直言)이 아닐까.

“자타일시성불도(自他一時成佛道)라 하지 않습니까. 함께 부처님이 돼야 합니다. 오늘 싫은 소리를 많이 해서 아파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 덕담은 어느 해보다 아픈 할(喝: 고함치기)과 방(棒: 몽둥이질)이 쏟아졌다. 할과 방을 맞고 죽었다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경책은 수천만 인을 살리는 약값을 할 터이다. 부처님오신날은 형상에 치우친 행사에 치중하기 보다는 잊고 살았던 저마다의 본심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간과 출세간의 사부대중은 부처님 법 그대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덕숭산의 봄비는 그동안 물든 우리 언행을 청정하게 씻어내리는 법비가 되리라 믿어마지 않는다.

글 · 사진=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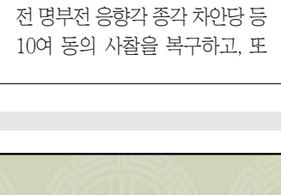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42. 송광사 회주 취봉 스님

취봉 스님(1898~1983)은 나의 계사(戒師)이다. 효봉 스님을 뵙고 송광사로 돌아와 그 해 음력 5월 초 8일부터 시작하여 <사미율의>와 <초발심자경문>을 추강 스님께 배우고, <치문경훈>을 학담 스님에게 배우고 나니 8월초가 되었다. 추강 스님께서 노스님 기일이 8월 13일이라 이날 계를 받는 것이 좋겠다 하여 취봉 스님께 계를 받았다.

5계와 10계를 내리면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일찍이(1912 · 15세) 쌍계사에 입산하여 19세에 송광사 남호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이듬 해 호은 스님께 비구계 · 보살계를 받았으나, 1939년 일본에 유학하고 벌교 송명학교, 송광사 강사를 지냈으니 출가 후 외도를 많이 하여 남의 스승 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초연(나의 최초 불명)은 들어오자마자 선방에 자리를 정하여 나와 석 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시봉도 하고 선(禪)도 같이 익히고, <수심결> <정혜결사문>도 배웠으니 나를 본받지 말고 보조국사 같은 분들을 본받아 공부하기 바란다.”



### 조계총림 설립 주역… 주지 3번 맡아 대중외호 전력

1970년까지 세 차례나 송광사 주지가 되었지만 가람 수호와 대중외호에 전력을 다 했으며, 여순반란사건 때 소실된 송광사를 복구하는데 거의 생을 바쳤다. 순천, 여수, 벌교, 관양, 고흥, 녹동, 광주, 목포 할 것 없이 전라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천일기도 회원을 모집하였는데, 여름 가을로 기도재자 한 사람당 쌀 한 되, 보리 한 되, 돈 100원씩을 거두었다. 그 숫자가 자그만치 1만명이 넘었으나 아침 저녁으로 합원대중(合院大衆)이 그 명단을 다 읽도록 하여 거기서 익혀진 습관이 어디 가든지 불공축원 하는데 걸림이 없게 되었다.

앉으실 때는 언제나 손바닥으로 자리를 한 번 싹 쓸어 점검해 보고 먼지가 있으면 반드시 쓸고 닦은 뒤 앉는다. 속이 훤히 비치는 검정 장삼에 밤색 가사를 하고, 몸은 파리하여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다. 늘 손발이 저려 주무르고 약을 드셨는데 약은 골담초, 익모초 같은 것으로 만든 환약이었다. 상좌는 낙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신 분이 한 분 있었고, 뒤에 출가한 분들이 두세 분 있었으나 시봉 받기를 좋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저렇게 해 대웅전 설법전 명부전 응향각 종각 차안당 등 10여 동의 사찰을 복구하고, 또 기성 사찰들을 중수 중건하면서도, “절은 짓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재를 양성하고자 절을 짓는 것이니, 우리 총림을 만들어 선방 강원 염불당을 함께 운영하자”고 말씀 하시니, “누가 이 일을 감당합니까?”하고 물었다.

“모든 것은 전문인이 해야 하니, 선방은 효봉 스님 상좌 구산 스님을 모셔 맡기고, 강원은 이름 있는 학자들을 초청하고, 우리 힘 없고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염불당에서 염불하면 되지 않겠소.”

“옳은 말씀이나 권속을 거느린 대처스님들은 어찌 합니까?”

“전혀 근거도 없는 속인들도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절에서 글 배우고 큰 살림 한 것도 굿은 보았으니 각기 능력 따라 절일을 볼 사람은 절일을 보고, 속가에 나아가 전법에 종사할 사람은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소.”

“전혀 근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찰 불량답이 작지 않으니 그것을 나눠 지어 먹으면 되지 않겠소. 그렇다고 절에서 아주 나가라는 말은 아니오. 단지 절에 있거나 세속에 나가거나 중 모습을 버리지 않고 중 행위를 달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계총림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노쇠해져서는 도성당에 간병소가 만들어져 먼저 있던 성공 스님이나 계룡 스님이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스님은 1983년 5월경 본인이 쓰시던 물건을 하나도 남김 없이 나눠주고, 7월에는 낙수 교장선생님께 부탁하여 관까지 만들어 놓은 뒤 각 법당에 다니면서 낱낱이 고별인사를 하고, 8월 6일 세수 86, 법랍 71세로 입적하시니, 합원대중이 모두 고개 숙여 전송했다.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욕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사찰 종합 보험 전문

사찰내외의 다양한 위험(화재 풍수해 도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상해 질병의료비 보험 상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담
은퇴 후 노후 설계 상담

종합자산관리사 (IFP) 이진우 합장 011-766-1001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84>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0장 證果 ⑩

# 부처님 법장 받아지녀야 큰 지혜 얻어

安住首楞嚴定 則是普現色身三昧 普入十方佛土 敎化衆生 嚴淨一切佛刹 供養十方諸佛 受持一切諸佛法藏 具足一切行波羅密 悟入大菩薩位 則與普賢 文殊爲其等侶

수능엄정에 안주하는 것이 보현색신삼매이다. 시방세계 모든 불국토에 보편하게 들어가 중생을 교화하고 일체불국토를 장엄 청정하게 하며 시방제불에게 공양을 올려 일체제불의 법장을 받아 지니고 일체바라밀을 빠짐없이 만족하게 실천하여 대보살의 지위에 깨달아 들어간다면 보현 문수와 하나로 평등하게 짝을 이루게 된다.

앞에서 지관으로 염불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여래행을 행하는 것이고 여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여래의 자리에 앉아 염불삼매를 성취하는데 이르러서는 최초일념 무명을 타파하여 그 이치를 증득했다. 그런 뒤에 수능엄정에 안주하게 된다.

범어로 수능엄은 건상분별(健相分別)이라고 번역한다. 이는 보살이 능엄삼매에 안주하면 일체삼매의 활동하는 모습의 많고 적고 깊고 얇은 이 모든 차별을 다 분별하고 명료하게 안다는 뜻이다.

또 수능엄정을 견고불괴(堅固不壞)라고 한다. 이 선정에 안주하면 일체 삿된 마군의 뇌란이 삼매를 파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크게 자유자재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보현색신삼매(普賢色身三昧)로부터 이어지는 문장은 근본정(根本定)을 따라서 위대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보현은 마치 천상에 하나의 달이 모든 강물에 두루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를 두고 "모든 강에 물이 있으면 모든 강에 달 그림자가 있고, 만 리에 구름이 없으면 만 리가 한 색의 하늘이다"라고 하였다.

보살이 이 삼매에 안주하면 일체 세계가 한 마음속에서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하지 않고 나타나게 된다. 신통묘용이 종횡무진으로 자유자재하여 전후의 시간차가 없이 동시에 모든 법계에 감응하여 색상이 완연하기 때문에 보현이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관음보살의 삼십이응신이 중생의 몸을 따라서 나타나 설법을 하는 경우와도 같다.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 사유상하 시방세계의 일체제불 국토가운데 보편하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고 일체 불국토를 장엄하고 청정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청정한 국토를 장엄하게 하는 것이다.

일체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큰 복덕을 얻어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장을 받아 지녀 커다란 지혜를 얻는다. 이것이 복과 지혜의 두 가지 장엄으로 열반피안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 모든 바라밀을 실천한다고 하였다. 그런 뒤에 대보살의 지위에 깨달아 들어가게 된다.

## 하나의 달이 강물에 두루 나타나는 것처럼
## 삼매 안주하면 일체 세계가 일념에 나타나

대보살의 지위란 개시오입(開示悟入)하는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廻向) 십지(十地)인 사십위를 말한다. 이 경지에 도달하면 보현 문수 등 모든 보살과 함께 평등하게 짝을 이루게 된다. 보현 문수 두 대보살은 항상 석가모니부처님을 보좌하면서 사바세계에서 교화하므로 이 세계 중생과 가장 인연이 많다.

문수와 보현은 보살의 경지로서 몸을 나타냈지만 그 근본은 석가여래와 두 모습이 없고 차별도 없다.

보현은 인도말로 '필수발타' 또는 '삼만다발타라'라고 한다. 번뇌를 조복받은 도의 정상에 거처하면서 자체성질이 두루 보편한 것을 '보(普)'라고 말하고 모든 번뇌를 끊은 뒤에 극치의 성인이 바로 이웃에 있기 때문에 '현(賢)'이라고 말한다.

인도말로는 문수사리를 묘덕(妙德)이라고 번역하며 묘길상(妙吉祥)이라고도 한다. 명료하게 불성을 깨달아 오묘한 덕과 평등하여 법신 반야 해탈을 빠짐없이 갖추어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묘덕이라고 부른다.

문수 보현 두 대보살은 경전가운데서 모든 보살의 으뜸으로 나오는데, 이는 법을 표시한 것이다.

첫 번째 보현보살은 여래장을 믿는 것을 표시한 것이고 문수보살은 믿는 마음을 표시한 것이다. 두 번째 보현보살은 육도만행을 일으키는 것을 표시한 것이고 문수보살은 육도만행을 일으키는 지혜를 표시한 것이다. 세 번째 보현보살은 번뇌를 벗어나 법계를 증득함을 표시한 것이고 문수보살은 대지혜를 증득함을 표시하여 상호간에 서로 서로가 하나로 융합되고 포섭된다.

보현보살의 믿는 마음만 있고 문수보살의 지혜가 없다면 믿는 마음은 무명번뇌이며, 문수보살의 지혜만 있고 보현보살의 실천이 없다면 지혜는 사견이 된다. 따라서 신심과 지혜가 진실하고 올바라야만 망상을 타파하고 진실한 마음을 성취할 수 있다.

가령 문수와 보현이 두 모습이 아닌 진실한 지혜가 진실한 거울과 한결같다는 이치를 명료하게 통달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비로자나불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인과관계가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라면 문수의 근본지혜와 보현의 행원이 하나의 지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수행자가 염불지관을 닦아 염불삼매를 성취한다면 문수 보현 관음 미륵 등 제대보살과 짝이 되어 손을 잡고 함께 행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수행인의 지위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常住法性身中 則爲諸佛稱歎授記

앞에서 이미 모든 보살과 하나로 짝이 되었다면 근본무명을 타파하고 중도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근본무명을 타파하고 나면 중도와 서로 호응하여 이로부터 항상 법성신 가운데 안주하게 된다.

법성신이란 진여법성으로 청정한 자체이다. 범부중생들은 사대가 임시로 합한 오음을 자기의 몸으로 여기고, 소승은 의생신(意生身)을 자기의 몸으로 여기며, 보살은 무명을 타파한 만큼 중도를 증득하여 법성을 자기의 몸으로 여긴다.

이는 일체법을 자기의 본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법신이라고도 한다. 법성신은 시방세계에 보편하고 충만하여 무량무변하다.

색상은 단정하고 상호로 장엄하여 한량없는 광명과 음성으로 시방세계를 보편하게 제도하는데, 이것을 보살의 법성신이라고 한다.

법성신 자체를 따라서 현실적인 작용을 일으키고 거기에 방편의 힘까지 더하여 부처님이 팔상성도를 닦아 태어나지 않는 데서 태어남을 나타냈고 열반하지 않은데서 열반의 모습을 나타내어 범부와 동일하게 생사의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 수행인이 항상 진여법성신 가운데 안주한다면 시방세계 일체제불이 찬탄하고 수기를 내린다. 수(授)는 부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을 말하고 기(記)는 깨달음의 과보가 내 마음과 함께 기약함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여래께서 모든 보살 성문 제자에게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를 하는 것이다.

그 예를 들면 법화경에서 "아일다야 그대는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되리니 호를 미륵이라고 하리라"라고 한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 수행위차(修行位次)

(5)구경위(究竟位)

구경위(究竟位)는 오위의 마지막 단계로 모든 번뇌를 끊어버리고 무상정등정각에 깨달아 들어가 안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경은 최후의 경지를 말한 것으로 지극(至極)이라는 의미입니다. 수행자가 지극에 이르면 이를 성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경위는 수행자의 최고 경지인 불과위(佛果位)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묘각(妙覺)이라고도 합니다.

'유식삼십송'에서는 구경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此卽無漏界　不思議善常
安樂解脫身　大牟尼法身

이는 곧 번뇌가 없는 무루(無漏)의 경계이며
불가사의(不可思議)하고 선(善)하며 항상(恒常)하고
안락(安樂)한 해탈신(解脫身)이며
석가모니(大牟尼)의 법신(法身)이다.

'불과위'는 모든 번뇌가 영원히 다하여 청정하고 원만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무루(無漏)라고 합니다. 무루는 구경위 단계로 일체의 세간에 대해서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원만하고 밝은 상태를 말합니다.

'계(界)'는 간직한다[藏]는 의미인데, 그곳은 가이없는 희유한 대공덕을 함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신은 사물처럼 따로의 차별상으로 존재함이 없기 때문에 유상(有相)으로 집착하지 못하며, 단멸의 공으로 없지도 않기 때문에 무상(無相)이라 하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모든 상대적 분별을 떠나 희론이 단절하였기 때문에 불가사의(不可思議)하며, 순수하고 청정하여 그 어떤 오염도 없기 때문에 선(善)이라고 하며, 그 자리는 항구하여 변역함이 없기 때문에 상(常)이라고 합니다.

뭇 차별상이 고요하므로 안락(安樂)이라 하고, 모든 장애의 속박을 영원히 떠났으므로 해탈신(解脫身)이라 하고, 위없는 적묵법(寂?法)을 성취했기 때문에 대모니(大牟尼)라고 합니다. 범어인 '모니'는 번역하면 적묵이라고 합니다.

법(法)이란 법신(法身) 또는 법성신(法性身)이라고 합니다. 이는 수행자가 이르러야할 최후의 경지인 것입니다.

구경위에선 이 같이 모든 공덕과 지혜를 빠짐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정리=張如舟

126회 부산 2000배 용맹정진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면 괴로운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긍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면 100% 성취된다.

우리들 마음속에 부처님을 항상 모시는 날마다 행복한 날을 확신하는 염불선도우미를 동참자 전원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 날 짜 : 2009년 5월 9일(토) 저녁 9시 ~
2009년 5월 10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법복 · 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 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2개, 위생비닐장갑1,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손목,발목아프신분(팔관애원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꼬리뼈, 차가우신분(호락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장 소 : 부산 금정법당
☞지하철 1호선 두실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좌회전 50M경우빌딩 4층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 행 중 심 교 육 도 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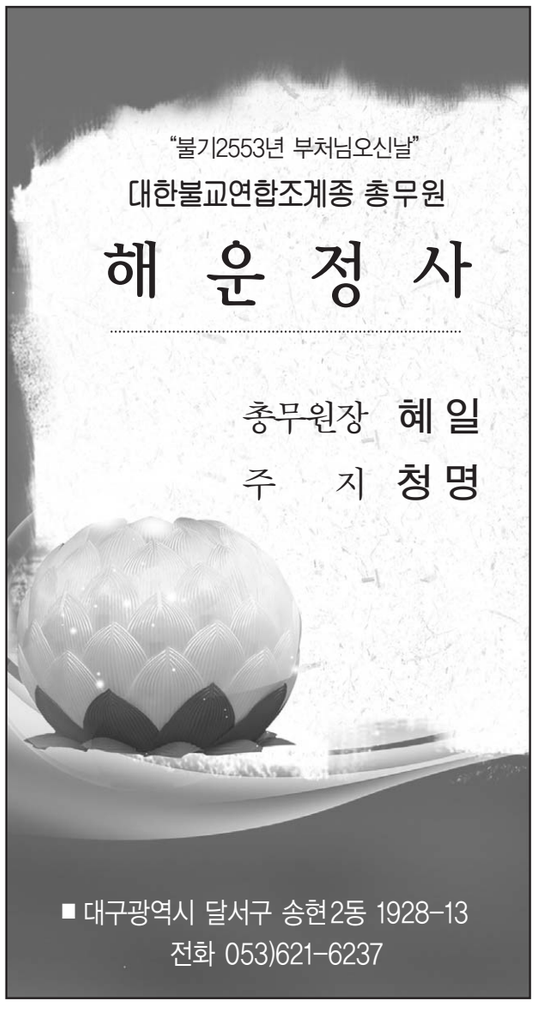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내용
1. 대인불안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최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맞춤식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정)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교수 又佛 김철회 박사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대한웅변 중앙회 회장 역임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 국 설 법 연 수 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1928-13
전화 053)621-6237

해 임 공 고

● 성명 : 최숙경
● 법명 : 혜정 (승적번호 2008-021)
● 직위 : 경남교구종무원장
● 소속 : 대한불교 전국비구니진흥회
● 주소 : 경남 의령군 유곡면 당동리 50번지

위인에 대하여
경남교구종무원장 직위를 해임합니다

불기 2553년 5월 6일

대한불교전국비구니진흥회 총무원장

# “불법이란 오직 한 마음 깨치기 위해 있는 것”






그림 · 최문정

## 해인사 돌아오자 인곡 스님 ‘선지식 찾아라’ ‘경 공부하라’ 당부

## “글 속에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병 걸려도 낫는 도리 있다면…”

해인사의 수행 분위기는 확실히 상원사와 달랐다. 상원사가 웅숭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 그윽하다면 해인사는 수행대중의 열기가 장작불처럼 뜨거웠다. 해인사는 선의 중흥조인 경허 선사가 주석한 이래 선풍(禪風)의 진원지가 되곤 했는데, 그 전통이 해방 이후까지도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다.

갓 출가한 신참 수행자들은 해인사의 활발발한 기운을 좇아서 안거 때마다 찾아들었다. 대중의 치열한 열기도 자신의 구도의지 못지않게 발심의 불을 붙여주기 때문이었다. 그러고 보면 안거 동안 낙오자 없이 용맹 정진하는 데 ‘절반은 수행대중의 힘’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은 아니었다.

해인사 일주문을 들어선 혜암은 대중들의 자유 분망한 분위기에 호흡을 골랐다. 산중암자 같은 데서 무소의 뿔처럼 홀로 정진하겠다고 원력을 세운 혜암이었지만, 그래도 해인사의 수행 열기는 혜암에게 환희심을 내게 하는 매력이 있었다. 마음에 화상(火傷)을 입을 것 같은 수행 열기였다.

혜암은 바로 법당으로 올라가 삼배하고 난 뒤, 인곡이 머물고 있는 요사채로 갔다. 인곡은 여전히 요사채 한 방에 머물면서 퇴설당에서 참선정진도 하고 법당에서 때때로 신도들의 천도재도 지냈다. 인곡은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다가 혜암을 반갑게 맞았다. 인곡은 한암의 소식부터 물었다.

“한암 스님은 어떻게 지내시더냐.”

“한밤중만 되면 김칫독에 소금을 뿌리십니다.”

“그 얘기부터 하는 것을 보니 너도 느낀 바가 있는 모양이구나.”

이번에는 혜암이 인곡의 건강을 궁금해 했다.

“스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나는 퇴설당 좌복이 좋다. 내게는 좌복이 극락 같거든. 건강이 허락하는 한 퇴설당 좌복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인곡은 장좌불와 수행을 하거나 단식정진을 하는 등 목숨을 걸고 정진하는 스님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요령을 부리며 때때로 편함을 좇는 부박한 스님도 아니었다. 불법을 고마워하면서 자신의 성정대로 순한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구경(究竟)을 향해 가는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인곡은 자신보다 법이 높은 선지식을 퇴설당 안팎에서 찾아보라고 다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방에서 물러나온 혜암은 인곡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몹시 의아해했다.

‘은사가 한 분 있으면 그만이지 무슨 선지식이 필요하단 말인가, 또 한 분의 법사가 왜 필요하단 말인가!’

그렇다고 혜암은 인곡의 지시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인곡 앞에서 분명하게 거절하지 못했으므로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혜암은 인곡의 방에서 나와 해인사 경내를 거니는 동안 스스로 다짐했다.

‘스님께서 선지식을 말씀하신 것은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독불장군처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정진해왔던 혜암은 인곡이 말한 의미를 비로소 되새겼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닌 것처럼 정진하라는 것이 인곡의 뜻이었다. 그런 생각에 도달했으므로 혜암은 하안거에 들어 포행 시간을 이용해 구참 수좌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공부한 단계를 점검받거나 애매한 경지를 더 열심히 물었다.

그러나 혜암은 하안거 기간 동안 ‘이 분이다!’ 하고 마음에 계합되는 스님은 만나지 못했다. 자신의 눈에 낀 미망의 비늘을 어지럽게 떨어지게 하는 스님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도 혜암은 구참 수좌들을 믿고 의지했다. 퇴설당에서 용맹 정진한 구참 납자들이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법당의 기둥 같은 당당한 선승들이었던 것이다. 무슨 까닭인지 혜암과는 인연이 맺어지지 않을 뿐이었다. 다른 신참 수행자들이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랐지만 혜암은 그분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까지는 나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혜암의 마음속에 한 분이 있다면 오직 오대산 상원사 조실인 한암뿐이었다.

하안거를 해제한 날이었다. 인곡은 늦은 밤에 공양간 행자를 통해서 혜암을 불렀다. 혜암은 ‘선지식을 만나라’고 당부한 말씀이겠거니 하고 인곡이 주석한 요사채로 올라갔다. 그런데 인곡은 뜻밖에도 며칠 후.

혜암은 범어사로 떠나면서 인곡에게 인사를 했다.

“스님, 이번 동안거는 동산 조실스님 회상에서 나겠습니다.”

“왜 범어사로 가려고 하느냐.”

“해인사에서는 아직 제 눈이 밝지 못해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인곡은 두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다. 인곡이 생각하기에는 동산도 한암 못지않은 선승이었다. 더구나 동산은 인곡과 같은 용성 문중의 선사였다. 동산은 용성의 법맥을 이어받은 상좌였던 것이다.

인곡은 동산이 용성에게 받은 전법게를 아주 좋아했다. 용성이 범어사 조실로 있으면서 동산에게 다음과 같은 전법게를 내렸던 것이다.

**부처와 조사도 원래 알지 못하여**
**가설로 마음 전함이라 했도다**
**운문의 호떡은 둥글고**
**진주의 무는 길구나.**
**佛祖元不會**
**假說爲傳心**
**雲門餬餠圓**
**鎭州蘿蔔長**

그런데 범어사 선방의 질서는 해방이 되면서부터 흐트러져 아직도 어수선했다. 동산이 주석하면서 선풍이 그나마 이어져 오고는 있지만 전국의 이름 있는 구참 수좌들이 선호해 찾아오지는 않았다. 범어사만의 선풍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다.

혜암도 방부를 들여놓고 실망했다. 대중의 질서가 서 있지 않았다. 선방 일과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선방 문이 열렸고, 심지어 어떤 스님은 외출을 나간 뒤 다음날에야 돌아왔다. 그렇다고 젊은 입승이 나서서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세우지도 못했다.

해제 전날에는 선방에 몇 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것도 안거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선방을 지킨 사람은 혜암뿐이었다. 동산은 날마다 죽비를 들고 선방에 들었으므로 입승이 따로 보고하지 않더라도 더 잘 알고 있었다. 입승조차도 산문 밖을 나갔다가 동산에게 들키어 혼이 났던 것이다.

결국 안거증을 받은 사람은 혜암뿐이었다. 동산은 타협하지 않고 엄격했다. 그 누구에게도  안거증을 주지 않았다. 이런 소문은 곧 해인사 선방까지 퍼졌다. 가장 좋아한 사람은 인곡이었다. 인곡은 제자 혜암이 경을 공부하라는 자신의 말을 거절하고 선방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참선공부를 잘했다는 소문에 미소를 지었다.

실제로 인곡은 혜암이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왔을 때 차를 한 잔 우려주면서 칭찬했다.

“지금부터는 네게 글을 배우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른 생각은 일체 버리고 참선만 하라.”

인곡에게 격려를 받은 혜암은 크게 고무됐다. 인곡의 방을 나온 뒤 중얼거렸다.

‘애당초 내가 출가한 것도 한 마음 깨쳐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였지 글공부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은가. 불법이란 많이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 깨치기 위해 있는 것이리라.’

혜암은 아주 홀가분했다. 이제는 어느 선방을 간다고 하더라도 은사 인곡이 흔쾌히 허락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계속>

그런 선승이었다. 그러면서도 대중살림에 보탬이 된다면 장경각으로 올라가 기도하고, 재가 들어오면 법당에서 염불도 마다하지 않는 어진 스님이었다.

“스님께서는 벌써 하안거 방부를 들였습니까. 저도 스님 옆 좌복에 앉고 싶습니다.”

“퇴설당은 이미 방부를 들인 스님들이 많다. 구참 납자들만 해도 벌써 열 분이 넘는다.”

인곡이 말한 구참 납자란 우봉, 청담, 비룡, 범룡, 홍근, 구산 등이었다. 여기에 각지에서 모여든 신참 비구까지 합하면 이미 60여 명이 넘었다. 해인사에 총림이 개설되고 난 이후 가장 많은 스님들이 방부를 들인 셈이었다.

“하안거 전에 너에게 숙제를 하나 주겠다.”

“스님, 무슨 숙제입니까.”

“수행자에게는 은사도 있고 도반도 있고 선지식도 있다. 수행자는 어떤 선지식을 만나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진다. 선지식이란 눈을 뜨게 하여 빛을 보게 하는 사람이다.”

“선지식을 찾으란 말씀입니까.”

“그렇다. 네 눈을 뜨게 해 빛을 보게 하는 선지식이 누구인지 살펴보아라.”

“저에게는 이미 스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은사나 도반도 선지식이라 할 수 있지만 내 말이 떨어진 자리를 잘 살펴 보거라.”

“또 다른 은사님을 찾아보라는 말씀입니까.”

“<화엄경>에 선재동자가 찾아가는 53선지식에는 뱃사공도 있고, 창녀도 있고, 문수보살도 있지만 그건 <화엄경>에 나온 이야기다. 너는 너대로의 선지식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퇴설당에 사시게 될 스님들도 우리 불교의 대들보 같은 분들이다.”

“퇴설당의 구참스님들 중에서 찾아보라는 얘기입니까.”

“퇴설당이 아니라도 네 눈을 뜨게 해줄 선지식이 혜암에게 또 다시 경(經)을 공부하라고 권유했다. 올초에도 강원에서 이력을 보라고 말했던 적이 있으므로 이번이 두 번째의 지시였다.

“아직도 글을 배울 생각이 없느냐.”

혜암은 묵묵히 인곡의 말을 듣고 나서는 말했다.

“스님, 글 속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병에 걸려도 나아버리는 도리가 있다면 글을 배우겠습니다.”

혜암은 인곡의 권유를 또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경이란 밥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뿐, 배부르게 하는 밥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었다. 경이란 병을 낫게 하는 처방전일 뿐이지 치료 자체는 아닌 것이었다.

다음 날에도 인곡은 혜암을 다시 불러 말했다.

“스님이 돼 글을 전혀 모르면 안 된다.”

그래도 혜암은 인곡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은 교가 아니라 선이기 때문이었다. 혜암은 인곡이 더 이상 권유를 못하게끔 간곡하게 거절했다.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되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펼치면 한 글자도 없으되 항상 큰 광명을 놓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글을 배워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곡은 눈을 감은 채 어깨를 흔들었다. 혜암에게 굳이 세 번이나 경을 배우라고 하는 까닭은 자신의 경험 때문이었는데, 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니 할 수 없었다. 인곡은 경전에 두루 밝지 못한 것을 자신의 단점이라고 종종 생각해왔던 것이다.

혜암은 인곡이 글을 권유하는 동안에도 벌써 다음에 안거할 선방만 생각했다. 다음 안거는 어디에서 날까 하고 그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 이왕이면 선지식이 있는 선방으로 가고 싶었다. 먼저 떠오른 곳은 동산이 조실로 있는 범어사 선방이었다.


# 공부하다 죽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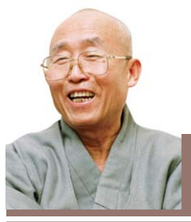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 정진안내

- 2009년 하안거 결제 5월 9일(음 4.15) ~ 8월 15일(음 6.15)
  ※ 윤5월 관계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 2009년 하안거 7일 용맹정진 7월 22일(음 6.1) 03시 ~ 29일(음 6.8) 03시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 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18>

# 부처님 가르침 따르는 유교제자 형성

(726호 이어서) 그 범위는 사부대중은 물론 천룡팔부(天龍八部)까지에 이르니, 무슨 까닭인가. 모든 경이 시작할 때는 사부대중만 모였다고 소개하는데 끝날 때에는 천룡팔부중(天龍八部衆)가 모두 신수봉행(信受奉行)을 다짐하고 물러갔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제자집단을 분류할 때에 우선 외형적으로 보아 재가, 출가로 나누고, 출가대중을 다시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로 나누고, 재가대중을 다시 신남(信男) 신녀(信女) 왕후(王侯) 사서(士庶)로 나누고 있다.

부처님 재세시에는 출가대중을 중심으로, 그 신행의 증승(增勝)함에 따라 평정(評定)했으니, 이른바 십대제자설이다. 십대제자란 1.지혜(智慧)제일 사리불(舍利弗)존자, 2.신통(神通)제일 목건련존자, 3.두타(頭陀=좌선수행하기)제일 가섭존자, 4.천안(天眼=멀리보기)제일 아나율존자, 5.해공(解空=공의도리를이해하기)제일 수보리존자, 6.설법제일 부루나존자, 7.논의(論議)제일 가전연존자, 8.지계(持戒)제일 우바리존자, 9.밀행(密行=남모르게 좋은 일하기)제일 나후라존자, 10.다문(多聞=경전을 기억하기)제일 아난존자이니, 이 어른들이 당대의 교단을 관리하고, 교세를 진작시킨 진정한 대기들이시다.

그러나 오랜 세월, 넓은 지역을 거치는 동안 사회의 상황은 많이도 바뀌어서 교단의 유지방법이 구성원의 조용한 분위걸식(分衛乞食=순방걸식)만으로는 어렵게 되었고, 교세의 유지방법도 일향(一向)에 아란야(阿蘭若)의 삼마제(三摩提)수행만으로는 어렵게 되었으니, 여기에는 주변에서 점진해 들어오는 이교도들의 공세도 있었지만 날로 발전해나가는 외론(外論)의 강성에 따라 전문적인 대응논리와 방어체계가 절실히 필요해졌으니, 이른바 호교(護敎) 호법(護法)논리이다.

그래서 불법의 동점기(東漸期)를 전후해서 두드러지게 부각된 불제자의 덕목에는 호교(護敎)와 신이(神異)등이 추가되었으니, 그 이유는 불교는 토착화하려고 애쓰는데 기존의 도교(道敎)는 그것을 막으려 하니 한 바탕의 각력(角力=실력대결)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 여러 고승 대덕들이 평소에 닦은 도력과 법력을 다해 싸워서 이겨냈으니, 저간(這間)의 상황(狀況)은 불화법본내전(佛化法本內傳)에 전한다.

불화법본내전의 본 이름은 한현종개불화법본내전(漢顯宗開佛化法本內傳)이니, 후한(後漢) 명제(明帝) 영평(永平)십삼년(서기70)에 불교가 처음 중국에 들어오면서 도교와의 마찰을 묘사한 내용이다.

## 부처님 재세시 출가대중 중심 신행 증승 따라 평정
## 사회 상황 맞춰 교단 유지 위한 호교 호법 논리 나와

**유교제자**

유교제자(遺敎弟子)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그 어른이 남겨주신 교법(敎法)에 의해 불법을 배워나가는 제자들이라는 뜻으로서 위로는 역대조사로부터 아래로는 황공스럽지만 우리들도 그 부류에 속한다. 따라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직접 뵈옵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불법을 배운 이들은 그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뜻에서 성문제자(聲聞弟子)라고도 하고, 혹은 항상 부처님은 따라다녔다는 뜻에서 상수제자(常隨弟子)라고도 한다.

이 유교제자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집단이며, 낱말이지만 부처님 생존 시에도 이미 부처님께서 예견(豫見)하신 바이니, 예컨대 모든 경에서 목전의 상수제자들을 상대로 갖가지 법을 설하시고는 반드시 당신께서 열반에 드신 뒤의 말법(末法)중생을 위한 말씀을 꼭 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 증좌(證左)이다.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부처님 안계시는 세상에 태어나서 불법을 배운다는 애처로운 사연도 있겠지만 이 유교제자들의 활동여하가 부처님의 명맥(命脈)인 혜명(慧命)을 이어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각별하신 호념(護念)을 베푸셨다.

봉선사 조실

# '부처' 만 남기고 다 쓸어라

## 보성 스님의 따뜻한 호통 담은 에세이 '나에게 가는 길 청소'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이 효봉 스님(1880~1966) 시봉할 때 얘기다. 하루는 효봉 스님 신발이 바뀌어 있어서 바로 놓아드렸다. 그런데 또 보면 거꾸로 놓여 있다. 속으로 '이 어른이 왼쪽 오른쪽 분간도 못하나' 하고 생각하면서 또 바꿔놨다.

그러던 어느날 효봉 스님이 말했다.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가만 놔둬라."

"스님은 오른쪽 왼쪽도 모르세요?"

"내가 그걸 모를 리 있나."

"그럼 신발을 왜 반대로 놓으세요?"

"다 이유가 있지."

"무슨 이유요?"

"바로만 신으면 바깥쪽으로만 닳잖아."

보성 스님은 그제야 이유를 알게 됐다.



보성 스님.

세상과 수행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호통을 치면서도 따뜻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의 지혜와 가르침이 담긴 법어집 <나에게 가는 길 청소(淸素)>가 에세이 형식으로 출간됐다.

이 책에서 보성 스님은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맑고 소박하게 가꿔간다면 그것이 참다운 나에게 가는 길이라며 이렇게 당부한다.

"간절히 남을 따라 찾지 말라. 점점 나하고 멀어간다. 지금 내가 스스로 가니, 가는 곳마다 만나는구나."

여기서 '나에게 가는 길'은 바로 깨달음을 향한 길이다. 그러나 스님에게 있어 '깨달음'이란 어려운 화두가 아니다. 일상의 언어로 말할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다.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부처입니다. 스스로 중생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 '나'는 사라지게 하고 '부처님'만 남게 하는 것, 부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이 책에는 각종 법어와 스승과 제자, 학문과 가르침에 대한 마음가짐, 효봉 스님 손상좌 시절의 일화, 달라이 라마와의 인연, 한국불교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절집에 사는 의미 등 오늘을 열심히 살 것을 강조하는 간명하면서도 자상한 가르침이 가득하다. 수행이든 울력이든 공양이든 늘 솔선수범하며 청정하게 생활해 온 스님의 삶 자체가 법문임을 유머 가득한 글을 통해 느낄 수 있다. 맑고 소박하게 사는 삶 즉, '청소(淸素)'가 '참나에게 가는 길'임을 스님은 언행일치의 삶을 통해 웅변하고 있다.




Y브릭로드 펴냄/1만원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 정토신앙의 '조용한 혁명'




**범본 한역본 티베트어본 아미타경**

최종남 외 역주|경서원 펴냄|1만2000원

아미타불이 주관하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대한 신앙은 2500여 년 불교 역사와 함께 커다란 조류를 형성해 왔다. 인도에서는 2세기 때의 용수와 4세기 중엽의 세친을 거치면서 신앙적 골격을 잡았고 중국으로 전해져 크게 발전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토신앙은 관음, 미륵 신앙 등과 함께 대표적인 불교 신앙으로 신봉되어 왔다. 이 같은 신앙은 남방불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북방불교에서 발전 전개 됐다. 기후와 풍토 생활관습 등이 어우러지는 이유일 것이다.

정토 신앙의 핵심 경전인 <아미타경>은 아미타 부처님과 그 세계를 설명하는 길지 않은 경전이다. 중국에서는 구마리집와 구나발타 현장 등 대표적인 역경보살들이 번역했다. 그 후 주석서를 쓴 사람은 수 없이 많다.

현재 유통되는 <아미타경>은 한역에 의존하고 있다. 중앙승가대학교 불전국역연구소가 범본과 티베트어본을 대조하며 오늘날의 어법에 맞게 번역 주해한 <아미타경>을 내놓은 것은 정토 신앙에 있어 '조용한 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연태 기자

# Don't know! 마음 비우는 길 찾기




**마음 거울**

청안 스님 지음

김영사 펴냄

1만2000원

"스님, 왜 굳이 한국불교를 알리려는 겁니까?"

한 기자의 질문에 청안 스님(원광사 주지)은 "인연"이라고 대답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 신비하고도 깊고 푸른 눈을 가진 헝가리 출신 청안 스님은 숭산 스님(前 화계사 조실, 1927~2004)을 만나서 불교에 귀의하고 스님이 된 그 모든 것이 '인연'이라고 말한다.

<마음 거울>은 2004~2007년 스님이 체코, 노르웨이, 프랑스 등지에서 열린 법회에서 법문 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카르마란 무엇인가요?" "스님, 저는 수행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점이 저의 장애물입니다" "'모른다'라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설명해주십시오."

유럽 도반들의 질문은 자유롭지만 날카롭다. 스님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소수의 사람들만이 인간이 만든 문제인 것을 알고 있다"며 "무지로 인해 분노와 욕망이 생겼고 이는 악순환을 만들어간다. '오직 모를뿐(don't know)'으로 마음을 비우며 살아가야한다"고 방법을 제시한다. 현재 스님은 3년 전부터 헝가리에 유럽 최초의 한국식 사찰인 원광사(www.wonkwangsa.net) 건립 착수 불사에 매진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 월호 | 마음의 숲 |
| 2 | 아름다운 마무리 | 법정 | 문학의 숲 |
| 3 |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 월호 | 운주사 |
| 4 | 인과경 | 현담 | 선 |
| 5 | 행복한 출근길 | 법륜 | 김영사 |
| 6 | 광명진언기도법 | 일타, 김현준 | 효림 |
| 7 |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 법륜 | 정토 |
| 8 |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 김재성 | 알모미디어 |
| 9 |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 청견 | 붓다의 마을 |
| 10 | 스님도 군대 가나요 | 지장 | 클리어마인드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 지 사 명 | 연 락 처 | 지 사 명 | 연 락 처 |
|---|---|---|---|
| 부 산 지 사 | 051)632-0064 / 011-847-1211 |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 016-629-1508 |
| 대 구 지 사 | 053)768-8008 / 016-813-8008 | 전 북 지 사 | 063)910-8977 / 011-9642-7733 |
| 충 청 지 사 | 043)732-5560 / 010-9422-8453 | 영 주 지 국 | 054)634-3429 / 011-9373-3778 |
| 경남 동부지사 | 055)353-1196 / 017-650-1196 | 경남 남부지사 | 055)746-9778 / 011-870-0021 |
| 경남 서부지사 | 055)355-7472 / 011-9312-2228 | | |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전강 대선사님과 대원 선사님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창같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량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값 15,000원




말계 지은 선사
기우목동가

그 뜻이 심오하여 번역하기 어려웠던 말계 지은 선사의 기우목동가!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바른 뜻이 드러나도록 번역하고, 간결한 결문과 주옥같은 선송으로 다시 보였다.

값 10,000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전체목록

전등록 전5권 / 무문관 / 벽암록 / 천부경 / 금강경 / 신심명
증도가 / 반야심경 / 선문염송 전30권 중 12권 / 환단고기 전5권
법융선사 심명 / 선가귀감 / 법성게 / 주머니 속의 심경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기우목동가
선을 묻는 그대에게 1,2권 / 세월을북채로세상을북삼아 / 달다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바른불안

# '화선일여' 선정에 빠지다

## 동성 스님 백악미술관 · 뉴욕 플러싱오픈센터서 '선화전'





'달마좌선도'(위)와 동성스님(오른쪽).

33년간 문화포교에 매진해 온 선화가(禪畵家) 동성 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이 한창 그림공부에 몰두할 때 일화다. 21세 때 서울 성북동에 있는 운보 김기창 화백의 자택을 찾은 스님은 한 수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자 운보는 필담으로 선문답을 던졌다.

"세속을 떠난 승려가 왜 세속을 찾아왔나요?"

"세속을 떠난 불법이 없고, 불법 속에 세속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속은 어떤 세속입니까?"

이날 첫 대면에서 의기상통한 두 사람은 네 시간 동안 필담을 주고받았으며, 운보는 동성 스님에게 7일 후 매화를 가지고 오라고 일렀다. 약속한 날, 스님은 매화를 구하지 못해 은행나무 분재 하나를 들고 운보를 찾았다.

그러나 운보 선생은 매화를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매화 한 폭을 그려주겠다고 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당대의 화가인 운보로부터 몇 달 동안 계도(啓導)를 받은 동성 스님은 자신있게 그림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화선일여(畵禪一如)의 정진에 몰두해 온 동성 스님이 화업(畵業) 30년을 정리하는 의미있는 전시회를 잇달아 갖는다. 불교신문(사장 혜자)이 4월 30일~5월 6일 서울 관훈동 백악미술관에서 저소득 실직가정을 위해 주최한 '동성 스님 초대 선화전'과 뉴욕불교사원연합회(회장 원영)가 주최하는 5월 10~16일 뉴욕 플러싱 오픈센터에서 여는 '둥글고 밝은 빛 선화 표현전'이 그것.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둥글고 밝은 빛'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선화전에서는 달마상, 천진불, 미소동자 등 6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에 출품된 선화들은 동성 스님의 선화세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수작들로 더욱 관심을 모은다. 특히 10일 뉴욕 플러싱 오픈센터에서 500여 명의 예불로 시작되는 선화 표현전은 새로운 문화프로젝트로 주목된다. '둥글고 밝은 빛'이 암시하듯 부처님은 과연 무엇을 깨달았는가,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인가 를 화두로 고요하고 지혜롭고 행복한 열반묘심(涅槃妙心)을 찾는 선화 작업의 진수를 보여줄 전망이다. 뉴욕 선화전에는 동성 스님 작품 외에도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을 비롯해 성파, 원응, 수안 스님의 작품도 선보인다.

동성 스님은 1964년 양산 통도사에서 정덕 스님을 은사로 동진출가해 일찍부터 선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창작에 몰두해 왔다. 1976년 '한 송이 연꽃이 되어 전'을 시작으로 1993년 '깨달음과 자유의 달마도 전', 2002년 '공-다르마 전', 2005년 '둥글고 밝은 빛 전'등을 통해 33년간 부처님 가르침을 말없이 전해 왔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스님은 인류의 평화제전인 월드컵의 정신과 일체만유의 근본자리인 공사상(空思想)을 연계하는 상징적 의미로 '공을 든 달마', '공을 메고 온 달마' 등의 선화를 창작해 호평을 받았다. 또한 중국 섬서성미술관, 일본 고다이지 전시관에서 '공-다르마 특별초대전'을 열어 한국 선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이때부터 스님은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스님은 2005년부터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이루자는 원력으로 일본 오사카 한국총영사관, 나고야 아이치켄 문화센터, 도쿄 주일한국대사관에서 '둥글고 밝은 빛 전'을 열어 주목받았다. 이에 일본의 고승 양응(亮應) 스님은 "동성 스님의 선화는 오랜 구도과정을 거친 대승보살의 자비와 지혜의 원력이 담겨 있다"고 평했다. 스님의 선화는 현재 일본 오사카 사천왕사(四天王寺), 히메지 원교사(圓敎寺) 등에 소장돼 있다. 2006년에는 중국 시안 대흥선사(大興善寺) 방장 계명(界明) 스님은 경내에 '사문 동성 달마화비'를 건립하면서 법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선미술인회 대표를 맡고 있는 동성 스님은 "선화를 창작하면서 번뇌를 고요한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편으로 '상구보리(上求菩提)'하고, 선화전을 통해 대중들과 함께 선(禪)으로 향하는 구도행을 통해 하화중생(下化衆生) 하게 된다"며 문화포교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010)9902-1858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 '팔공산 동화사' 박물관서 만나

### 8월 16일까지 국립대구박물관



국내 최초의 사찰전시회인 '팔공산 동화사' 특별전이 4월 27일 국립대구박물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8월 16일까지 전시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전에는 마애불 좌상 탑본과 민애대왕 사리항아리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을 비롯해 아홉 마리 용이 달린 거북모양 받침 등 80여 점의 성보문화재가 선보이고 있다. 또 보조 국사, 홍진 국사, 사명 대사, 기성당 스님 등 팔공산과 동화사를 빛낸 고승들의 진영도 함께 전시됐다.

전시회를 주관한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동화사 특별전이 사찰 문화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와 교계 내부의 문화재 보존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립대구박물관 이내옥 관장은 "천개가 넘는 국내 전통사찰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면서 "동화사를 시작으로 많은 사찰 단위 전시회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팔공산 동화사 특별전'은 동화사의 역사와 가람 구조, 아미타불 신앙 등에 관한 다양한 해설 자료와 함께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공개된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보문화재의 전시가 늘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금강경' 3가지 방식으로 형상화

### 10일까지 갤러리 진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금강경>을 주제로 하는 이색 작품전이 4월 28일~5월 10일 서울 종로 갤러리 진선에서 열린다.

중국 청해 태생으로 대표적 불교작가 왕지에(王揩)의 '있거나 없는 답'전은 <금강경>의 5115자를 소재로 3가지 방식을 통해 <금강경>의 메시지를 형상화 했다. <금강경> 5115글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글자들을 하나씩 찍어낸 작품과 글자를 하나하나 조각해 이를 다시 만다라로 형상화한 만다라 작품, 금강경 글자들로 법륜 조형물을 형상화한 작품이 그것이다.

왕지에는 "금강경을 하나 하나 떼어내 놓으면 그 자체가 또 개별적으로 해체되지 않는 또 하나의 전체를 이루다는 점에 착안해 작품전 이름을 '있거나 없는 답'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02)723-3340



왕지에의 만다라로 형상화된 <금강경>.

김성우 기자

## 心像 사진전

### 무상법문 설하며 등불 밝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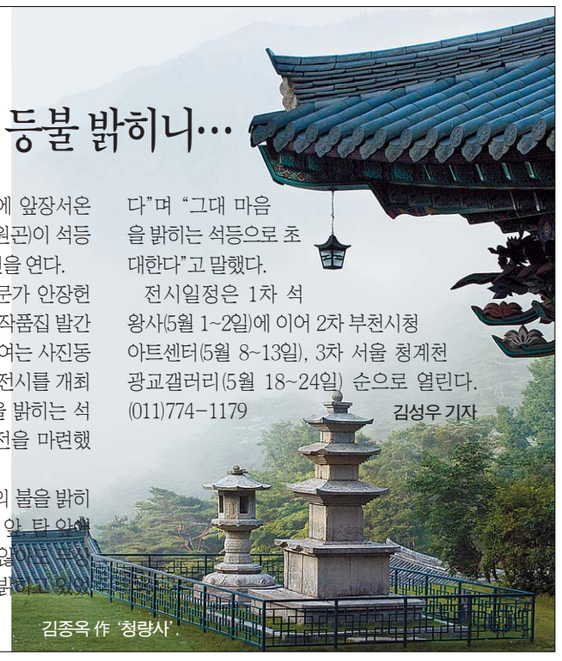
사진전을 통한 불교문화 전파에 앞장서온 사진동우회 '심상'(心像, 회장 김원곤)이 석등을 주제로 창립20주년 특별기획전을 연다.

'심상'은 불교 문화재사진 전문가 안장헌 선생의 지도로 매년 주제를 선정, 작품집 발간과 함께 불교 사진전을 전문으로 여는 사진동아리. 매년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전시를 개최해온 심상은 이번에 '그대 마음을 밝히는 석등'을 주제로 5월 1~24일 기획전을 마련했다.

김원곤 회장은 "일년동안 마음의 불을 밝히려고 석등을 찾아 헤매었다. 금당 앞 탑 앞에 서 있는 석등은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illegible] 법문(無常法門)을 설하며 등불을 밝히고 있었다"며 "그대 마음을 밝히는 석등으로 초대한다"고 말했다.

전시일정은 1차 석왕사(5월 1~2일)에 이어 2차 부천시청 아트센터(5월 8~13일), 3차 서울 청계천 광교갤러리(5월 18~24일) 순으로 열린다. (011)774-1179

김성우 기자



김종욱 作 '청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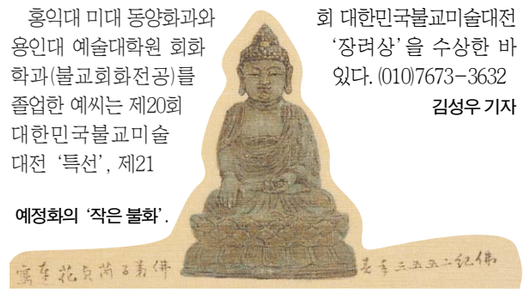
## '작은 불화' 봉안 예정화 작품전

불화작가 예정화(芮貞花)의 두 번째 불교회화전이 5월 4~12일 울산 현대백화점 울산점 갤러리 H에서 열린다.

작가는 불화를 배우는 과정을 보여 주었던 첫 전시에 이어 이번 전시에서는 '작은 불화'를 화폭에 옮겨 봉안하고자 했다. 예정화 작가는 "천천히 호흡과 마음의 흐름을 살피며 불보살님을 옮겨 내는 동안 이미 '나'라는 작가는 존재하지 않는 듯 느껴진다"며 "진실한 내면의 '자기 부처'를 찾아 가는 과정이 곧 그 시대 불화를 '창신(創新)'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고 말했다.

홍익대 미대 동양화과와 용인대 예술대학원 회화학과(불교회화전공)를 졸업한 예씨는 제20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특선', 제21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010)7673-3632

김성우 기자



예정화의 '작은 불화'.


# 차용품전문회사 홍다원

**홍다원**이 위치한 북촌지역(가회동, 삼청동 일대)은 조선시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의 사이에 위치해 서울 600여년의 역사와 함께 한 전통 거주지역입니다. 주변에는 북악산과 인왕산이 있어 예로부터 길지(吉地)로 알려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홍다원은 중국 전통의 보이차와 다구용품을 전시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 보이차와 한옥의 멋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따스한 공간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수집한 50여가지의 골동품도 전시하고 있어, 차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이차**

홍다원은 10년 전부터 주재원이 상주, 곤명의 운남성 차엽공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 전시된 보이차 · 목공예 작품과 함께 차를 시음하실 수 있는 공간

**자사호**

홍다원의 자사호는 이싱(宜興) 정산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의뢰한 작품을 취급하며, 고객이 원하는 작가의 작품 또한 주문생산하고 있습니다.





■ 퇴수기와 각종 차용품, 보이차를 진열한 공간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74 www.hongdawon.com
TEL : 02)744-3311 / FAX : 02)744-3700

희담석 稀潭石

www.jawone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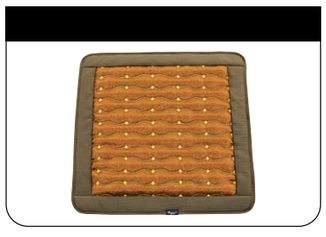
# 생명에너지의 방사력과 투과력이 탁월한 희담석 의료기, 온열매트 출시!!!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과 투과력이며,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 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세탁가능)**
제품구성 : 희담석볼 찜질기 외피 + 온도조절기 + 열판 (전자파가 거의 없는 무자개열선 사용)
내 용 물 : 희담석 60% + 제오라이트(Zeolite) 40%
제품크기 : ① 100cm x 50cm (사진) 가격 250,000원
② 165cm x 65cm 가격 480,000원

사은품
숙면을 도와주는 희담석 베개패드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02)3476-2335 FAX:(02)3476-2505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25 어느 주당의 강좌 2편

# '변신의 귀재' 명태이야기

"그러니까 잘 들어보라고. 황태와 북어는 질이 달라. 일단 북어는 잡아서 그냥 말린 거고, 황태는 가을에 잡아서 민물에 씻어갖고 바닷물을 빼. 그래서 덕장에 걸어놓고 비 맞추고 눈 맞추고 바람 맞추고 열 받게 하고 이렇게 적어도 다섯 달 동안 말린 게 황태야. 그러면 이놈이 그냥 그렇게 누워만 있었겠어? 안에서 오만 화학반응을 일어나면서 약성 높은 황태가 되는 거야."



황태, 북어, 생태, 코다리, 노가리로 변신하는 명태.

황태탕에 이은 양 국장님의 황태 강좌는 과히 천하의 '주당' 답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예전에 '시래기가 약'이라며 시래기 예찬론을 폈던 한 스님의 말이 떠오른다. 겨우내 처마 밑에서 햇볕과 눈, 비와 바람을 맞으며 견뎌 숙성된 시래기가 어찌 약이 아닐 수 있겠냐는 얘기였다. 그러니 황태탕을 약으로 복용한다는 양 국장님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모진 시련을 넘어선 끝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실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테니, 우리네 삶이나 먹을거리나 그 이치를 따지고 보니 매한가지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좀 정리가 되지? 그러면 북어나 황태 이전에 원조는 무엇인고하면 바로 명태야. 그게 '명'자도 '태'자도 태양을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해 태양의 기운을 받고 자란 고기라는 거지. 그러면 이놈을 원양어선에서 실어올 때 얼리면 동태가 되고 그냥 오면 생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국장님, 코다리는 뭐요?"

양 국장님의 열띤 강좌에 심취해있던 박언니의 질문은 추임새가 돼 황태강좌는 더욱 흥에 겨워진다.

"명태라고 잡긴 잡았는데, 이게 꿰서 말릴 정도의 형편은 안 된 거지. 그래서 약간 삐둥삐둥하게 말려갖고 내보낸 게 바로 코다리야. 또 노가리라고 있지? 그놈도 명태새끼인데 그물에 잡혀 올라왔으니 어떡해. 먹게 만들어야 될 거 아냐. 그래서 그건 맥주안주가 된 거지."

"아니 노가리도 그 놈이었어요? 명태가 둔갑을 잘하네."

황태탕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어느덧 맥주안주인 노가리로 술술 넘어가니 이만하면 황태학 박사가 따로 없다. 종로일대에 황태탕을 파는 집이 단 한곳도 남아있지 않다며 서운함을 금치 못하던 양국장님의 푸념은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황태탕으로 이어진다.

"종로나 광화문 일대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제대로 된 황태국을 파는 집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밤에는 정종 대포집을 하고 아침 저녁엔 황태탕만 끓여 파는 거야."

박언니의 가게를 황태탕 전문점으로 바꾸려는 주당다운 발상은 술 문화의 시대적 흐름이나 황태탕 전문점이라는 희소성의 이점만 따져 봐도 대박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여태껏 경청하던 쥔장언니, 싱겁게 하는 소리좀 보소.

"그런데 자기가 좋은 걸 해야지. 그건 너무 성가실 것 같네."

"그려. 하긴 뭐 똥도 삐뚤어지게 누는 놈이 있고 반듯하게 누는 놈도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지."

모종의 의도가 숨어 있던 양국장님의 황태탕 강좌는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두 사람은 미련도 없는 듯 다음 주제로 화제를 옮긴다. 그런데 하필 하고많은 비유 중에 '똥'인가?

"시골에 안살아 봐서 모르지? 옛날에 시골에선 화장실에서 똥을 다 퍼내면 물을 붓거든. 그래서 똥을 누면 그 물이 텅벙텀벙 튀어 올라오니까 거기에 된겨나 풀이나 짚을 썰어 넣는다고. 그런데 우리 이모는 그래도 튈까봐 똥을 눌 때 꼭 삐뚤어지게 눠서 외할머니랑 늘 싸웠거든. 그래서 할머니가 '사람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잘 썼지."

황태탕으로 시작된 강좌는 어쩌다 '똥 강좌'로까지 이어지고, 그 옛날 옹기를 머리에 이고 팔러 다니다 대머리가 됐다는 억척스런 이모 이야기에, 우물가에서 담뱃대를 물고앉아 빨래하러 오는 아낙들에게 조기를 팔던 조기장수의 에피소드까지 이야기고개는 굽이굽이 넘어간다. 이제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지난날의 기억들을 서너 병의 맥주에 묻고 나서야 양국장님의 강좌는 끝이 났다. 그런데 황태탕 전문점에 대한 미련이 엄한 이에게 전이돼 마음 한 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니, 아무래도 업종은 내가 바꿔야할까.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31 사랑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착각

우리가 항상 사랑에 있어서 절망하는 이유는 사랑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에 빠지는 순간 사랑을 가장 협소한 공간에 가둬 두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에 있어서 또 하나의 오류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 한다'는 착각이다. 사랑은 대상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특정한 대상을 향해 사랑을 머물게 하고자 한다. 사랑은 주체적이어야만 하고,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사랑 그 자체로 존재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다.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에 우리는 상대에게 질문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도 되나요?" 그러나 그 질문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 "내가, 사랑 그 본성 자체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어떤 대가를 돌려주는지에 대해 연연하지 않는다.

# 존재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은 물건이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소유할 수는 없다. 인간은 존재 그 자체다. 나의 남편이, 나의 와이프가, 나의 자식이, 나의 연인이, 내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물건이 아니고 소유의 대상이 아니기에 살아있는 존재를 사물로 전락화 시키는 것보다 나쁜 짓은 없다. 사랑은 자유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소유하고 붙잡아 두려고 함으로 사랑을 파괴하는 구덩이를 스스로 파지 말아야 한다. 나도 상대를 소유하지 말고, 상대도 나를 소유하게 만들면 안된다. 한 사람에게만 집착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다. 더 성숙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돼야만 한다.

# 사랑하는 마음은 질투하지 않는다

질투는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보편적인 현상 중의 하나이다. 증오와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사람은 독을 품게 되고, 사랑의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박살나게 돼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관념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박혀 있기에 "사랑한다면 당연히 질투심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그건 사랑과 질투가 완전히 뒤죽박죽 뒤섞여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질투하는 마음은 사랑할 수 없으며 사랑하는 마음은 질투하지 않는다.

사랑에 있어 소유하고 집착하고 질투하는 것은 누구보다 자비의 마음을 갖고 수행해야 하는 종교인들이 종교전쟁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이다. 으뜸되는 가르침인 종교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베풀어야 하는 것처럼, 자유와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사랑의 근본이기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고정된 관계가 아닌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자유하게 하고, 더 넓게 성숙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 사랑은 고정된 것, 불변하는 것도 아니다

사랑에 대해 '영원'이다 '순간'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영원한 사랑도 있고 순간적인 사랑도 있다. 사랑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내 사랑이 영원히 돼야만 한다는 생각, 순간이면 어쩌나 라는 생각에 사로 잡혀 괴로워 할 것 같으면 사랑을 할 자격이 없다.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무의미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시간이 있는가? 항상 깨어 있고 열려 있어야만 한다.

항상 사랑이 지속된다면 축복 받은 일이고, 순간적인 사랑으로 인해 다음 사랑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전까지의 사랑에 대해 감사할 일이다.

내가 황폐화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 · 그녀를 잃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영원히 잡아 두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한데에 대한 자괴감이며, 그 노력 자체가 이미 나에게서 사랑을 잃게 만드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02)576 -7575



정성근 거사의

## 천년초 이야기 5

# 쾌식·쾌변 돕는 섬유질 다량 함유

쾌식(快食)은 자연이 준 것 전체를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알려진 하루 필요량의 영양소와 칼로리를 기준으로 전문영양사가 짠 식단을 따르는 의사들보다 속세를 버리고 수행을 하시는 스님께서 더욱 장수하는 것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쾌식의 비밀 즉, 대자연이 준 그대로 전체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섭취를 한다는 것이다. 자연이 준 그대로의 섭취 그것은 다시 쾌변(快便)으로 이어지는 순리가 숨겨져 있다.

스님들의 섭생에서 가장 많은 양이 섭취되는 것이 바로 섬유질이다. 육식을 금하고 곡물과 채소 그리고 산나물을 섭취하는 스님들은 먹는 전체 양에서 거의 대부분이 섬유질이라 할 정도다.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섭생을 하면 우선 씹는 것에서부터 소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먹을 때는 일단 오래 씹어야하며 이를 통해서 침 속의 아밀라아제 덕분에 탄수화물의 소화가 완벽히 일어나게 된다. 이와 반대로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주식은 입의 소화가 전혀 필요 없는 형태로 부드럽고 쉽게 삼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씹어 먹는 습관보다는 입속에서 녹여 흘려들어 가듯 식사를 하며 식사와 동시에, 또는 식후 침을 희석시키는 수분을 다량 섭취하는 식습관을 갖고 있다.

탄수화물 대사에서 자연의 섭리는 모두 섬유질을 넣어줬다. 하지만 현대인은 섬유질을 제거하고 먹는다. 만약 자연이 준대로 섬유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섭취한다면 우리는 입에서 오래 씹고 삼키게 될 것이고 섬유질이 몸속을 통과하고 내장을 통과하면서 입속부터 침(아밀라아제)이 충분히 흠뻑 배어있는 탄수화물을 담게 된다. 이 경우 우리 몸속의 소화기들은 섬유질과 침을 이용해 곡물에서 충분히 탄수화물을 흡수해 당분을 만들어 온몸에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소화내장은 섬유질 속에 담겨있는 영양분을 뽑아내 섭취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내장 자체가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다.

섬유질식은 위에 언급한 것처럼 몸속의 내장들이 엄청난 운동과 내장의 깨끗함을 동시에 인체의 밸런스까지 고려한 식사이기 때문에 식사방법을 오래 유지하면 우선 몸이 뜨거워진다. 즉, 손발이 차거나 하는 현상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힘이 매우 증가하고 언제나 시원한 배변활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섬유질 섭취는 결코 쉽지 않다. 때문에 필자는 현대인으로서는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천년초를 권하고는 한다. 천년초는 지구상의 어떠한 채소보다 섬유질이 많기(최소 3배에서 171배) 때문이다. 100g의 천년초 속에는 무려 5g의 섬유질이 들어있다. 천년초가 가지고 있는 극히 일부이지만 쾌식과 더불어 쾌변까지를 해결해주니 정말 조상님들께서 부르신 태삼이 아닐 수 없는 천년초다. (02)3663-6777


#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개강일 : 5월 11일(월요일)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불자님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자녀의 가출, 습관, 성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유마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이야기**



# 가루향으로 침향차를 우려드시는건 피해야

또한 침향을 가루향으로 즐기고자 구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현지에서 침향 가루를 구하는 건 재고하시고 차라리 일반 침향조각을 구해서 분말화해서 사용하시라고 권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관광가에서 1kg정도의 단위로 비닐봉투에 넣어서 팔고 있는 침향의 분말들은 침향의 가루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침향의 모든 조화는 수지 즉 기름성분에서 나오는데 판매되는 침향분말은 그 수지를 추출하고 남은 가루이기에 드리는 말씀이다.

능인향당에서도 처음에 그 가루들을 선향의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가능성을 검토했었으나 여러 곳의 가루향들을 수거하여 조사해본 결과 순수한 AAR의 가루향을 파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또한 침향의 분말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수지를 추출하고 남은 침향분말이거나 또는 유사종의 분말이었는데 그나마 그 분말조차도 수지를 빼고 남은 가루였기 때문에 결국 포기를 하고 말았다.

침향의 수지는 알코올로 추출하면 통상 70% 정도를 추출할 수 있는데 화학처리를 한다면 거의 다 추출할 수가 있다. 그러나 화학처리를 한다면 남은 가루에서는 유해독소가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그 가루는 폐기를 해야 되겠지만 수지를 빼고 남은 2~30%의 가루에서도 침향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그들은 악용한다는 것이다.

하기야 관광객들과 상인들에게 잘 팔리는 그 가루를 상인들이 왜 포기를 하겠는가?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가루를 구해서 피운다면 수지를 추출하고 남은 2~30%의 침향 냄새로 만족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다.

문제는 이 가루를 침향차로 우려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극히 삼가 하셔야 할 일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침향 선향의 문제이다. 베트남이나 대만에서 파는 선향은 거의가 수지를 빼고 남은 그 분말을 이용하여 선향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수가? 하시겠지만 베트남이나 대만에서 구한 침향 선향을 가지고 계시다면 문을 닫고 피워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이러한 재료로 만들어진 선향의 특징은 타고남은 재가 2~3cm 정도 일직선으로 꼿꼿이 서있는데 그 이유는 향연기를 줄이고 접착제의 독소를 제거하고자 재(灰)를 첨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재 자체가 접착제와 경화를 일으켜 꼿꼿이 서있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향은 좁은 공간에서 피웠을 때 두통을 유발하거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문제는 그 경화된 향의 접착제와 재에서 독소가 나온다는 것인데 우려되는 건 그들이 과연 그 사실을 알고나 유통 시키는가 하는 점이다.

선향을 제조할 때는 일반적으로 고무나무에서 추출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향을 제조하게 된다. 그러나 고무나무 접착제가 타는 냄새는 자동차의 타이어가 타는 냄새와 같다. 그러다보니 이번엔 역한 접착제 냄새를 가리기 위하여 화공약품인 톨루엔이 첨가된 화학향료를 첨가하는데 이 톨루엔이 타면서 바로 벤젠이나 클로로포름, 아세틸콜린 같은 유해성분이 나오는 것이다.

■ 문의전화 02)3663-6777

#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종교법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 류 대 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역학, 빙의, 퇴마법, 전수**
역학, 빙의, 퇴마법, 전수
명리학, 주역, 매화역수
성명학, 풍수지리
실제 감정 위주로 속성 개인지도
빙의 퇴마법 속성 개인지도
010-7443-3060
(도통 합장)

**전통 불교 범음범패 전수원**
기초반,중급반,고급반,전문반
(전문의산소리,사물다루는법,
불교 전통무용, 각정 제의식)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실전위주로 여법하게 행사 할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051)555-0969
011-849-0961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소원성취기도**
대학입시, 사업성공, 스트레스
우울증,변비,각종 집안 우환,아들딸 액운소멸
※가정방문기도와 상담도 합니다※
봉사활동 및 포교활동 하실 분
노후생활 회향을 잘 하실 분
지장경 테이프를 드립니다. 상담환영
010-7797-4355/016-787-3977
꿈바위 불교교육원
010-6789-5008

**신비의 게르마늄 팩**
(노벨상 2회 수상)
탁월한 피부 미백, 매끈하고
보드라운 피부 잔주름, 기미,
칙칙한 피부 노화방지 100mg 2만
오사카대학공학박사(다까마스세이지)인정
(주)리코포오래이숀
농협 187-02-274348 이양희
주문 010-2414-4984

**빙의,49재,태중영가**
알콜중독,우울증,자녀문제
묘터장애,사업부진,장기수양,기도
*SBS 등 TV 다수출현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054)383-8553
011-9585-4908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우주大광명 천기(氣)도법**
- 병원치료도 잘 안되고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분
- 가정불화, 질병, 우환 등 하는일이 잘 안되는분
- 조상천도가 잘 안되거나 귀신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빙의, 영적장애, 정신질환, 유전성질병, 불임여성
- 알콜중독, 우울증, 두통, 불치병, 수술 전후관리

※특별한 우주氣 치유로 건강을 찾아드립니다
031)321-9555 일광사
011-586-6091

문화재를 소장하고있는 법납 30년 조계종 비구승 단시일내 불사가능하니 서울 · 경기근교로 도량을 맡겨주실 귀한인연기다립니다
010-4500-8234

비구니 사찰 공양주 모십니다
(40-50대, 숙식 가능한 분)
053)854-2178

- 불자님께 맞는 기도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숙면을 취하시지 못하시는 분,
- 원인모를 통증에 시달리시는 분.
- 우울증, 공허감,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시는 분.
- 빙의, 수맥차단, 태아령 천도 무료상담

표심스님 010-7588-4504

기도 수행정진 하면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종무소 근무 할 불심이 강한 여 직원(PC가능자) 구함
숙식 제공,출퇴근가능
▷경북 군위면
054)383-0407
010-2750-4394

비구니기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011-9491-922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5323-7706

**금강경 반야심경 (달마도)**
열심히 써 드리겠습니다.
월정사 사경대회 1,2회 입선
대한민국 미술 대상전 초대작가
운송 김국희
011-9208-3835

- 사찰에서 일하시면서 운전하실 기사 거사님 모십니다
- 사찰에서 일하시면서 숙식 하실 수 있는 부부 연락주세요

(안 성)
017-265-6300
010-3077-6911

경치 좋고 물맑은 산사(山寺)에서 여생을 함께 보내실 분 60세-70세 사이 보살님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경주)
011-534-975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진주)
010-6633-5494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북괴산, 천년고찰)
010-6414-5600

되는 이는 물에빠졌다 나와도 이 주머니에는 잉어가, 저주머니에는 붕어가.. 들어있는데 될때는 뭘해도 되고, 안될때는 뭘해도 안돼... 사주를 보아 원인과 때를 알고 적성을 찾으면 길이 보여...
영축산 토방에서 무불 합장
011-854-8107
(예약상담)

전통 범패 배우면서 부전 하실 분 모십니다
(45세 미만 / 마산)
016-428-6665

**秘 法 무 료 강 의**
초종파! 스님들이여, 광고보고 찾아가면 별것 아니다.
"본 강의"와 因緣되어 홀륭한 선지식 되소서!!
1. 최면학, 빙의치유법, 전생요법,(참 쉽다) 천도재의식(특별비법)
2. 빠져다스리는 법,(참 놀라운 귀 상혼철백의작명법, 관상학, 건강마주기(영혼식), 복치료
3. 전생업보격국법, 약손 만드는 법, 7일 道人비결법(직관) 등
강의시간 : 매월 셋째주 (월요일 10시 - 17시까지)
장소 : 마산 무학산하 법향사 內
※ "침" 특수활용비법! (한의학박사 특별강의)
*** 인연있는 비구, 비구니들이여 좋은인연 되소서! ***
전화 055)221-3358/010-9027-3117 의암 다보 -두손모음-

**동양구운 마늘환**
- 강한 면역력 증가
- 수족 냉증에 탁원한 효과
- 스테미너,만성피로 해결

080-365-3654 (동양물산)
www.gk24.co.kr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3월 동시모집
▶ 저렴한 학비, 실속 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오전반, 목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학력 · 연령 제한없이 누구든 입학가능!
- 졸업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불교대학"을 치세요.
※ 입학문의 ☎ 053)474-8228
행자 (예비스님) 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초급 중급 연구(격국)**
- 초급 3개월 중급 3개월 연구 3개월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 주간반 · 야간반(월요일 7시부터 10시 까지) 정규반
-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 / 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 작명학 연구반 : 1월초 개강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합니다.
  http://kr.blog.yahoo.com/han103051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전화 02)2243-9598, 018-470-6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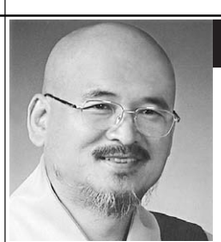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풍수지리** 전문가 과정 6개월 완성
형기 이기 패철 보는법 명당 잡는 법. 5/21(목)19시 개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정원 10명.
◆ 전용원 : 중문학박사로 청오 지창룡박사의 제자.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으며 대학에서 중국문학을 강의하고 있음
◆ 인터넷 동영상강의 : 주역 사주 관상 풍수 육효 수상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부터. www.kbs.cc
관인 월간역학교육원 전화 1688-1137
서울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경동교회 뒤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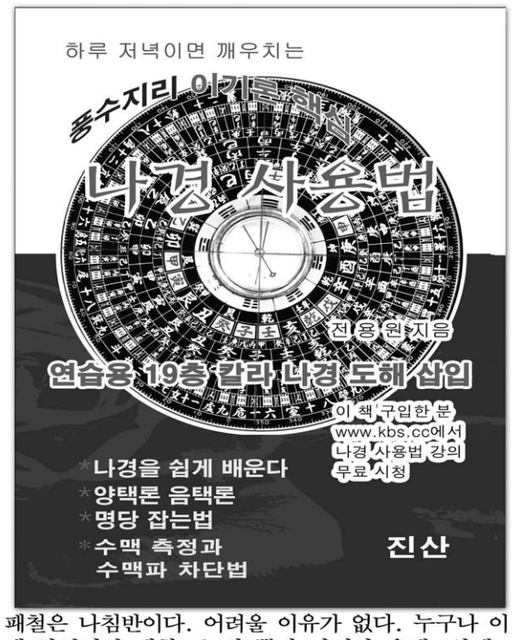
**불교 영상의 모든것**
www.불영.kr
불교뉴스 · 홍보영상 제작
문의전화 02)2236-7208 / 017-207-7208

**귀신뽑는 백초귀장술 비법 전수생 모집**
찾아 온 시간만으로 왜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알 수 있는 래컹비법 공개!
매사가 꼬이고,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나서 방해하는 것인지, 어느 조상천도재를 지내줘야 하는지 등을 한눈에 짚어낼 수 있는 비법은 백초귀장술로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3시 개강※



1:1강의 저자 백초스님 직강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백초율력학당 02) 3667-444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영등포역앞

**패철 보는 법**




패철은 나침반이다. 어려울 이유가 없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패철보는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명당잡는법까지 하루밤에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저. 표지본문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만5천원 할인가 2만2천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권 이상 구입시 권당 2천원 추가 할인.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 주문전화: 1688-1137
명당탐지기 관룡자 있음(할인가 66만원+각종 사은품)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군자 떡
나눔과 자비의 정신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불단용, 제사용, 법회용, 개인 행사용 모든 떡을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모든 떡 일체 문의 : 사군자 떡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 다동 2호
031)843-3372 / 017-302-3372 일심행 합장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 특강**
타고난 운명을 비롯해서 인간만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설명함으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의 강의를 직접 생생하게 듣는 것과 같다. 初步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로 풀이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테이프 13개와 교재대 포함 20만원)
녹음 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은 한번 잘 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작명서들이 한결같이 수리와 오행에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은 수리와 오행이라면 똑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좋은 이름은 수리와 오행뿐만 아니라 주역(周易)에 맞추어 지어야 한다. 주역을 몰라도 누구나 알기 쉽게 찾아 볼수 있도록 하였다. (정가 : 30,000원)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著者 : 孫中山 (75세) 韓國陰陽學會 會長
◆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10-9391-5699

#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iom@hanmail.net
  FAX 02)737-0696

※ 접수마감 : 매주 수요일 오후. 다음주 금요일 게재

##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 : 28평
- 요사 : 29평
- 부지 : 167평
- 전세 : 1억

- 위치 : 부산
- 법당 : 50평
- 요사 : 130평
- 부지 : 135평
- 가액 : 12억

- 위치 : 경기
- 법당 : 25평외50평
- 요사 : 200평
- 부지 : 800평
- 가액 : 3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 사찰 및 토굴안내 전통사찰

- 위치 : 부산에서 30분 거리
- 부지 총평수 : 6천평
- 건물 : 7동, 전통 목조기와 법당(5포 7포)
- 지장전 15평(목조), 공양간 50평, 요사채
- 산세 최고(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따뜻한 남향
- 텃밭(공터) : 2,000평, 주차장(버스) 100대 주차가능
- 양도가액 : 15억(40억 불사)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 대지 96평, 건물 200평
- 도심 현대식 4층 건물
- 가액 : 10억
  (은행 3억 융자 7억 인수 가능)

011-860-1228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 부근(구미 근교)
- 건물(임법당)
- 전세 3,500만원
- 절도량 3,000평

010-2419-8383

##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성서 신도시
- 평수 : 중심지 시장옆 2층 6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협의 가능
  모든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18-506-4059

##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남구 역삼동
- 실평수 : 16평
- 방1, 삼존불, 탱화, 기타
- 보증금 1,000만원
  월75만원
  시설비1500만원

010-8795-2832

## 전통사찰(급)안내

- 납골당
- 관광사찰
- 가액 : 45억(금액조정불가)

010-3683-2578

##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시내 중심가 지하철 3분거리
- 평수 : 약 65평
- 보증금 2000만원. 월7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51)255-7089

## 포교당 안내

- 위치 : 마산 중리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
- 천수관음 4자 외 탱화 5점
- 5층건물 중 4층 38평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소임관계로 급 안내

011-853-0051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군포, 안양지역
- 평수 : 76평. 방4개
  공양간, 샤워실, 회장실별도
  (스님만 쓸 수 있는 곳)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월1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1-685-6740

## 사 찰 안 내 (포 교 당)

- 위치 : 광명시
- 평수 : 35평(시설일체완비)
- 가액 : 2천만원에 월 50만원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한국불사

##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57평, 법당18평(독립채), 요사20평(심야보일러)
- 시내 중심가 큰 길변
- 가액 : 2억 (절충가. 1억4천5백)
- 스님 사정상(유학) 급 양도

010-7325-1259

##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57평, 법당18평(독립채), 요사20평(심야보일러)
- 시내 중심가 큰 길변
- 가액 : 2억 (절충가. 1억4천5백)
- 스님 사정상(유학) 급 양도

010-7325-1259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팔공산 은해사에서 15분거리
- 대지170평, 건물60평, 입지환경 최상, 보일러 (기름 화목 겸용)
- 사정상 급 안내 합니다
- 기도시간에는 전화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 가액 : 1억

011-437-6950

## 고급 단독주택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새로 시작하는 불자님 가족에게

- 위치 : 전주 시내 중심. 단독빌라, 아파트 밀집지역
- 단독주택 대지 65평
- 건평 35평,큰방2,작은방2,거실,욕실, 화장실2,구조 – 현대식 아파트 형
- 특징 : 집안 잔디 나무 꽃 있음
- 가액 : 1억 4천 5백만원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내서읍
- 대지 : 등기필 104평, 기타 사용지 있음
- 건물 : 법당 (단청), 요사채, 스님친견실 3동, 주차 20대 가능
- 가액 : 1억 8천만원(융자 4천만원)

019-550-9725
055)232-7151

## 포교당 안내

- 위치 : 청량리역 2분거리
- 5층건물중 5층 전체사용 80평중 마당 30평, 법당 30평 방2,거실1,욕실2개,부엌1,다락1
- 삼존불,지장단,1자원불 500여불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5800만원(절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010-2069-0824

##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평수 : 대지 300평
- 법당 25평, 방5, 욕실, 주방
- 아미타삼존불,법당공양실물품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전세금 3천만원.즉시법회가능

010-2204-8375

##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북구 칠곡
- 평수 : 3층건물 2층, 3층 70평
- 구조 : 법당, 공양간, 오존불,108불, 방2개
- 보증금 5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6633-8301

##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남
- 법당 50평(전,월세) 방3개(법당시설완비)
- 강남 최고 법당
- 전세 : 7천만원 보증금 2천5백만원,월200만원

010-5545-3071

##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정동
- 모든 시설 일체완비
- 주변 재래시장 전철역주변 건널목 버스정류장 역학하시는분 적합
- 방2, 샤워장, 주방,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보증금 1천만원, 월80만원

010-7572-1265

##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송파에서 20분거리 대도로변위치 유원지 입구
- 대지133평, 건평70평 (대웅전 및 요사채)
- 동물 삼성각, 무허가 건물 40평
- 사찰 마당 넓고 뒤 야산 접
- 가액 : 9억 8천만원

011-286-5109

##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보문동
- 대지 160평, 법당 45평
- 토굴 : 산신기도 40평
- 요사채 : 130평(해우소 별도3개)
- 2층 건물 중 1, 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
- 전세 5억(시설비포함)금액조정가능

010-8577-1811

##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수영 팔도 시장내 동사무소 옆)
- 주차장, 2층, 신설법당 이동인구 밀집지역
- 평수 50평,방2개,화장실, 욕실, 큰 거실 모든 시설일체 완비. 집기 일체 양도
- ※주지스님 소임 관계로 급 양도함
- 법사,철학,무속,스님관계없음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35만원(시설비 1,600만원)

010-7145-4835

##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
- 이전관계로 양도함. 등기 337평 전 163평, 임야 175평
- 한옥토굴27평,방2개,산신각 1동(단청) 요사채 현대주방1칸+방2칸 부엌1칸 창고10평 실내화장실2칸+1칸
- 조경수 및 심야 대형온수기 주차장+창고,마을상수도 사용함
- 가액 : 4,200만원, 꼭필요하신분만전화요망

010-8868-9407
054)673-6496

##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여수 돌산
- 대지 : 250평
- 대웅전(목조)25평
- 산신각, 요사채 각1동
- 가액 : 2억5천만원

011-9765-5302

##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주 시내
- 1층 단독주택 33평
- 큰방1(법당) 외 큰방 2, 거실, 주방, 화장실
- 삼존불, 각단탱화 모든시설완벽, 현재 운영중
- 소임관계로 급 양도 스님이나 법사,보살님께 최적 동네가 조용하고 주차 편리함
- 전세 220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4923-4927

## 사 찰 안 내

- 낙동강 시대 살기좋은 대구 달성 공기좋고 햇살 밝은 남양집 도심속 고즈넉한 한옥주택2채 넓은 주차장과 정원 잘 가꾸어진 마당
- 교통은 사통팔달
- 부지 165평
- 융자포함 2억 1천만원 부지추가 매입가능
- 절충가능

010-3693-3535

## 포교당(급)안내

- 대구 동구 신천지하역2분거리
- 옛한옥 50평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및 사글세 800만원 시설비는 약간
- 역학보시는스님 최적지

010-5886-3088

##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마산 산호시장 농협 앞
- 2층. 30평. 법당1,방2,주방
- 보증금 1000만원,월4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4001-8476
055)243-3758

##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군 무안면 운정리 노리실 부근
- 대지 450평, 법당 50평, 요사채 20평
- 가액 : 9,500만원

055)356-5322
051)254-3016
016-832-5114

##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산시 북부동
- 평수 : 86평(법당 46평) 방 3칸, 공양간
- 삼존불 (아미타불,관세음,대세지보살)
- 전세35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및 비품대는
- 상의 후 결정

010-8011-7444

##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 평수 : 24평,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010-8504-6591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개정 2동
- 대지 : 63평, 건물 3층 96평
- 내부 최고시설, 옥외 약사여래불 조성
- 가액 : 7억 7천만원 (절충가능)

011-850-2189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IC부근
- 대지 : 220평
- 건물1층, 요사채47평 (방6, 주방1, 거실1, 화장실1) 2층 법당 23평 (삼존불,후불탱화,신중단, 칠성단,영가단,산신당 4평 별도)
- 기타 : 심야전기, 옥외주차장, 약80평, 옥외화장실 남 · 녀 각1
- 집기일체, 당일법회가함, 몸만오시면됨
- 노령으로 양도코자함
- 가액 : 답사 후 협의결정

011-9114-9935

##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잠정3동
- 평수 50평, 방2칸, 공양간 별도 삼존불, 인등, 영가단
- 가격 : 전세 3,000만원, 월 100만원
- 보증금 2,000만원 (상담후 절충가능)
- 즉시 법회가능

010-9809-5006

##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 여수군 금사면 전북리
- 대지 298평
- 건물 50평. 1층, 2층(별장임법당)
- 산신각 옆 사계절 물 흐름 토굴 앞 남한강 보임 텃밭, 마당 잔디밭
- 가액 : 2억 9천만원
- 큰방 4, 대형거실, 욕실, 화장실 2, 상수도 지하수 겸용

010-4736-3567

## 암자(토굴)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 대지 300평, 임법당 30평, 흙집 15평, 심야전기 암반수, 산세 좋음
- 가액 : 1억 2천만원(절충가능)

043)543-7928
010-6472-7928

##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태평로(지하철1분거리)
- 평수 : 약 30평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
- 스님 공부관계로 급 양도

010-5075-1141

##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김해시 삼방동
- 평수. 53평(2층) 위치 양호함
- 법당.삼존불 소불200불.등삼백
- 보증금 500만 월 40만 합 이천만원

010-9395-9397
055)337-9397

## 암 자 안 내

- 위치 : 구미시 근접 칠곡군 약목면
- 임법당, 요사채, 옆산, 연꽃 연못, 텃밭, 마당잔디
- 총 320평
- 임대보증금 350만원 1년 350만원 양도도 가능 1억1천만원

017-813-9126

##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옆산, 옆계곡, 법당, 요사채, 마당잔디, 텃밭, 각종유실수 총 3,700평
- 임대보증금 350만원 일년 350만원 양도도 가능. 2억5천만원

017-813-9126

##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
- 부지 : 300평
- 법당 : 60평
- 산신각 : 3평
- 가액 : 4억

- 위치 : 서울
- 대지 : 1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가액 : 13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 평생토굴분양

자격 참선수행에 득력한자로서 마음깻 공부하다 죽을 각오가 정리 되신분

- 분양가 : 3천만원(1인 1실 방 93개 선착순)
- 대상 : 비구, 비구니, 거사님, 보살님, 종단불문
- 위치 : 서울시 정릉 4동 북한산입구 남향 명당혈 버스종점 5분거리
- 혜택 : 숙식, 난방, 수도, 공과금 모두 지원해드림(공부만 하면됨)
- 자가용 소지자는 절대분양못함

02)914-4235

## 포교당(급)안내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평수 : 50평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입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5층건물에 4층 엘리베이터
- 법당, 방 2,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조정가능) / 월 5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3834-8545
010-6739-6426

## 토 굴 안 내

- 위치 : 하동 악양,지리산자락
- 부지 : 680평
- 가옥 : 신축황토기와집
- 특징 : 마을 외곽 경치 좋음
- 가액 : 2억 2천만원

010-4782-2112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궁류면 소재
- 총평수 : 1700평중 허가면적 550평
- 건물 : 임법당, 요사채,산신포함 약 100평
- ※현재 공시중인 사찰로써 갑자기 스님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급하게 양도하오니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 현재 총공사비 약 4억 5천만원 소요
- 가액 : 2억(방문 후 가격절충가능)
- 암자 및 조그마한 사찰과 교환 가능합니다

055)572-0405
011-9850-8208

##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도
- 평수 : 산 1500평
- 절터, 토굴, 기도처로써 명당 터입니다
- 옛날 전설이 있고 도인도사 할아버지가 몇 천년전에도 공부를 하셨던 자리로써 입구에 약수터가 있고 청정도량으로써 원래는 본인이 토굴을 여러 동 지어 지인 들과 함께 수행하던것 이 자금에 차질이 생겨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 본인 역시 독실한 불자로써 수행하시는 분께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봅니다
- 가액 : 평당 30만원

010-5501-3150

##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경북도청 부근 대구역,중심가 3분거리
- 평수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보증금 2000만원, 월115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5층 스님실 25평 포함시– 월 45만원 추가
- 구조 : 최신건물 A/V有, 아미타 삼존불
- 지장,삼성,신중,사천왕탱화, 500인등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0-9598-9117

##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천 중동역 3분 버스정류장 앞
- 평수 : 70평
- 법당1, 공양간, 방3칸
- 전체도시가스, 전기승압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월120만원
- 최고시설. 꼭필요한분만연락바랍

010-7112-1823
032)612-0108

# 배불 주장 구양수 등 설숭 스님 문집 읽고 불교 귀의

## <33> 송대(宋代) 사대부의 배불(排佛)과 귀불(歸佛)(1)


그림 · 김흥인

### 송대 유교 중심으로 불 · 도 결합하는 삼교일치 경향
### 주돈이 등 북송오자 선학 이론 유학과 자연스레 융합

송대는 그 이전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황권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전제군주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그에 따라 사상적으로 전제군주정치를 지지해주는 '유학(儒學)'을 극도로 중시했고, 또한 유학의 이념에 의해 관료들을 선발하고자 당대(唐代)에서 확립된 과거제도를 더욱 발전시켰다.

과거제도는 지방의 중소 지주들과 평민들에게 권력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희망을 줬지만, 당대에서는 그 수가 매우 한정적이었다. 예를 들어 매년 진사(進士)에 급제하는 인원이 1년에 많게는 30~40명, 적을 경우는 10명 미만일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송대에 들어서면서 과거제도는 점차 확대돼 진사의 경우 1년에 500~600명이 급제했다. 진사 이외에 성시(省試), 전시(殿試) 등 다양한 과거를 통해 관직에 등용되면서 송대에서는 문관(文官) 위주의 방대한 사대부 계층이 형성됐다.

송대 초기 사대부들의 특징은 황제들의 중유(重儒)정책에 따라 정치적으로는 불교와 도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사상적으로는 오히려 불교와 도교를 흡수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당대로부터 중국의 사상계가 불 · 유 · 도의 '삼교융합' 혹은 '삼교일치'를 제창했던 사상적 전통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당대에서는 불교를 중심으로 유 · 도 양가와의 '일치'가 제시됐지만, 송대에 이르러서는 유교를 중심으로 불 · 도를 결합하려는 움직임이 주류를 이뤘다. 이러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이학(理學)'의 완성으로 나타났고, 결국 불교와 도교는 점차로 사상적 주류에서 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송 초, 태조의 정책에 따라 유학은 새로운 부흥기를 맞았다. 당시의 유학자들은 한편으로 유학의 '부흥'을 주장하며 새로운 사상을 정립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학이 쇠퇴한 원인을 불교의 득세로 파악해 불교를 배척하는 '운동'을 벌였다. 구양수(歐陽修: 1007~1072) 거사의 문집에 따르면, '장표민, 황오우, 이태백' 등 대다수 학자들이 불교를 폐하자는 주장을 했다(<구양문충공문집(歐陽文忠公文集)> 권17). 또한 손복(孫復)은 <유욕(儒辱)>, 석개(石個)는 <괴설(怪說)>, 호인(胡寅)은 <숭정론(崇正論)> 등을 찬술해 유학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불교를 철저히 배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폐불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유학에 경도된 수많은 사대부들을 불교로 전향시킨 이가 운문종(雲門宗)의 설숭(契嵩; 1007~1072) 스님이다. 총 19권으로 이루어진 설숭 스님의 <심진문집(鐔津文集)>에는 전편에 불교와 유학이 서로 일치함을 밝히고 있다. <심진문집>은 철저하게 '고문(古文)'을 근거로 "폭넓게 (불 · 유 · 도의) 경전들을 인용해 삼가의 가르침이 일치되고, 서로 보충이 됨을 논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소덕선생군재독서지(昭德先生郡齋讀書志)> 권1)

설숭 스님은 특히 '효(孝)'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했다. 불교의 출가는 부모를 버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를 훼손(삭발)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인륜을 위배하고 있다는 유학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스님의 <문집>에는 <효론>이 12장이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 "유가의 <효경(孝經)>은 바로 부처님의 뜻을 밝힌 것"이라는 의도였다. 그 내용에 있어서 "무릇 효는 하늘의 길이며 땅의 정의이며 사람의 행할 바다. 지극하고 큼이여, 효도의 길이여!" "무릇 효는 모든 성현의 존중하는 바이며, 불교는 더욱 중시한다"라고 해 극도로 '효'를 강조했다. 또한 "오계는 첫째, 불살생이고, 둘째, 불투도이고, 셋째, 불사음이고, 넷째, 불망어이고, 다섯째, 불음주이다. 대저 불살생은 인(仁)이요, 불투도는 의(義)요, 불사음은 예(禮)요, 불음주는 지(智)며, 불망언은 신(信)이니, 이 다섯 가지 수행은 곧 그 사람을 이루며, 그 어버이를 드러내니, 또한 효도가 아니겠는가?(<심진문집> 권3 <효론>)"라고 유학의 '오상(五常)'을 불교의 '오계'와 '효'를 연결시켰다. 이러한 설숭 스님의 '효'는 남북조 시기 유협(劉勰)이 <멸혹론(滅惑論)>에서 "불가의 효도는 포괄하는 바가 폭넓고 심원하다. 그 이치는 마음으로 말미암고, 걸림 없이 발휘되는 것"이라고 한 것과 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효'는 유가의 <효경>에서 말하는 이른바 "신체의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감히 훼손하지 않음이 효의 시작이요, 입신양명(立身揚名)함이 효의 끝"이라는 것과는 다른 '대효(大孝)'라는 주장이다.

설숭 스님은 당시 사대부들이 유학에 경도돼 불교를 비판함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승려도 필요치 않고, 선비[儒]도 필요치 않으며,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다. 이것과 저것은 정(情)일 뿐이고, 승려와 선비는 자취[迹]일 뿐이다. 성인(聖人)이 자취를 드리운 것은 근본[本]을 보존하기 위함이요, 성인이 정을 행함은 성품[性]에 따름일 뿐이다. 근본을 보존함이지, 자취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심진문집> 권2, <광원교(廣原敎)>)라고 과감하게 논했다. 이로부터 설숭 스님의 의도를 살필 수 있는데, 불교니 유학이니 하는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 참다운 '자성(自性)'을 찾자는 것으로 선승다운 기개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

설숭 스님은 직접 교류를 통해서 설득하기도 했지만, 서신을 통해서도 배불론자들을 설득했다. <심진문집>의 권9~10에는 위로는 황제와 재상으로부터 아래로는 지현(知縣)에 이르는 관료사대부에게 보낸 서신이 43통이 실려 있다. 이러한 서신에는 논의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는 내용과 작품들에 대한 품평 등이 담겨 있는데, 스님의 호법에 대한 마음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승상이었던 한기(韓琦)가 스님의 문집을 읽고서 감탄해 구양수에게 보였다. 당시 구양수는 스스로 문장의 대가로서 자임해 천하에 사표(師表)를 내었던 차에 스님의 문집을 읽고서 너무 놀라서 한기에게 "승려 가운데 이러한 분이 계시니, 날이 밝으면 마땅히 함께 찾아갑시다"라고 권했다. 다음날 구양수 등은 스님을 만나 해가 저물도록 함께 논하고,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인천보감(人天寶鑑)>). 이후 구양수는 스님께 귀의하고, 스스로 '육일거사(六一居士)'라는 호를 지었다.

이러한 설숭 대사의 노력은 유학자들의 '배불'의 주장을 종식시켰다. 처음에 배불을 주장했던 구양수와 한기 이외에 부필(富弼), 문언박(文彦博) 등의 유학자들을 불교에 귀의케 했음은 물론이다. 또한 인종(仁宗)으로부터 <심진문집>을 입장(入藏)(<대정장> 52책에 수록)토록 했고, 대사의 입적 후에 '명교대사(明敎大師)'의 시호를 받았다.

송초 유학의 '부흥'에 있어서 '배불'의 상황을 맞아 설숭 스님의 노력은 유학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불교와 유학을 '함께' 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내려진다. 이 점은 북송에서 '이학(理學)'의 건립에 토대를 만든 이른바 '북송오자(北宋五子)'인 주돈이(周敦頤) · 소옹(邵雍) · 장재(張載) · 정호(程顥) · 정이(程頤) 등이 불교, 특히 선학(禪學)의 이론을 유학과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것으로부터 확인된다. 북송오자 가운데 주돈이와 정호 · 정이 형제는 <거사분등록>과 <명공법희지(名公法喜志)> 등에 전기가 실릴 정도로 불교거사로서 평가를 받는다.

특히 주돈이 거사는 황종염(黃宗炎)의 <태극도변(太極圖辨)>에서 "목수(穆修)는 무극도(無極圖)로써 주돈이에게 가르치고, 주돈이는 수애(壽涯) 선사에게서 선천도(先天圖)의 게송을 얻었다"고 적었다. 중봉(中峰) 선사 문하의 호장유(胡長孺) 거사가 지은 <대동론(大同論)>에서도 "주돈이의 전함은 북고산(北固山) 학림사(鶴林寺) 수애 선사로부터 나왔다"고 기술했다. 또한 <거사분등록>의 주돈이 거사 전기에서는 명확하게 "나의 이 미묘한 마음은 황룡(黃龍) 선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불인(佛印) 선사에게서 밝힘을 받은 후 <주역(周易)>의 이치를 확연히 통달했다. 상총(常聰) 선사의 열고 닫음으로 탁마함이 없었다면 안과 밖이 훤히 밝아질 까닭이 없었다"고 스스로 자신의 학문적 배경이 불교에 있음을 인정했다.

송초의 관료 사대부들은 유학을 중시하는 정책에 따라 불교를 배척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설숭 스님과 같은 존숙(尊宿)의 호법활동으로 점차 유학을 중심으로 하여 불교, 특히 당시 유행하던 조사선(祖師禪)의 사상을 융섭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송대 관료사대부를 중심으로 하는 거사불교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 제23회 不二賞 공고
不二會에서는 한국불교의 앞날을 이끌어 갈 신진학자와 자비행의 실천에 앞장 서 오신 분을 대상으로 불이상을 제정하여 매년 1회 시상합니다. 불교발전을 위해 힘쓰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시상분야
가.연구분야
대학원 석사과정수료 이상의 학력자로 대학에서 시간강사 이상, 조교수 이하의 직에 있는 자로서, 최근 2년 동안 업적 중 불교전반에 걸친 학문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올린 40세 전후인 자.
나.실천분야
불교에 입문하여 10년이 경과하고 신행과 포교가 모범이 되는 개인(연령제한 없음) 또는 단체
시상규모 각 분야별 1명 1000만원
후보자제출서류
가. 후보자 추천 카드 (본회 소정양식)
나. 자필이력서 (사진 첨부)
다. 학력증명서
라. 경력증명서
마. 업적 증명응 연구물 또는 활동 내역서, 성적 증명서
바. 具足戒, 受戒 증명서
사. 추천서 3통 (총장 · 대학원장, 기관및단체의 장,역대 불이상 수상자)
접수마감 2009년 5월 31일까지
수상자발표 불교계 언론매체
접수처및문의 불이상 심사 위원회
서울 종로구 익선동 55번지 현대뜨레비앙 148호
불이상담당자 앞 (010-3772-8179)
不 二 會

# 統合佛敎儀式大典 出刊

총 1,2권 2,100 페이지 / 가격 : 전권 200,000원
크기 : 4×6배판 (19×26cm)
본문법화의식대전 / 총1권 2,745 페이지
크기 : 14×20cm / 가격 : 100,000원

| 사십구제편 | 고사편 | 추천인 |
|---|---|---|
| 1.입재 불공의식 ○화엄시식 | 1.가정안택의식 | 韓國佛敎 太古宗 宗正 |
| 2.삼우제 불공의식 ○삼우제시식 | 2.사무실고사의식 | 中央僧伽大學校 總長 太古叢林 仙巖寺 方丈 |
| 3.초재 불공의식 ○지장시식 | 3.자동차고사의식 | 宗 釋 |
| 4.이재 불공의식 ○보현시식 | 4.선박고사의식 | 梵 慧 |
| 5.삼재 불공의식 ○문수시식 | | 草 |
| 6.사재 불공의식 ○미륵시식 | 기타편 | |
| 7.오재 불공의식 ○보문시식 | 삼재살 해소의식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 |
| 8.육재 불공의식 ○묘음시식 | | |
| 9.칠재 불공의식 ○관음시식 | | |

統合佛敎儀式大典
문의전화 : 055)747-8350,017-552-7350
계좌번호 : 농 협 803-02-752331 예금주 : 김묘경
우체국 612713-02-021600 예금주 : 김묘경

#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 웃음보살 불등거사 <43>

구성 : 김흥인




## 돌을 갈아 소를 만든 사람 〈백유경(百喩經)〉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공을 들여 큰 돌을 갈아 조그만 장난감 소를 만들었다. 공은 매우 많았으나 얻은 것은 매우 적었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다. 큰 돌을 간다는 것은 부지런히 애써 공부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고, 조그만 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명예를 위해 서로 다투는 데 비유한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은 자세히 연구하고 박학해 많이 알고 그대로 실행하여 훌륭한 결과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눈앞의 명예만 구하면, 교만하고 허황돼 허물과 근심만 더욱 자라게 된다.

옛 판화의 세계

## 정토수행을 부지런히 닦게 하다 근수정토(勤修淨土)



〈석씨원류〉 중 근수정토(勤修淨土)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곡(盤斛) 27.2×18.0cm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스님인 혜일이 천축에서 7일기도를 통해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가피를 받는 장면을 만화적인 상상력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혜일(慧日, 680~748)은 중국 당나라 승려로 정토교(淨土敎) 자민류(慈愍流)의 개조(開祖)이며, 의정(義淨) 스님의 영향으로 인도 불적(佛蹟)을 참배하기로 마음먹고 수마트라와 실론(스리랑카)을 거쳐 인도로 들어간 뒤, 719년 18년 만에 장안(西安)으로 돌아왔다. 현종으로 부터 자민삼장(慈愍三藏)이라는 호를 받았으며, 인도에서 터득한 정토교를 열심히 포교하여 정토교 자민류의 개조가 됐다. 저서에 〈정토자비집(淨土慈悲集)〉 〈반주삼매찬(般舟三昧讚)〉 등이 있다. 본문을 살펴보면 "혜일 스님이 천축에서 많은 학자들이 서방정토를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 말이 부처님 말씀과 합치되는 것을 깨달아 이 말을 머리에 새기고 건태라국 왕성의 동북쪽에 있는 큰 산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관세음보살상이 있었는데, 만약 지성으로 기도하고 청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할 수 있었다. 혜일 스님은 7일 동안 머리를 조아리고 또한 단식하여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기를 기약했다. 7일째 되는 날 밤에 이르자 홀연히 관세음보살이 공중에 보였다. 관세음보살은 자금색의 모습으로 보배 연꽃 위에 앉아서 오른손을 드리워 혜일 스님의 정수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법을 전수하여 자신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고자 하고 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아미타부처님의 나라이며, 그곳에서는 염불 송경을 하도록 권유하며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그 나라에 도달하게 되면 아미타부처님과 나를 만나게 될 것이며 큰 이익을 얻게 된다. 너는 스스로 알지어다. 정토의 법문은 모든 행보다 뛰어나고 그 테두리를 넘어서는 법문이다.' 말씀을 마치자 홀연히 사라졌다. 그 후 혜일 스님은 장안으로 돌아와서 부처님의 진용을 나라에 진상하고 구루 도인 속인들에게 권유하여 정토의 업을 닦게 했다." 이 본문의 내용처럼 관세음보살님이 서방정토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 혜일 스님의 정수리에 가피를 내리는 모습으로 함축한 삽화를 통해 우리는 혜일 스님이 천축의 삼장들에게 배웠던 이론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 詩가 있는 도량

■ 눈 내리는 탑

나는 너의
어느 날 푸른 맹세이다가

너 또한 나의
어느 날 붉은 심장이다가

이제야

좋다좋다 손뼉치며
천지를 밝히는
순백의
한 소식

–권수형/ 시집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말법시대와 나누는
화두이야기
옛부터 조사(祖師)들은 '삶이란 억만겁의 향상로를 가는 것'이며 향상의 여정에서 자기완성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했다.
– 머리글 중에서 –
말법시대의 「지식」과 「과학」은
온통 중생의 탐진치와 전도망상으로 가득 차 있다.
말법의 온갖 허물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진리로운 삶을 구현해 갈 것인가?
고 목 지음
도서출판 미르아이
신국판 464쪽
₩ 16,000
도서구입처 : 전국 주요서점
연락처 총판 | 운주사 02-3672-7181
저자 | 055-353-6142 010-2356-6142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6-219-7180/ 011-743-5167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토불이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 자기 주인공을 믿지 않고 누굴 믿어요, 세상에!

(지난 호에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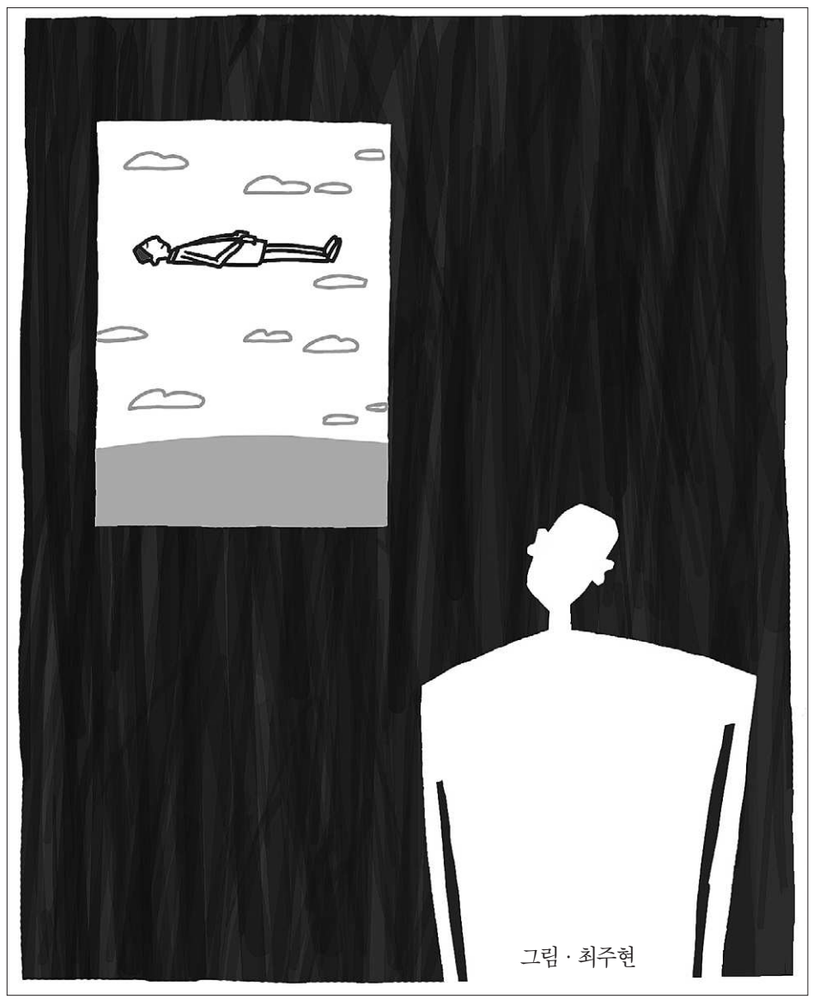
**질문자1(남):** 그래, 6월 한 달은 쉬고 7~8월 계속해서 제가 몸이 다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그런 일이 연거푸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 병원에 도둑이 든다든지, 손이 부러진다든지 일 년 내내 하여간 그런 일이 연거푸 일어나 열두 달 동안에 두 달만 빼놓고 열 달 동안 제가 주인공으로부터 철퇴를 맞았습니다. 맞고는 마지막 12월을 보내면서 제가 작심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 년이 또 지나갔는데도 일 년 동안에 아무런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저는 학교 공부도 남 못지않게 잘해서 명문학교만 다니고 서울대학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내가 이 불법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왜 안되는가? 정말 딴 법우님들은 몇 달도 안 돼서 주인공과 같이 뒹구는 체험을 턱턱 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나는 얻어터지기만 하고 좋은 체험은 하나도 없나? 언제쯤 하게 되나 하고, 마음속으로 참 많이…. 여하간 제가 공부가 부족한 걸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또 일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94년이 됐습니다. 94년 새해가 얼마 안 돼서 밤에 제가 한번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제가 꿈속에서 어떤 사형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죄목은 알 수가 없는데 사형장에 가서 옆에 도부수가 이제 목에 침을 탁 뱉고 칼을 빙빙 돌리면서 제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스님이 오셔서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주인공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님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다." 하고, 괜찮다고, 가시라고 제가 꿈속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앉아 있는데 죽지 않고 그냥 그 꿈이 그런 상황으로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깨고는 뭔가 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다시 꿈을 꾸었는데 꿈에 큰스님께서 나오셔서 저에게 "아! 이제부터는 너 안 아프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시면서 국소마취를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참, 체험은 안 오고 해서 업장이 얼마나 두터워서 안되는지, '언제쯤 가야 정말로 나는 이 주인공 존재를 느끼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나.' 정말 제가 마음으로 간절하게 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데 제가 데리고 있는 간호사 한 명이 만삭이 다 돼서 수술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본래 혈압이 조금 높아서 예정일보다 조금 당겨서 수술 날짜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개 수술을 하기 2~3일 전에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한 보름을 남겨 놓고 어느 날 갑자기 검사를 해 보라고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툭 던져 버렸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체크를 해 보니까 혈압이 거의 뭐 200까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뒀으면 산모나 애기나  그날 밤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를 아주 위중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검사를 통해서 그 상태를 미리 알아 가지고 그날 바로 수술을 해서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주인공 자리에서 이제 좀 뭔가 일러 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은 또 제가 분만을 하려고 소독된 장갑을 끼었습니다. 그런데 장갑을 끼면서 제가 간호사들을 보고 "너희들이 이 장갑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장갑 소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무장갑 같은 거는 고온멸균소독을 해야 합니다. 고온멸균소독 하느냐고 확인을 해 보니까 천만 뜻밖에 그렇게 안 하고 자외선소독을 한다는 겁니다. 자외선소독은 완전 멸균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날 분만을 하고는 불렀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제가 개업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이 넘도록, 말하자면 소독이 안된 장갑을 끼고 수술하고 분만을 했는데 그 동안 아무 탈이 없었던 것도 너무 신통하고, 제가 보통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분만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그렇게, 아마 그것도 주인공 자리에서 더 이상 멍청하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하라고 일러 준 걸로 생각을 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일을 하다가 잠시 이렇게 앉아 있거나 하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아, 그렇지! 왜 그걸 예전에 몰랐을까?' 그러고 조금씩 이렇게 밝아지는 느낌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은 제가 분만을 했었는데 애기가 한 시간 만에 갑자기 사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개원해서 사망한 애기가 두 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겁이 나서 큰스님께 바로 고하고, "아이고 스님! 환자들이 난동을 부릴지 모르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스님께 매달렸는데 작년에 두 번째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큰스님께 또 말씀을 드리면 큰스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저런 걸 혼자 해결을 못 하고 찾아오면 참 저리 한심한 친구를 어떻게 하냐.' 하고 스님께서 슬퍼하실 것 같아서 그냥 '아이고, 만드는 것도 너, 죽이는 것도 너, 뭐 병원을 부수는 것도 너!' 하고 하여간 다 그냥 맡겨 버렸습니다.

맡겨 버렸는데 그날 밤에 애기를 병원 영안실로 보내고 애기 아빠랑 저와 같이 제 차를 타고 오는데, 애기 아빠 표정이 아주 사나워져서 금방이라도 저를 내려칠 그런 표정이고 그래서 밤에 어떤 일이 생길는지 몰랐습니다만 그냥 정말 마음자리에 고하고 저는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와 보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아기가 허파에 구멍이 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아주 심한 선천성 기형이 있는 아이라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탈이 없이 잘 지나갔는데, 그러고는 제가 마음에 조금 자신을 가졌습니다. '아! 이렇게 주인공 자리에서 나를 이유 없이 골탕 먹이지는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겁내지 않고 세상을 살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경우에 결정적으로 실수를 할 상황이 되면 주인공 자리에서 저를 탁 이렇게 막아서는 걸 느꼈습니다.

한번은 일요일 새벽에 분만을 하고 아침에 선원을 오려고 하는데 병원에 가기가 아주 귀찮았어요. 잠을 못 자서요. 그래서 그냥 '선원에도 가지 말고, 산모도 보지 말고 그냥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다시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딱 눕자마자 갑자기 '아니, 너 분만한 산모 자궁 속에 거즈를 넣어 놨으면 어떡하려고 지금 누워 있느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산부인과 의사를 한 지 13년이 넘었는데 그런 실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한번 드니까 누워 있어도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환자 자궁 속에 거즈가 딱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거즈를 끄집어내고는 '아! 참 주인공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몇 년 동안이나 골탕을 많이 먹이고 나타났는지, 그래도 고맙기는 고맙지마는 내가 좀 더 일찍 이렇게 주인공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분만을 하면 한 달에 꼭 두세 명은 애기가 상태가 나빠서 종합병원으로 애기를 늘 보내야 됐습니다. 상태가 뭐 여기가 안 좋고 저기가 안 좋고 그래 가지고요. 그런데 최근 1년 동안에는 단 한 명도 애기가 안 좋아서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저만 좋은 게 아니고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좋고 그런 건데 왜 이 공부를 내가 이렇게 늦게야 만났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님, 그래서 저는 '참나가 이 육신과 이 마음을 참 잘 이끌어 가고 있구나. 아직은 모르는 게 많지만 점차 점차 뭔가 이렇게 밝아질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주위에 보면 건강이 안 좋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정신적으로 방황을 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여 저에게 일이 닥쳤을 때 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주인공 자리에 관(觀)하고 놓습니다만 물론 아직 제가 때가 덜 닦여서 그렇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관한 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내가 정말 공부가 된 건가 안된 건가. 정말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그

☞26면으로 계속

선禪의 전통이 위협받는 시대에 다시 읽는 선의 정수!
대만의 성엄선사1930~2009가 현대의 수행자들을 위해 설한 선의 고전 강해

마음의 노래
– 우두법융 선사의 「심명心銘」 강해.
대성大晟 옮김 | 320쪽 | 12,000원

지극한 도道는 어렵지 않다
– 「신심명」, 「참동계」, 「보경삼매가」 강해
대성大晟 옮김 | 288쪽 | 12,000원

탐구사 전화 (02) 702-3557 팩스 702-3558

I AM THAT
아이 앰 댓
–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와의 대담
'내가 있다'는 자각의 수행법과 깨달음의 극칙을 설한 불멸의 고전
마하라지 | 대성大晟 옮김 640쪽 | 25,000원

무스탕
– 시간의 저편으로 떠난 여행
히말라야의 은둔 왕국 무스탕, 그 아득한 비경을 답사한 기록
대원 지음 | 335쪽 | 17,000원

네루 평전
– 자와할랄 네루의 생애와 유산을 통해 현대 인도를 이해하다.
사시 타루르 지음 | 이석태 옮김 | 320쪽 | 15,000원

구입처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 24, 운주사 및 전국의 주요 불교서점

buddhanews.com

# 모두 자기를 내세울 게 없습니다, 공해서

☞25면에서 계속

런 의문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왜 제 육신에 대한 일은 그렇게 주인공이 처리를 잘해 가면서 저와 관련된 주위 사람들의 일은 그렇게 잘 안되는 건지 그걸 스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아,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주변의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정수의 이치가 이렇게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대로 헤아릴 수 없이 실천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무한량이라고. 그런데 댁은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요렇게도 생각하고 조렇게도 생각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즉시 들어가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한 거야. 아이, 무조건이지 뭐가 그렇게 이 생각 저 생각, 요리 비꾸러지고 조리 비꾸러지느냐고? 앞서 경전을 너무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 너무 알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이야, 무조건. 저 나무들이 뿌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살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종자가 있기 때문에 싹이 있고, 싹이 있기 때문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걸 알면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말로는 그 광대한 이치를 어떻게 헤아리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런데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어. 어느 신도가 말이야, 애를 가졌는데 가서 보니까 쌍둥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와서 쌍둥이라는데 어떡하면 좋으냐고 그래. 두 달이 좀 넘었다던가 그랬는데, 석 달이 채 못 됐을 거야. 그랬는데, 그렇게 겁나서 애를 쓰니까 내 생각에 '쌍둥이는 무슨 놈의 쌍둥이!' 그러곤 말았거든. 허어, 그랬는데 나중에 또 가보니까 이제 쌍둥이가 아니라고 또 그러더라는 거야. 허허허….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낳을 달이 됐는데, 낳을 달이 지나도 안 나와서 날짜가 돼서 병원에 가니까 거꾸로 섰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또. 그래, 생각들 해 봐요. 돈이라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서면 바로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몸 망가질까 봐…, 바로 세우는 데도 아주 크게 뭐가 잘못될 수도 있대요. 하여튼 몸에도 그렇고 좋지 않대요.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소리 좀 봐요. 의사가 하는 소리가 "날더러 거꾸로 된 거 바로 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저 한마음선원에 대행 스님한테 가서 바로 서게 해 달라고 그래라." 그러더라는 거야. (대중 웃음) 그래서 속으로 웃으면서 그러겠다고 그러고선 돌아왔다는 거야.

그러고 정말 전화가 왔어요. 의사가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스님한테 말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2~3일 후에 가서 검사해 봐!" 그랬다고. 그래 그 이튿날 가니까 "어! 바로 됐네." 이러더라는 거야. 하하하….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요만한 거든지 큰 거든지 똑같아요. 실천하는 건 똑같다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건 너무 커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것까지도 바로 거기서 다 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저하고 의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자기 주인공을 의심하면 죄 받죠. 자기 주인공을 믿지 않고 누굴 믿어요, 세상에? 죽는 것도 누가 대신 죽어 줄 수 없고, 아픈 것도 그렇고, 먹는 것, 싸는 것, 자는 것, 깨치는 것, 이 여섯 가지를 아무도 대신 못해 주는데 누구를 믿어요,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만이 자기를, 자기 몸을 이끌어 가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 모든 생명들의 의식을 다스리고 나가는 선장이라고요. 다스리는 선장은 바로 그 체가 없는 마음의 입자를 그냥 수없이 내보내서 어떠한 용도라도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스님은 저렇게 뻥이나 치고,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고 그런다.' 그러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대로 여여하게 초월해서 회전되고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느냐, 저렇게 회전을 시키느냐, 그거에 따라서 살기가 평화롭기도 하고, 살기가 아주 어렵고 복잡하게도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인공을 찾아도 이렇게 안된다고 할 때, 거기에 대고 내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알았다고 그냥 보낼 때도 있는데 그런 때는 그냥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 또 "관하세요!" 이럴 때는 그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왜 관하면 될 거를 그렇게 못 믿고선 못 관하고 그러느냐? 내가 산소에 가도 산소로 쫓아와 그거 해 달라고 그럴 테냐?" 그러고 야단하죠. 때로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막 하니까요. 그렇지만 딱해서 그러지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좀 미련한 듯하게, 허허허…, 똑똑한 척하지 말고 미련한 듯하게 '무조건 너만이….' 그저 보면 보는 대로 이렇게 벌써 부와 자가, 주인공과 자기와 둘 아닐 때는 길에 지나가는 것만 봐도 그냥 '아, 저건 안됐다.' 이러면 그냥 천가가 되는 거야. 꼭 주인공에다 맡기고 안 맡기고가 어딨어, 싹과 뿌리와 한데 붙었는데. 안 그래? 그러면 그렇게까지 되게끔 돼야지.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일은 나가서 할 수 있게끔 돼야 돼. 구경을 하면서도 벌써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면서 화해서, 이 우주 전체를 그냥 끌어다가 나 하나로 만들든지, 또는 그 사람한테 관하는 것만 알려 주고 내 마음을 내 주면 붙어서 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불은 들어오니까 알아서 해요.

**이론으로만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좀 미련한 듯하게 모르는 척하고**
**그냥 경이고 뭐고 아는 거는 몽땅 다 주인공에다가 팽개쳐 버리세요**

**질문자1(남):** 네,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리고 이 공부라는 건 아무리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진짜로 믿는다면 겁낼 필요가 없어. 겁내지 마세요. 지금 당장 죽는데도 겁내지 말아야 된다. 오늘도 불교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참…, 그것을 그렇게 실천을 안 해 본 사람은 그 뜻을 모르지. 부처님께서 전법하실 때에, 뱀이 나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내 대신 과일을 먹어라." 하고 과일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옆에 앉아 계신 스님에게 "저건 뱀이 뱀이 아니고요, 과일이 과일이 아니죠." 이랬어요. 왜냐하면 뱀은 길게 되면 한 일(一)이 되고, 둥글리면 원이 되고, 대가리를 들면 흰 백(白)이 되거든. 백이 돼. 흰 백(白) 자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들었으면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용이고 용무고, 또 기다랗게 펴졌으면 하나가 되는 거고, 원이 돼도 하나로 뭉쳐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과일을 줄 때는 둘이 아님을 표시한 거고, 이것을 받아먹은 뱀은 둘이 아니게끔 알기 때문에 서로 받아먹은 거다 이거야. 이거는 과일을 준 게 아니라 마음을 준 거고, 원심(圓心)을 준 거고 이쪽에도 원심으로 받은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잡아먹을 수는 없지요. 그런 법이고 그런 공부죠. 우리가 산에 가 보지 않았으면 모르듯이, 음식을 먹어 보지 않았으면 맛을 모르듯이 우리가 그러한 공부를 경험을 안 해 보면 모르기 때문에…, 속가에서 살면서 그만한 고통도 안 받고 그 공부를 할 줄 알고? 허허허…. 욕심도 많다. 죽은 세상에 가 봐야 죽은 세상을 알지, 어떻게 알겠나?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죽은 세상 빨리 가보고 싶은데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가정의 달이라고 효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진정 스님한테 효도하는 길은 빨리 성불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둘로 보고 있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공부가 덜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질문 올리겠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거하고 두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큰스님:** 이거 보세요. 내 몸뚱이는 내 몸뚱이가 아니에요. 모든 생명들의 집이죠. 그런데 그 생명들을 다스리는, 바로 자기 마음의 근본이 있거든요. 근본을 진짜로 믿는다면 두려운 게 없어요. 그 믿는다는 걸 어떻게 말을 해 줘야 될까? 진짜로 믿는다면요, 아무 의심도 없고요,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도 의심이 가지 않아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 알아서 해라 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두려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것도. 죽는다 산다 이런 것에도 두려움이 없고요. 또 뭐라고 그랬죠? 두려운 거하고?

**질문자2(남):** 나를….

**큰스님:** 어, 내세운다. 믿지 못하니까 나를 내세우죠. 내가 몸속에 있는 생명들과 더불어 물 한 컵을 마시되, (물을 마셔 보이시며) 지금 이 목이라든가 위에서 나더러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부름 해 줬죠, 지금. 그런데 이 심부름을 해 주면 더불어 같이 먹는다고요, 일체가. 그러니까 어떠한 나가 먹는 게 아니고요. 나만 먹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를 내세울 게 없다는 얘기죠.

**질문자2(남):**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천하기가 참 힘들어서….

**큰스님:**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알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좀 미련한 듯하게 모르는 척하고 그냥 경이고 뭐고 아는 거는 몽땅 다, 주인공에다가 팽개쳐 버리세요. 팽개쳐 버리고 거기에다가, '흥! 못났든 잘났든 네가 형성시켜서 네가 이끌고 가는데, 너 알아서 해라!' 그러고 그냥 몽땅 거기다가 팽개쳐 버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 참자기와 현재 자기가 상봉이 돼요. 이 상봉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광대하다고 이렇게 얘길 해 줘도 그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뿐인가요? 돈오(頓悟)라는 거는 지금 내가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봉을 해서 애를…, 어떻게 해야 쉽게 말을 하지? 상봉을 해서 잉태를 해 가지고 어린애 낳은 거와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어린애가 어른이 될 때까지, 자랄 때까지 하는 거는 점수(漸修)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름이 돈오, 점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돈오와 점수가 둘이 아니게 됐을 때는 그때 가선 돈수(頓修)라고 그러죠, 돈수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돈수라고 그러다가, 또 이것이 다 넘어가면 왜, 대학을 나와 가지고 대학원을 들어가면 대학 나온 거는 다 없어지고 대학원 나온 것만 위로 남죠. 그거와 같이 구경에 이르러서 생사를 아주 다 탕탕 놔 버린 그런 상태가 돼야만이 그때는 돈수니 열반이니 이런 이름도 붙지 않는, 아무것도 붙지 않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두렵다거나 나를 세운다거나 이런 거는 언어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공부 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내세울 게 없다는 결론이에요. 내 이 몸뚱이 하나가, 지금 하나의 세계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것이 세계인데 어떻게 혼자 산다고 그래요? 이 지금 몸뚱이 속에 위공장이 있는가 하면 성대공장 · 식도공장 · 심장공장 또, 간장공장 · 이자공장 · 척추공장 · 척수공장 · 방광공장 · 콩팥공장 뭐 공장이 이거는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피부에 대한 문제, 핏줄에 대한 문제도 있죠. 이 지구에도 지금 핏줄이 있는 것을, 즉 법계라고 하죠, 법계! 법망이라고도 해요. 말하자면 그걸로 인해서 통신이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 핏줄이 한 몸뚱이를 전부 돌아다닐 수 있는 통신망이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런 망이 없이는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 모두 자기를 내세울 게 없어요, 공해서.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 주인공은 속에서 하고 주인공 몸뚱이는, 즉 말하자면 시자는 뛰고요. 내가 간단하게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나는 할 테니까 너는 뛰어라!" 이러셨다고요. 하하하…. "나는 할 테니까 너는 뛰어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지혜롭게 잘 이해를 하면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무조건 감사한 일이 생기면 자기 주인공에 모든 거를 감사하게 놓고요. 또, 아니 되는 거는 '아니 되게 하는 것도 너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놓고요. 그렇게 하세요.

※위 법문은 1996년 5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시대는 정확한 체질에 맞는음식.맞는과일.맞는차를 알고 먹어야내몸에 균형을 이루어서 큰병을 만들지 않고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갈수 있어요!

내몸에 맞지 않는 음식은 내몸을 병들게 하는 원인으로 나의 체질을 알고 먹는게 아주 중요하지요?

40년넘게 얼굴생김새.목소리.체형.성격을 본후 피부를 만져보면 체질을 정확하게 알려주고.유전적인병명.현재앓고있는병등을 만나는대로 알수있고 체질한약차로 병을고치는분을 만나로 오세요.끝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분을 만나보면 인생이 바뀌지는 행운이 열립니다.지금전화주세요? 스님들은 수행에큰변화를 얻을수있어요!

누구나 무료로 오시면 정확한 체질을 알려드립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는 모든 특혜를 드립니다

상담연락처 011-9373-377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빙의 (귀신들린 병)
퇴마.사주.작명.
(개인지도.직접상담)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최면요법.
전생요법.
우울증.
심리불안.
공황장애.
결벽증.
불면증.
다이어트.
금연.

공포증 (대인공포,폐쇠공포,고소공포,남자공포,여자공포,물공포,불공포)
학생상담 (집중력,시험불안,발표불안,인터넷중독,습관변화,자신감고취)

빙의상담! 헛소리를 하십니까? 무슨소리가 들립니까? 잡것이 보입니까?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 역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불자 세상보기

이 병 두
칼럼니스트

# 작아서 아름다운 축제가 되도록

올해 서울에서 열린 연등축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동대문 운동장 철거로 연등 행렬 출발 장소가 동국대 운동장과 장충체육관으로 나뉘어졌을 뿐만 아니라 봄날답지 않게 쌀쌀하고 비가 내릴 기미까지 보인 날씨 탓에 동참 인원이 예년보다 적었다.

특히 장충체육관의 경우에는 극소수에게 입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연등축제 행사장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동국대 운동장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칠 우려까지 제기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연등 축제 행렬 출발에 앞서 현재와 같은 대형 행사를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제등행렬은 해가 갈수록 다양한 주제를 담은 장엄등이 등장하여 행렬 동참자뿐만 아니라 관중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 다른 불교 국가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제등행렬이 있지만, 우리처럼 규모가 크거나 화려하고 다양한 장엄등이 등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불교도들만의 축제이지 국민 축제 성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우리도 과거 전통시대에는 '정월보름' ? '단오' ? '7월 백중' 등등 매월 국민 전체가 즐겁게 참여하는 축제가 있었지만, 근대화 이후 이 모든 것을 잊거나 잃어버리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었다.

특히 제등행렬과는 별도로 조계사 앞에서 펼쳐지는 '불교문화마당'은 몇 해 전부터 외국인들의 관람과 참여가 눈에 뜨이게 늘어나고 있어서 불교문화를 알리고 나라의 관광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서 '부처님께서 대한민국에 전해주신 큰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이처럼 긍정적인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몇 해 전부터 몇몇 종단과 대형사찰들에서 대규모로 참여하고 화려한 대형 장엄등을 준비하면서 축제를 빛나게 한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작은 절의 신도들은 위축을 느끼게 되고 결국 축제에 불참하는 소형 사찰들이 늘어났고 불교계에서도 '큰 곳'을 선호하는 풍조를 낳았다.

세상 모든 곳에서 "큰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야!"라며 대형화하고 있지만, 불교 집안에서만은 이런 세상의 흐름과 달리 불교경제학자 슈마허의 말처럼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중요한 원칙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해마다 "올해 우리나라 국민과 세계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부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한 뒤 이를 상징하는 대형 장엄등 몇 개 정도만 만들면 안 될까.

신도를 대규모로 동참시키고 큰 상징물을 만들어오는 대형 사찰이 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타 종교의 공격적 선교와 정부의 종교 편향 등으로 위축된 불교도들의 가슴을 활짝 펴게 해주고 "우리도 이런 정도의 힘이 있다"며 보여줄 필요는 인정되지만, 과연 현재처럼 대형화 추세를 계속해나간다면 "큰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세상의 흐름이 문명의 붕괴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기로 몰고 간 주범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된다.

지난해부터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맞아 '소욕지족'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명년부터 열리는 연등축제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기본 원칙에 맞추어 기획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제까지의 틀을 바꾸어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는 일이 매우 어려울 것임은 잘 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니 결코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社說

### 연등축제 더 새롭게 변신을

4월 26일 서울 조계사가 위치한 우정국과 장충체육관 동국대학교 운동장 그리고 동대문에서 종각에 이르는 종로통에서 연등축제가 열렸다. 지방에서도 크고 작은 축제의 불을 밝히고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불자와 국민들의 환희를 맘껏 발산했다. 연등축제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외국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축제를 찾는 관광객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연등축제는 현대 불교의 또 다른 모습이다. 불교는 수행과 나눔의 종교다. 올 봉축표어가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사회'이듯 불교는 안으로 수행하여 자신을 맑게 하고 밖으로 나누며 더불어 행복한 삶을 일구는 종교다. 그런 불교의 모습이 연등축제를 통해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연등축제는 바로 불교의 정신을 드러내는 축제이며 그를 통해 불교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마냥 즐기기만 하는 잔치가 아니라 즐기면서 안쪽을 살피고 살피면서 바깥을 향해 새로운 원력을 세우는 그런 축제가 연등축제다.

연등축제는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내용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고정적인 메뉴를 벗어나 보다 새롭고 뜻 깊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불교의 정신을 가장 알차게 담아 동참한 대중들이 즐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몰두할 시점이 온 것이다.

### 지율 스님에게 배워야 할 것

지율 스님은 지금도 강(江)가에 있다. 강둑길을 걸으며 초록의 공명들을 만나고 있다. 천성산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면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지율 스님은 지금 세상 사람들의 관심권 밖에서 이 땅의 물길을 따라 걷고 있다. 개발론자들이 파헤친 산과 강의 생채기를 보듬으며, 메말라가는 인간의 마음에 물길을 내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천성산 터널 공사 방해와 관련한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했다. 길을 걷다가 재판 소식을 들은 지율 스님은 재판 결과에 이의를 달지는 않았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글에서 '설령 목에 칼을 쓰고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저는 지금과 같은 선택을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는 말로 소신에 변함이 없음을 드러냈다.

세상 사람들은 지율 스님에게서 환경 운동의 모습만 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자라면 지율 스님에게서 또 다른 면모를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정직함'이다. 2002년부터 시작된 지율 스님의 행보는 왜곡된 적이 없다. 보여주기 위한 저항도 아니고 무엇을 얻기 위한 투쟁도 아닌, 그저 인간으로서 수행자로서 자신이 선택한 '옳음'에 대해 아주 정직한 걸음걸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지율 스님이 온 몸을 바쳐 보여주는 행보는 환경운동 이전에 인간운동으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목에 칼을 쓰고 지옥을 가는 한이 있어도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정직할 수 있는 것이다. 불자는 바로 그 원력과 실천행의 아름다운 조화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 모두 받아들이는 보살심 갖기를…

### 5월의 테마-가정

인류가 최초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가상의 낙원인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되었나?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견해는 약 100만 년 전 원시인류가 두발로 걸어 다니면서부터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인류가 일어나 걸으면서 전두엽에 모인 신경세포의 발달로 기억력이 증가되어 원시농경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유치하나마 원시가족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계기인 것이다. 이렇게 출발한 가정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그 처방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매년 돌아오는 가정의 달인 5월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달이다. 그것은 석탄일과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인의 날 등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고귀함을 간직한 축일이요 기념일들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평소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 사회의 건강함을 보려면 가정의 안락함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봄이 기본이다. 그러나 최근세에 우리 사회는 일제압박과 한국전쟁을 거친 후 60~70년대 군사독재와 근대화라는 과제가 미해결된 채 80~90년대의 법난과 민주화 및 IMF를 겪으면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예를 들면 대가족의 붕괴 및 사회지도자층의 부정부패에 따른 권위체부재로 인한 문제, 물질지상주의 문제,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독선적 양심불량의 문제, 여권운동의 어긋난 방향설정과 인구조정실패 및 이혼율증가의 문제 등이다. 이러한 불확정적인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부작용의 문제를 사회학자인 오그번(Ogburn)이나 정치학자 앨몬드(G. Almond) 등은 사회정신병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외 없이 우리의 심각한 사회병리 중 하나는 90년대 들어와 꾸준히 증가한 이혼율이다. 물론 이혼 숙려기간제의 도입 등의 노력으로 최근에는 주춤하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가정이 파괴되면 유?청소년들의 충격은 개인당사자는 물론이고 엄청난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부처님 제자 중 신통제일이었던 목건련존자는 전생에 어머니께는 불효하고 아내만을 사랑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어떤 힘센 장수가 저 놈을 쳐 죽일 수 없을까?"하고 포악한 말을 했다. 그 후 존자는 500생 동안 타살의 인연이 계속됐고, 출가해 아라한이 된 후에도 이교도들에게 타살되는 업연을 받았다. 프로이드(G. Freud)나 멜라니 클라인(M. Klein)의 학설을 빌리지 않아도 어머니의 역할은 유 · 청소년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 사회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삶을 영위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청소년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보살의 마음이 돼 중도의 조화를 이루기를 기원 드린다.



도각 스님
원효무애춤전승보존회장
자연치유학 박사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Hyunbul Shop

#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를 외호하며 불교여론을 주도해 온 현대불교신문사는 언론을 통해 정보사회 구현과 포교에 매진함으로써 2,000만 불자들의 긍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생활화,세계화를 목표로 생활 속의 불교 구현을 위해 함께하는 온라인 쇼핑몰 **현불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불교정보를 기본으로 불교용품, 일반용품, 불교도서, 음반, 불교정보, 각종 이벤트 등 알찬상품들을 언제,어디에서나 가장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현불샵 (HYUNBUL SHOP)**이 앞장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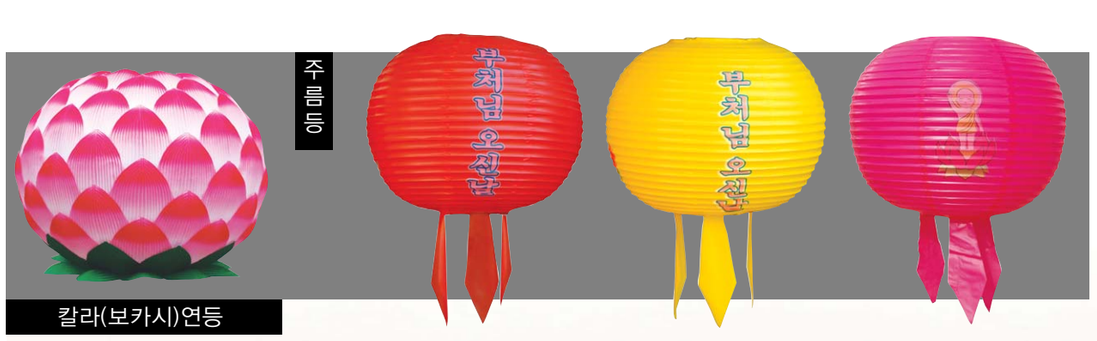
생각을 깨우는 쇼핑몰
Hyunbul Shop

**HYUNBUL SHOP(#)**은 현대불교신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불교상품에서 일반용품, 불교도서, 음반에 이르기까지)

#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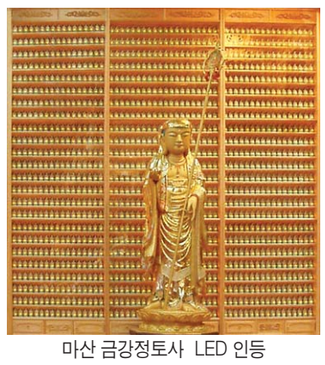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천안 동심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